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0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8월 28일

신선한 和音의 충격 관악의 新進技藝들의 연주회에 2500여 미주 동문 음악애호가들 기립갈채

冠岳의 精氣 속에 傳統國樂과 서양고전음악을 연마해온 10명의 母校 젊은 동문 음악도들이 조국 광복의 달에 북미주 8개도시에서 9번의 공연을 성황리에 가져 참석한 동문과 미주의 음악애호가들을 "신선한 和音의 충격"(NY 박상원 동문)으로 魅了하였다. 공연

장마다 가득 메운 2500여 청중들은 전원 기립갈채로 新進氣銳들의 화음의 선물에 응답하였다. 이 연주단(단장 金炯培 모교음대교수, 주무 대학본부학생처 權淇 氏 및 10명의 연주자)의 순회공연은 16일(금요일) 시카고에서 있던 첫 연주회를 North Park Univer-

sity의 Anderson Chapel Hall에서 300여명의 관중들의 환호 속에 끝낸 후 이어 17일 Kansas City 공연(320여명의 청중), 19일의 NY공연(400여명), 22일의 Philadelphia 공연(200여명 이상 추산), 23일과 24일의 Washington D.C. 공연(450여명), 27일의 Atlanta공연(260여명), 28일의 Minnesota공연(200여명 이상 추산)을 거쳐 29일에 L.A. 공연(노동절 연휴 주말에도 불구하고 200여명 이상의 청중이 응집)을 끝으로 2주간의 강행군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 저명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수상경력을 쌓은 10명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유한 음악도들이 출연하여 "학생" 연주단이라는 선입견에서 나온 기대 수준을 말끔히 불식하여 "張三李四"들의 보통 수준의 음악 연주회에 익숙한 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刮目相對"의 開眼의 기회가 되었고 Philadelphia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놓치기 아쉬웠던 이번 연주 결과를 보존하고 직접 참관하지 못한 동문과 음악애호가들을 위하여 CD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전통국악과 서양음악의 13가지의 選曲으로 적절히

배합하였는데(아래의 연주 프로그램 순서 참조) 시카고 연주회를 감상한 한 동문의 연주회 묘사를 인용하면, 김휘권의 대금이 자아내는 "구곡간장을 에어내는 듯한 맑고 밝은 음색"을 실어낸 청성곡, 조환희와 박선영의 오브와와 피아노 듀오가 연주한 슈만의 "따뜻하고 포근한 樂音", 문주원과 박선영의 첼로와 피아노 듀오가 발산한 "가라앉은 가슴속의 정열", 송윤신과 박선영의 바이올린 피아노 듀오가 들려준 "昇天하다 潛水하는 듯한 心魂의 고통",

〈2면에 계속〉



이광희 회장 음대 연주단 현영사

시카고 지역 동문 및 음악애호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힘든 준비결과 이제 그 창립 12년째의 연륜을 쌓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동 주최하며, 공동 지원하는 서울대학교의 음대, 연주단 미주 순방의 첫공연을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주관으로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름 방학중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음악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오신 본 연주단(단장 김형배 교수님)과 10명의 연주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들은 국내외의 저명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수상경력을 쌓은 동문 음악도들입니다.

평소 연마한 기량으로서 이들이 보내드리는 '冠岳山의 和音'이 미국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선구자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과 미국 사회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모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방단은 김형배 교수님과 10명의 음악도들이 8개도시에서 9번의 공연을 갖는 강행군의 일정이오니 오늘 공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미총동창회는 이 연주단의 미주 순방을 연례행사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음악회의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한재은 회장님과 김인원, 이소정 동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님(공대 52년졸)과 연주회 개최를 위하여 모교와 각지역 동창회를 연결하는 힘든 작업인 9회의 연주회 계획을 성안하신 丁浩 박사(재미총동창회 출판국장, 공대 66년졸)의 수고에 대하여 재미동문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공대 53년졸)

在美서울大學校 總同窓會를 지원하시는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님

結實의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에 그간 안녕하십니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이번 가을로 그 발족이후 어언 제 12차 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母校를 한국의 最高大學에서 세계적인 先進 高等教育機關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同門들의 輿望인 母校를 高揚하는 牽引車의 一翼을 담당하며, 7천여 재미동문들을 연결하여 同門과 그 가족들의 소식을 나누고, 우리 재미 동문들이 교육과 전문분야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식견에서 우리나라의 玉稿를 모아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在美서울大同窓會報를 발행하여 지난 6월호로 그 紙齡이 100호를 기록하였음을 전체 동문 여러분과 함께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제 6대 집행부가 그 1차 년도인 작년도에 대과 없이 여러 동문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동문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뒷받치는 미주 관악후원회의 존재와 이에 참여하신 이사님들의 功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제 6대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금까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로 참여하여 주신 同門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6대 집행부 제 2차 년도를 시작하면서 후원 이사님들과 당면한 실정을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재미 총동창회는 관악후원이사님들의 정성어린 誠金과 재미 총동창회를 이끄신 先代會長님들의 헌신적인 奉仕에 힘입어, 만리타향에서 近

隣의 兄弟 姊妹로서 自然人的 희로애락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지역동창회와는 다른,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抽象的인 조직체로서 在美서울大學校總同窓會가 그간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歲歲年年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오신 우리 동문들의 老齡化란 自然의 趨勢를 감안할 때 언제까지나 少數의 독지가들의 誠金으로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를 존립 운영하는데는 그 限界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직의 老弱化의 추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 동문들을 찾아내고 다망하신 일상에 매여 지금까지 재미 총동창회의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신 基層 同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동창회보와 본인의 지역동창회 순방 기회를 통하여 많은 동문들과 대화하여, 모든 동문들이 뒷받치고 성원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의 발전을 상호 격려하고 지원하는 재미 총동창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역 동창회와는 달리 동창회비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미총동창회의 재정기반이 되는 "재미 서울대학교 구독료"의 전체 동문 납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1차년도 말인 6월 28일 현재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신 동문들이 그 전년도에 비하여 160명이 증가하여 1382명에 달하였고 금액으로는 그 총계가 \$71,098.86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160명이라는 동문들께서 보내 주신 동창회보 구독료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에 소요되는 財政상태를 현격하게 改善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 구독료 수입이 지난해 소요 예산의 51%에 도달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장기적인 재정 기반 안정화의 전망을 밝게 하였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美洲冠岳後援會 理事 여러분, 이러한 동문들의 참여의 추세를 뒷받침하여 총동창회의 기능과 소임을 제 6대 집행부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작년도 134명의 일반 동문 및 단체(시카고, 하트랜드,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 및 뉴욕 약대 동창회)가 보내주신 관악후원회의 誠金 (총계 \$78,490 이 중 \$13,500은 증신 관악후원 이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재미 동창회보가 102호까지 정기적으로 중단 없이 발행을 계속 할 수 있었음은 우리 동창회의 자랑이며 이는 오로지 미주 관악후원회의 정성어린 지원으로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근 뉴욕에 거주하시는 한 동문께서 회보구독료를 보내오시면서 회보구독료 청구서에 구독료 납입 수표를 정성스럽게 逸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내오신 편지가 오늘 본인의 가슴에 와 닿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요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니다. SNU 출신들이 다들 잘났지요. 하지만 사회에서 모두가 다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각각 다른 이유로써 잘 된 사람도 많지만 못 사는 사람(잘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後者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려고 안합니다. 學校 간판을 망신시키는 것 같은 수치감 때문이죠. 後者에 屬한 사람들 中에 \$50 을 못내고서 未安한 마음으로, 不便한 마음으로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신문을 발송배포 하심에 진심으로 칭찬과 감사합니다."

「저는 이 書翰이야말로 만리타향 객지에서 한국에 최고 지성인의 긍지를 지니며 어려운 생활 전선에서 동창회와 동창회보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동문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미주 관악 후원회의 존재의 가치를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당면한 재정상태를 감안 할 때, 여러 후원 이사님들께서 同窓會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계속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로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웃에 있는 다른 동문들에게도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의 참여를 권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재미 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의 奉仕를 마치는 때에는 후원이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誠金인 관악후원회의 이사회비를 최대한 아껴써서 회보발간 사업이외에도 재미 총동창회의 뜻있는 또 다른 사업의 기초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회보 101호에 게재된 재미 총동창회 12차년도의 연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재미 총동창회 장학기금"을 위하여 금년도 관악후원회비로부터 그 일부나마 적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결과 본인은 존경하는 우리 동문들의 상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미총동창회의 목적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기여하였다는 기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님들의 家庭과 하시는 일에 平康과 繁榮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8월 20일

在美 서울大學校 總同窓會 會長 李龍洛 드림

스티브 강 장학재단 5차 獎學生 선발

-7월 28일 제4차 장학금 전달식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예술학도였던 故 Steve Kang(제2대 재미 총동창회장 역임한 강수상 동문, 의대 53년졸, 의 자제)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발족된 장학재단인 "The Steve S.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에서는 제5회 장학생을 아래 모집요강(4면 광고참조)과 같이 선발한다. 2002-2003년도 장학생 지원서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이번 연도에도 전

년과 같이 \$30,000달러 규모로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1만불 1명, 5천불 2명, 2천불 2명, 1천불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장학금은 평소에 예술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스티브 강을 추모하고 우수한 예술인이나 순수과학, 인문과학 응용과학분야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학재단에서는 지난해에 4번째로 9명

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0,000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간 동 장학재단에 出捐하여 온 친지, 동문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하는 "Evening with Friends"의 모임을 지난 7월 28일(일요일) Oak Brook에 소재한 McDonalds Office Campus 내 The Lodge (Hyatt Hotels & Resorts)에서 가졌다(회보 100호 23면 보도 참조). 이날 150여명이 참석하여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동 장학재단의 계속적인 발전을 다짐하였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젊은 예술가와 학도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장학재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재단의 발전사항에 대하여 James Kirchner 씨는 인사말에서 "지

년해는 비극적인 사건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만 1천불이나 모금되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 재단에는 지금까지 강창만 동문(의대 64년 졸)을 비롯한 많은 동문과 교민 그리고 시카고지역 서울대 동창회에서 기금을 出捐하였다.

제 4차 장학금은 브라운대학에 재학중인 Dane Cho가 1만 달러를 수여받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ilm School 의 Olga Anna Zurawska가 \$7,000, Yale 대학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Jennie Jung이 \$5,000, University of Illinois의 Jennifer M. Kim 과 UIC 치과 대학의 Dong Hoon Chae가 각 \$2,000, 그

의 4명(Elizabeth Joy Roe-Julliard Music School, Sang Chan Kim-Northern Illinois University, Hanmee Na, University of Chicago, Juliana K. Choi-UIC)이 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재단을 대표하여 강수상 동문은 앞으로 "이 장학재단이 정의적인 일을 하는 젊은 학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장학위원을 영입해, 장학사업의 조직과 규모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스티브 강 獎學生 모집 공고



스티브 강 장학재단 (The Steve S.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 에서는 대학생 및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스티브 강은 1998년 불의의 교통 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의 필립스쿨 대학원생이었다. 이 재단은 스티브 강을 추모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금하여 평소에 예술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스티브 강을 추모하고 우수한 예술인이나 순수과학, 인문과학, 응용과학분야의 뛰어난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되었다.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올해는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그 지급액은 총 3만불이며, 수여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만불의 장학금 (1명) ◆5천불 (2명) ◆2천불 (2명) ◆천불 (6명)

<장학생 선정기준>

학업성적, 예능 또는 창작력, 재정사정 그리고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탐구력의 평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출서류 및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며, 지망자는 이력서, 성적표, 재정보고서, 추천서 2통, 2 페이지정도의 수필을 원본과 5통의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website.sskangfund.org에서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 보낼 곳>

Mrs. C. Kimberly Kang
16 Forest Gate Circle Oak Brook, IL 60523
Tel: (630) 572-9202 Fax: (630) 572-9765
E-mail: sskangfund@attbi.com

Korea 幻想曲

李泰相(문리대 59년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리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와 그 원조격인 '반지의 제왕' (역시 영화화됨)을 보면 세상이 온통 마술의 산물이다. 우리 현실처럼 근대 서양 오페라의 창시자로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리카르트 바그너가 13세기 전반에 걸친 중세 독일의 대서사시 「리벨룽겐의 노래」를 소재로 작곡사한 「리벨룽겐의 반지」가 있다. 라인강을 무대로 한 이 우화적인 서사시는 인간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의 파멸을 방지하는 이야기다.

영국의 극작가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세계를 크게 변화시킨 산업혁명 와중에서도 이 대 걸작품을 통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계급없는 평등사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연 환경 보호론자들이 소위 '녹색당원들'에게는 현대 공업화로 빚어지는 온갖 자연 공해는 「괴테 다메롱」 곧 북유럽신화의 「신들의 황혼」인 신들과 거인족간의 최종적 결전의 결과로 오는 세계의 종말을 뜻하는 것 같다.

어떻든 바그너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땅어머니 대지를 농락하거나 우롱할 수 없음을 「리벨룽겐의 고리」에서 그는 예언하듯 말한다. 짧은 세월동안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자연은 되살아나고 神처럼 군림하던 인간은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 댓가로 우리 자신의 비참한 불행과 혼란 카오스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그 암유(暗喻)로서 악한 난장이 알베르

히가 라인강에서 불가사의한 마력이 있는 황금을 훔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현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황금으로 고리 가락지를 만들어 끼는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반면 반드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고, 이 황금이 라인강 밖에 나와 오래 되면 될 수록 그만큼 더 지구는 부식 황폐해진다.

보다보다 못해 여주인공 브륄헨드는 더 이상 세상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신들과 알베르히의 노예로 땅속에서 사는 인간이하의 종족 니벨룽스를 차리리 없애버리려고 세상에 불을 질러 버린다. 그러자 라인강이 범람하여 불길을 끄고 도둑맞았던 황금을 되찾아 지구 생태계 질서를 회복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기 땅과 물과 불, 그리고 공기를 대표하는 그리이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산드라들로서 세상에서 상대해 주지 않는 흉사(凶事)의 예언자들이다. 이들은 거둬서 神들에게 경고한다. 물욕과 권세욕 때문에 생길 재앙에 대해서 '우주의 주인'인 우두머리 신 보탄의 비서실장적인 에르다는 땅어머니로서 문자 그대로 땅에서 생긴 지신(地神)인데 황금을 라인강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라인강 자체와 그 속의 황금을 지키고 끝내 되찾아내는 '라인의 처녀들'이 수신(水神)이고 보탄의 뜻을 거역 못하면서도 계속 황금을 라인강에 돌려주자고 간언하나 번번이 목살당하는 로게는 화신(火神)이다.

□공기를 대표하는 것은 세 마리의 조신(鳥神)인데 그 중 '사상'과 '기억'이란 이름의 두 마리 보탄의 갈가마귀는 세상위로 날면서 그들의 주민을 경호하고 또 한 마리 '숲새'는 보탄의 손자인 지그프리트에게 어떻게 하면 악한 수중에서 황금을 되찾아 그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준다(어찌면 단군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이 독일 전설의 영웅 지그프리트는 성실한 인품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지식을 갈망하며 불의와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

자연에 대적하는 것을 알베르히와 보탄 둘 다인데 알베르히는 사회의 불법 분자들을 상징하고 보탄은 사회의 (자칭) 지도자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재산을 불려 일으키는 자들과 이들로 부터 힘의 고리를 얻어 세도부리는 자들이다.

이 고리의 끝장면은 '신들의 황혼'으로 결국 자연은 스스로를 되찾아 권력에 굶주린 신들을 제거하고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 「고리」에서 바그너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닌 관리인임을 더할 수 없이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대자연의 「고리」가 고리 고리 '코스모스' 피어나는 '길거리' '코리아'에서부터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그 참된 재빛을 내야하지. 그렇고 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꼭 그렇게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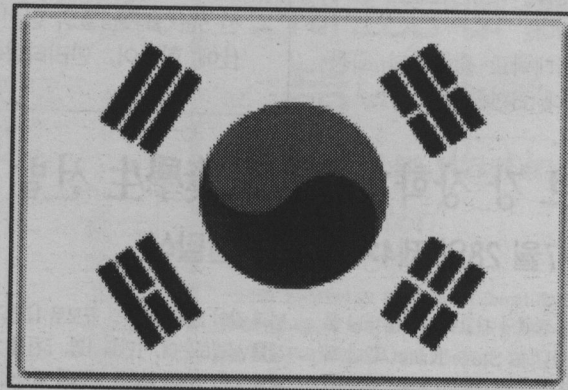
환상이라도 좋고
마술이라도 좋고
요술이라도 좋고
육감이라도 좋아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렴이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단군할아버지와 곰 할머니께 비나이다. 천지가 개벽토록.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코리아 환상곡, 이태상	4
역사의 교훈과 한반도의 주변정세, 김일평	5
한국은 선진국인가? 송세엽	5
그리운 아버님의 모습, 김향자	6
모교 음대 연주단 시카고 공연을 관람하고, 강영국	8
워싱턴 DC의 성공적인 공연을 보면서, 곽태조	8
호흡(숨쉬기), 김호범	9
Korean-American의 새로운 位相 定立에 主導的 役割을 하는 동창회, 강수상	10
총동창회와 재단이사회 통합으로 이룩한 단합된 힘, 이병준	11
재미 과학기술자협회(KSEA) 제1회 전미주 수학경시대회 개최를 읽고, 조진태	11
個性, 熱情, 理性이 균형된 人格으로 奉仕하는 서울대인, 임광수	12
나의 친구, 자랑스러운 在日 한국미술사 연구가 姜健榮 박사, 김일훈	13
World Cup과 개고기 文化, 김봉현	14
安定 民族 人種的 紐帶, Frank Byong Yoon,	15
단백질 p43의 항암효과 발견, 김성훈(서울동창회보 6월호서 전제)	18

<지면>



祖國 光復의 달에 떨어져가는 新進 技銳들!

이번 호 文筆과 論考지는 광복절을 맞아 祖國의 獨立과 建國에 盡力하신 愛國 先烈들의 犧牲에 삼가 敬拜드리며, 이번 母校 음대 연주단이 美洲 대륙에 전파한 冠岳의 和音을 反響하고 있습니다.

歷史의 敎訓과 韓半島의 周邊情勢

새로운 가치관과 지성으로 전 세계의 韓民族 共同體 구성을 위하여

김 일 평 (문리대 1950년 입학, 코네티컷 대학 명예교수)

歷史의 敎훈을 망각하는 民族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韓民族은 매우 우수하고 훌륭한 단일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역사의 敎훈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현대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조선조 말기에 파벌싸움과 당쟁으로 무물안의 개구리 사고방식 때문에 개화를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日本은 明治維新(1868) 이후 近代化를 통해서 부강한 강대 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조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조정의 당파싸움과 신분제도로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일본은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근대화를 이루었다.

근대화는 서양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훌륭한 정신과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노하우를 받아들여 일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근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매우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은 모두 배척하였으며 고루한 유교사상에 집착하여 극단주의로 변화하고 개화를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朝鮮王朝 500백년을 통하여 형성된 한국인의 성격과 가치관은 유교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조선조의 儒敎 崇拜와 중국에 대한 一邊倒 外交 때문에 서방의 근대역사를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儒敎를 받아들여서 佛敎와 접목시키고 일본식 神道주의를 창조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가치관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강력한 현대국가를 세울 수 있었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近代化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본은 淸나라에 도전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韓半島에서 제거한 후 조선조의 몰락을 초래하였으며 식민지화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근대화는 淸나라의 동아시아 패권을 제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식민지 통치를 가능케 만들어 놓은 것이다. 淸日 戰爭(1894-95)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끝내고 일본은 한일합방에 성공하였으며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하여 35년 동안 통치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각축지대로 변했다. 한반도는 38도선에서 분단되어 남북



한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여 북한정권을 세웠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분단상태는 반세기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일전쟁은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화하였던 것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를 분단시켜 놓았고 한반도의 6.25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소산물이었으며 휴전협정으로 끝난지도 벌써 반세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전개된 역사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 동안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우리 韓民族은 지난 일세기의 역사교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국제화의 시대이며 世界化의 시대이다. 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의 국제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같이 국가의 통합으로 하나의 블록(block)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반도가

통합되어 동아시아 공동시장이 생기고 유럽연합과 같은 "동아시아 연합"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의 민족국가는 블록화 되고 있으며 경제체제는 세계화되어 하나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분단된 조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을 이루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조선조시대와 같이 중국의 영향권에 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 중에는 지도자급에 있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다. 그 반면에 國粹主義者도 있다. 國粹主義者는 조선조의 집현전 선비와 같이 나라걱정을 많이 하고 왕조에도 바른말을 하는 선비도 많이 있었다. 그런 반면에 고집도 강하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지 아니 하였다. 자기 생각과 고집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와 남을 비교할 여유가 없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주장하면서 파벌싸움 때문에 뭉칠 수 없었다. 현대에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統一보다는 分裂을 조장하는 지도자도 있다. 유교사상이 강한 중국도 근대화를 통해 변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할 때 한반도의 미래상은 또 다시 변화되는 것이다.

□ 뭉치면 살고 분열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에서 생긴 말이다. 파벌싸움 때문에 독립운동이 분열되었고 이데올로기 분쟁 때문에 통일운동이 지연되었다. 유교전통 때문에 생긴 이데올로기와 과거 집착의 개념을 버리고 실용주의로 돌아가서 타협할 수 있는 아량과 사고를 배우는 것이 곧 우리역사의 敎훈이 될 것이다. 정치는 곧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세계의 6대주 5대양에 분산되어 살고있는 500만의 해외한민족은 조국의 통일과 현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해외한민족은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여 해외한민족 共同體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휴전선과 38선을 초월하여 7천5백만 동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배우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敎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과 분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海外同胞은 東洋과 西洋의 가치관을 融合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知識을 기반으로 하는 韓民族 共同體를 구성하고 새로운 價値觀을 세우는 것이 21세기의 국제사회에 대처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國費留學生의 報恩의 論壇>

韓國은 先進國인가?

宋世燁(의과대학 58년 졸, Ph.D)

필자는 과거 5년 간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내 많은 한국 지도급 인사들(미국 영주자, 방문자, 기업인, 공무원 등)에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 왔다. 그러나 그 중 '선진국'이라고 분명하고 자신 있는 답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37년 간 미국 거주 경험을 통한 나의 답은 불행히도 분명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한국은 국제 경제 용어로 훌륭한 NIE(Newly Industrialized Economy or Nation) 즉, 신흥산업국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선진국은 아니다. NIE는 선진국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최초의 출판 인쇄 기술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 그리고 인구에 비해 문화, 과학계

의 훌륭한 우수인재들을 배출한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쟁시대 21세기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왜 가장 생산적이고 국가중추라 할 수 있는 4-50대 남성인구는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 5분의 3 이상은 외국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한국은 우수한 국민이 피압으로 건설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NIE에 걸맞는 훌륭한 정치와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미개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일까? 지구촌 모든 나라는 자국의 생산품을 경쟁적으로 미국에 수출한다. 미국 특허국의 2001년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 제 1위로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 2위 독일은 일본의 약 3분의 1, 3위 대만은 5분의 1을 취득했으며 한국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7위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미국 IBM이 세계 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 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의 마쯔시다 전기 제 6위, 소니 제 7위, 히다찌 제 8위, 미쯔비시 제 9위, 후지쯔 제 10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 경쟁은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열악한 정치풍토 속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한국의 기업들이 탁월한 국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경영인들과 종업원 전체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영토와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한민족의 아주 우수함을 단적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한 객관적, 과학적, 통계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훌륭한 NIE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민들이 그

에 상응하는 훌륭한 민주 복지 국가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외국 이주를 희망하고 있을까? 지난 5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부인이 전립선 비대증 증후로 주치의가 추천한 맨해튼 소재의 한 병원에 진료 차 왔다는 소식이다. 그의 장남은 맨해튼에서 변호사로 살고 있으며, 약 10년 전에는 그의 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액의 미화를 불법 밀반입 하다 사정당국의 범망에 적발됐었다. 이와 같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도 자녀들을 모두 미국에 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64%의 인구가 기회만 있다면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시 중증 척농증을 연세대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완치되지 않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완쾌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뇨기과 분야에서 가장 흔한 병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항상 공무에 바쁜 UN 대사, 총영사 등과 10여명의 고위 공

관원들이 공황영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한국 대사쯤 되면 나같은 사람이 약 20분간 방문면담을 요청해도 우선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실정이다. 금년 11월에 있을 대권경쟁 유세가 실제로 이미 시작된 것 같다.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54년이 되었다. 그간 반국민적, 반국가적 오명을 남기고 퇴진한 역대 대통령 등 정치가들의 공통분모는 예외 없이 재물의 탐욕으로 인한 권력형 부정부패였다. 또, 국가수반이 외국 수반에게 국가와 국익을 대표하는데 정정당당한 대처를 할 능력 부재를 들 수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한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새 대통령은 인(仁), 지(智), 덕(德)은 물론, 선진성 두뇌와 풍부한 국제 경험을 겸비한, 영어구사력 등 외교능력이 뛰어난 21세기형 인물이 요구되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처해 있다.

그리운 아버님의 모습

金香子 (약대 61년 입)

<1>

한 세기前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다른 길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 후부터 나라의 역사는 威臣勢力간의 싸움과 外勢의 壓力으로 표류하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해방조국은 南北으로 분단되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을 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專制者의 부정부패에, 民衆의 분노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못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폭발하기도 했다. 독재자의 장기집권의 名分앞에 지식인들의 깊은 고뇌와 절망으로 우리 역사는 접절되어 있다.

1894년 탐관오리의 횡포에 農民이 봉기를 한 東學革命은 淸日戰爭을 불러오고 황해도와 평안도는 폐허가 되었다. 甲午革新으로 노비제도가 철폐되고 단발령이 내리고 開化의 바람이 분다. 1910년 8월 29일 庚戌國恥의 한일합방으로 日本은 朝鮮을 송두리째 먹으려 했다.

나의 부친 김여제(金興濟)는 연안(延安) 김씨로 1895년 음력 5월 29일 평안북도 정주군 안흥면 안의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편집자주: 국가보훈처가 편 대한민국 독립유공 인물록, 1949-1997년 포상자, 61면에는 생년월일이 190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號는 유암(流岩)이고 덕요와 덕희의 두 여동생을 두었다. 선대 가문에서 조선시대에 왕비가 나왔는데 왕손은 없었다하여 부친은 딸자식을 가끔 중전마마라 불러 주었다. 할아버지께서는 큰 漢文學者이었다고 하며 서당 훈장을 지냈다. 할아버지의 장사(葬事)를 치를 때에 부친께서 부의(賻儀)를 받지 않아 門中 어른들의 비난이 있었다한다.

1907년 남강(南綱) 이승훈이 평양 모란봉에서 도산(島山) 안창호의 구국을 위한 교육진흥을 촉구하는 연설에 감동을 받고 고향인 정주에 五山學校를 세웠는데 부친은 오산학교에 입학해서 춘원(春園) 이광수를 스승으로 만났다. 춘원은 오산의 健兒들에게 독일 철학자 피히테(Fichte 1762-1814)의 민족교육의 이념을 심었고 1910년 톨스토이가 서거했을 때는 학생들과 그의 영면식을 가졌다.

그때에 부친은 民族主義와 人道主義 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1911년 그는 오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경성상업에 진학했다가 남강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가서 1918년 6월에 와세다대학 영문학

과를 졸업했다.

1919년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당을 결성하고 '유혈만이 있다' 하고 2.8 독립선언을 했다. 2.8독립선언서는 춘원이 기초해서 송계백이 모자 속에 숨겨 국내로 들어와 현상윤이 기독교측의 남강에게 알려 천도교와 불교도 합세하여 온 민족이 꺾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들 일본 유학생운동은 3.1독립운동의 전위적인 역할을 하게되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33인의 민족 대표자 순서에 대해, 南綱은 "하. 하. 하—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아무를 먼저 쓰면 어때, 의암(손병희)의 이름을 먼저 써" 하는 말을 남긴다.

1919년 3월 중순 부친은 춘원과 압록강을 건너 上海로 망명한다. 머릿속에 만경창과를 읊으며...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과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상해로 모여든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4월에 臨時政府를 수립하고 미국에서 안창호가 도착해서 국무총리 대리직을 수락했다. 7월에 임시정부사료편찬부가 설립되어 총재 안창호, 주임(主任) 이광수, 간사(幹事)에 김흥서로 했다. 부친은 사료편찬위원으로 선임되고 김병조, 이원익, 조동호, 이한근, 박현환, 장봉, 차관상 諸氏와 2개월 만인 9월에 한 일관계사료집 전 4권을 편찬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했다.

이 해 9월에는 섭외부 선전부장으로서 피선되어 임정의 국내외 홍보, 외교, 선전사무와 독립군자금 조달 등으로 1921년 10월까지 활동하고 1920년 2월말부터는 국무총리 이동휘와 이동녕의 수석비서로 재직했다.

상해관 '독립신문' 편집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친은 무기명이거나 김흥(金興)이라는 이름을 썼으며 1920년 3월 동 신문에 「3月1日」과 「오오! 自由」란 詩를 게재하여 독립과 자유를 절규했다. 같은 때 '상해영문대륙보' 기자인 다니엘 페이퍼가 쓴 책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을 번역 출간했다.

동년 5월 안창호의 주선으로 그는 흥사단에 입단하여 발기위원이 되어 人才들을 모으고 심신단련과 인격수양을 했다. 비밀히 하는 활동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1993년 정부에서는 故人에게 臨政에서의 독립활동으로 建國勳章 愛族章을 追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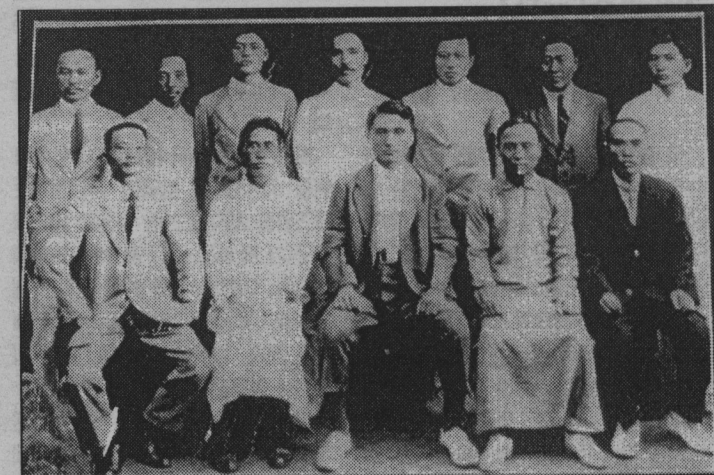
流岩 金興濟(1895년 음력 5월 29일-1968년 10월 31일)

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펴낸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人物錄 1949-1997年 褒賞者 61面 참조].

당시의 임정의 실태에 대하여, 한승인의 저서 '민족의 빛 도산 안창호'에는 국무원 비서장 김여제(金興濟)의 목격자 회고담이 아래와 같이 실려져 있다:

"이 독립자금(미주 교포들이 보낸 2만 5천불)으로 프랑스계 마장로 보강리에 집을 세내서 臨時政廳을 설치하였다. 아직 거두들이 다 모이지 아니한 관계로 각부 차장들로 하여금 총장직무를 대행케 하고 각부직원을 임명하여 사무를 규율 있게 집행토록 하였다. 그 무렵 백범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이체를 띄웠다. 임시정부에서 고용한 인도인 파수병의 미련한 듯한 미소가 要人들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일과는 시작된다. 아침 8시반에 등청하면 요인들이 모두 강당에 모여 조회를 하였다.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 몸과 손을 내어 흔들고 신이 나면 누가 더 부르라고 하지 않는데도 몇 번을 거듭 불렀다..."

이 때의 愛國歌 가사 중에 있던 '임군을 섬기며'라는 귀절을 '충성을 다하여'라고 島山이 고친 것



상해임시정부 사료조사 편찬위원들 기념촬영 <1919년 7월 17일에 設置된 臨時政府 史料調査編纂部는 9월 23일까지 2個月만에 <韓·日 關係 史料集> 全 4卷을 편찬하여 國際聯盟에 제출하였다. 總裁 安昌浩, 主任 李光洙, 幹事 金弘弼, 委員에 金秉祚, 李元益, 趙東祐, 李漢根, 朴賢煥, 金興濟, 張鵬, 車均詳 諸氏이다. 流岩 金興濟는 위의 사진속에 뒤줄 右로부터 세번째이고 그 왼쪽 옆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서있다. 자료출처 여성 라디오서울 도산 Hall>

[편집자주] 조국 光復의 道를 맞아 오는 11월 1일에 대전의 국립 歷史博物館 愛國先烈 墓域에 安寢하게 된 流岩 金興濟(1895년 음력 5월 29일-1968년 10월 31일) 先生을 소개한다. 유암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臨時史料調査編纂部가 편 전4권의 「韓日 關係史料」의 11인 편찬위원중의 한 분이었고 임시 정부 섭외부 선전위원, 上海版 독립신문의 편집위원과 興士團의 단원으로 독립군의 자금지원 등의 공적으로 1993년에 정부로부터 建國勳章 愛族章을 追敘 받은 바 있다. 구한말 조선의 붕괴, 일본의 식민통치, 光復조국, 동족상잔의 전쟁과 신생 대한민국에 고난의 성장기를 살다가 獨立運動家이며 新進 敎育과 近代 文藝운동의 先驅者의 삶을 살다가 先烈의 한 분인 流岩 선생의 생애를 同門 遺族의 어릴 때부터의 부친에 대한 회상기로부터 기록한다. 고난으로 점철된 조국의 근대사를 되새겨 많은 애국 선열과 그 후손들의 이룬 경험중의 하나로부터, 밝고 힘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도 이 때의 일이라고 한다.

1922년 부친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남가주 UCLA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1926년에는 시카고 Northwestern 대학에서 "A STUDY OF THE HIGHER EDUCATION OF WOMEN IN THE UNITED STATES" (by Frank Yerjeh Kim, Filled with the Dean; Date Feb 1, 1926)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다. 그의 論旨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하고 가정에서 현모양처나 내조자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으로서도 몫을 해야한다는 이념이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귀한 자식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하여 그는 칠거지악(七去之惡)과 남존여비(男尊女卑)가 사회의 통념이던 韓末 대원군 시대에 여성인권 옹호자가 되었다. 이 때의 渡美留學의 길은 아마도 도산의 務實力行의 교육사상으로 교육심리학, 행정학을 공부해서 국민을 가르치고 일깨워 집진적으로 독립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2002년 1월 나는 名門 私學인

Northwestern University 를 방문해서 미시간 호수가 내다보이는 캠퍼스와 건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면서 그 시절 父親께서는 무슨 수로 學費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우강(友江) 송종의 선생의 아들 위리(偉理)는 자신의 선친 우강이 그 학비를 부담해 주었다고 증언해 주었다(한국근대사의 산 증인이었던 위리는 77세로 생애를 마치고 금년 4월 라성의 Angeles-Rosedale 에 묻혔다).

島山의 장녀 안수산(安繡山)여사는 "I [Susan] was a rough tom-boy. Hung Sa Dahn Officers told me to be like a lady. But Kim, Yerjeh (김여제) was humane and broad-minded, so I liked him very much. I will always remember him as a young man whom I played with as my best friend." 라고 부친을 회고한다. 수산은 자라서 미국최초의 여성 'gunnery officer' 가 되었다. 아름다운 추억은 마음의 보고(寶庫)라고 생각된다.

1929년 부친은 春園의 주례로 서울에서 윤자해와 결혼했다.

1930년 그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5월에 남강이 협심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931년 서둘러 귀국한 그는 五山學校 14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때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당시 오산에서도 식민지교육 반대와 만세운동을 하고 동맹휴학이 있던 때이다. 취임 첫날에 학생들의 도열속에 騎馬로 교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9월에 일본이 조작한 '민주사변'으로 학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앞날을 기약하며 운동으로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주력한다. 1932년에는 휘문고전에서 오산 축구부가 승리했다. 교육의 정신은 진실(眞實)이다. 그는 우리

<7면에 계속>

<6면에서 계속>

학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다. 고등학생들간에 세비로를 입거나 장발족이 유행했다. 오산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부심과 낭만의 표시로 보아주고 관대한 태도로 대했다. 그 당시 학생이었고 별명이 '여제(興濟)선생'이었다는 김재울 남강재단 이사장님을 뵈니 비슷한 모습이 부친을 본듯하다.

1933년 부친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겸임하게 되고 서울과 정주를 통근했다.

그는 詩人 同友會를 만들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다. 그러나 1943년 장거리 도보경기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그는 참가선수 중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첫째로 決勝線에 들어왔다. 이 때 동아일보가 그 기사를 크게 실어 살아있는 민족의 힘을 과시했다.

제 이차 세계대전 말 일본 야마시타 대 사령관은 남양군도침략에 통역관으로 쓰기 위해 부친을 끌고 갔다. 이후 히로시마 原爆으로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다 [이 때 위에서 인용한 책의 저자인 한승인님이 商人으로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은 즉시 같이 갈라져서 생사의 소식이 없다가 해방 후에 만났다고 작고한 송위리 선생은 증언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다. 전쟁중에 戰死한 줄로 알았던 부친이 어느 날 어둑어둑해진 저녁 대문으로 들어섰다. 종전 후 몇 달이 지나서였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그를 보고 어머니는 "누구 신지...?" 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II>

1946년 부친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시찰단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돌로 쪼개어진 한반도는 이념의 대립, 반탁운동, 요인암살 등으로 혼란했다. 1947년 서재필 박사가 딸을 대동하고 귀국해서 백인제병원에서 환영파티가 있었다. 그때 부친은 딸을 길러 徐박사처럼 세계를 두루 데리고 다닐 생각을 했다. 그가 겨울 사냥을 해서 꿩과 노루를 얻러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어머니는 요리를 만들고 그는 좋아하는 치즈로 요기를 했다.

1948년 그는 다시 태평양을 건넌다. 박사학위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외로운 정치적 망명길이었는지? 부친과 지프차를 타고 총독부 앞에 도착했다. 뽕이 하나 달린 영물(靈物)이라는 돌 해태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는 종이를 벗겨 카라멜을 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달콤한 맛에 취해 '굿 바이 파파' 하는 네 살배기를 공중높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부친은 미국에 도착해서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을 했고

1947에서 1953년까지 미국무성소속 "미국의 소리" 편집과 번역관으로 근무했다.

어머님은 경성여고 (전 경기여고)와 경성여자사범을 나오셨는데, 다섯 명의 자녀들과 한국에 남게되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일했다. 부친에게서는 거의 매달 두 번씩 편지가 왔다. 동생과 나는 아버지의 사진에 절을 하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빌었다. 때때로 덕요 고모가 소고기를 사 갖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고기와 당면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다. 고모는 영락교회 권사였고 윤기나는 까만 머리와 흰 치마 저고리에 어디가나 커다란 성격 책을 갖고 다녔다. 나를 불러 앉히고 먼 곳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기도 했다.

1950년 '리' 라는 사람이 라성에 왔고 부친을 만나 "김군, 나와서 나를 도와주게나" 했다. 그때 부친이 귀국을 안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곧 6.25가 터졌다. 어머니는 동생을 업고 내 손을 잡고 허둥지둥 걸어서 백병원을 향해 가다가 한강다리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동네 빨갱이들이 미국 놈의 앞잡이 집이라고 어머니를 붙잡으려 다녔다. 어머니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겪으며 숨어 있다가 아현동 덕휘고모 집으로 피신을 했다. 기차길 굴다리를 파괴하는 폭격의 굉음(轟音)이 점점 더 요란해졌다.

1.4 후퇴 때 우리는 미국무성의 주선으로 화물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의 초가집들은 전쟁과 무관하게 평화롭게 시야에 들어왔다. 밤중에 기차가 굴속을 지날 때 꼭대기에서 자던 사람들이 '툭 툭'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가다가 '미국의 소리' 에서 피난민에게 방송하는 부친의 음성을 들었다. 그의 목이 메어 있었다. "上海에서 흘린 피는 어디 가고 나라가 이지경이 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인지... "유엔군이 힘껏 싸우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여 무사한 피난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엔군참전을 적극 종용하는데 꼬이겠다는 부친의 활동사항을 나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알게되었다.

기차는 열흘만에 부산에 도착했다. 오빠 둘은 목관에 껌과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신문을 파는 생활 전선에 나섰다. 나에게 무거운 신문물(靈物)을 주면서 뛰어다니면서 팔라고 했다. 나는 여기저기 어미떨어진 망아지 처럼 영문도 모른채 초행길을 다녔다. "죄뜨만 놈이 왜 나와 다녀? 못 쓸 놈의 세상! 쫓쫓쫓" 신문을 사던 사람이 혀를

쳤다. 온 종일 신문 2매를 팔았다. 길을 잃어 버려 한참 헤매다가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기진맥진하고 배도 고팠다. 하마터면 고아가 될 뻔했다.

피난 가기 전 형제들은 집에서 가끔 연극놀이를 했다. 하루는 핑과리를 치고 '영글 톰스 캐빈 (검둥이의 설음)'으로 막을 올렸다. 나는 언니가 해주는 대로 종이 풀로 입술을 두툼하게 하고 꽃 나막신도 신었다. 그 날밤 그때처럼 흥분해서 밤새도록 가슴이 두근대었다. 하루로 끝난 신문팔이는 나에게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어느 날 키 큰 흑인병사 한사람이 골목으로 터 있는 부엌 앞을 지나다가 밥을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멈추어서 손짓 발짓 지껄여댔다. 어머니가 부엌 땅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니까 병사는 검을 찌찌 찌다가 머쓱해서 떠났다. 전쟁 때 여성들이 겪는 수난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무섭다고 이사를 했다. 집 옆에는 동회가 있었다. 어머니는 代書 일을 보면서 명필로 많은 문맹인을 대필해주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어 서울로 왔다. 부친의 소중품과 사진첩을 장독에 묻고 피난을 갔었는데 속이 텅 비고 뚜껑이 깨져서 해와와 해탈이로 웃고 있었다. 부친이 시작했던 가족초청 미국행 수속은 어머니가 반대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해 가을에 부친이 귀국했다. 나를 낳고 심었다는 ju-jube, 대추나무가 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어 그를 반겼다. 외풍이 센 敵産 家屋 온돌방에서 불편한 한국생활이 시작되었다. 부친은 느닷없이 어린 나에게 남강 선생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다. 부녀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보였다. 그에게서 春團이 작사한 우렁찬 五小校歌가 울려 나왔다: "네 눈이 밝구나 엑스빛 같다. 하늘을 꿰뚫고 땅을 들추어 온 가지진리를 캐고 말려다. 네가 참 다섯매의 아이로구나."

<III>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담임선생님 집에서 과외공부를 했다. 부친은 하루도 빠짐없이 돈암동 전차종점에 나와 나를 기다려 주었다. 나의 女中합격은 부친의 덕이다.

그는 영문법 책을 써서 출판했다. "I like my daughter. Do you like me, too?" 라는 영어구절을 처음으로 배웠다. 부친과 함께 "King and I" 와 "South Pacific" 이란 영화도 구경했고 포크와 나이프로 양식도 먹었다.

그는 "Gone with the Wind" 의 'Scarlet' 이나 서부영화의 'Katharine Hepburn' 처럼 개척자 이미지의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 나라 최초의 천연색 영화 최은희의 '심춘향' 은 어머니도 함께 보러 갔다. 부친은 열 걸음 앞서 가다가 뒤따라오는 어머니를 기다렸다. 한국영화를 보러가는 그가 신기해 보였다. 동네에서는 부친을 '하이칼라 선생님'이거나 '미국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부친을 따라 '산으로 물로' 興土團員들과 등산도 하고 바다에도 갔다. 부친은 대전해수욕장에서 수영도 가르쳐 주고 발레도 배우게 해주었다.

그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美八軍 방송을 틀어놓고 독일어 공부와 노쇠해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불편해 하면서도 원고도 썼다. 나는 1950년대 미국 팝송과 친하게 되고 음악에 맞추어 윌라후프도 들렀다. 1955년에 'Al Hibbler' 가 부른 'Unchained Melody' 는 1990년에 영화 'Ghost'로 다시 히트곡이 되었다. 부친이 보내준 레코드 중에서 Saint-Saens 작곡 '氷上の白鳥' 가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로 흘러나오면 나는 마지막 나래를 펴며 숨지는 백조의 모습을 발레로 추었다.

1959년부터 1968년까지 부친은 인하공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1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 길은 지위와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 교육자의 한길이며 島山과 남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萬頃蒼波에 一葉片舟 같이 떠가는 길이기도 했다.

어느새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 하나씩 뽕이 드려던 부친의 흰머리가락이 부쩍 많아 보였다. 美國으로 유학 길을 떠나는 나에게 "자유의 천지로 훨훨 날아가거라.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겠지. 그러나 너를 믿는다." 그리고 부친은 생각난 듯이 "가거든 도산의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라" 라고 덧붙였다.

1968년 부친은 패테연구소 초청 교수로 독일에 갔다. 10월 25일 아빠의 편지에는, "...딸아. 곧 너를 보러 갈까한다. 불란서와 캐나다에서 온 학생 둘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단비를 맞은 꽃들이 참으로 찬란하게 피었구나. 여기를 불러 천국이라 할까!" 라는 귀절이 지금도 나의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는 10월 31일 아침 강의실로 가다가 복도 길에서 쓰러졌다. 流岩 金興濟 돌아가다! 돌과 돌사이를, 줄, 줄 조르듯 흐르는 작은 샘은 고어, 永遠에 이르도다. 부친의 죽음이 자주 이 女慰의 잘못으로 느껴진다. 2002년 11월 1일 그는 지금까지 쉬고 계시던 영락동산으로부터 國立 顯忠園의 愛國 先烈 墓域에 安葬될 것이다. 거기서 조국의 행진을 예고하는 저 나팔소리를 들으리라.

이 글을 맺으며 韓國現代時文學 大系 1(서울, 지식산업사)의 187-189면에 실린 金興濟 篇의 詩 "山女" 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출처 문예지 학지광 1915년 5월호)

山 女

뛰는 心脈의 鼓動은 더, 더 強度 強度를 높이며,
다막힌 呼吸은 거오, 거오 새 循環을 낚는다.
그러하여 우리 山女의 들은 팔은 속결없이 애워싼 뜬 기운에 波動을 주어 늘이도다.

들 사이에서 들 사이를,
적은 샘은 고어,
줄, 줄 줄으려, 줄으려 간은 열너디를 棄하면서 永遠에
출도다.

—그러하여 大海에 낚도다.
가을 古력은 黃昏에 나죽히 낚도다.
멀니, 멀니 모르는 곳으로—아니, 아니 南견하늘로,
남아—地平線저, 가에 희미한 그림(影)을 떨도다.
늪은, 늪은 無窮에 출은 달은,
맺번을 그 얼굴을 變하도다.

—우리 山女는,
緊張, 弛緩, 興奮, 沈靜의 더, 더 複雑한 情緒에 차도다.
느즈세의 음음, 반뜰이는 별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 山女의 가슴을,
저, 저 먼 나라로, 想像의 보는 世界로,
넙은 드물로, 물결의 자는, 잔잔한 바다로,
아니, 아니 <Unknown world>로,
얼마나, 얼마나 우리 山女의 가슴을 叩을었으랴!

우리 山女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문날 잠기는 해는,
또 다시 그 검은 깃(羽)을 떨렸도다.
그러나 우리 山女는 다만 가만히(無言)서도다.
—火氣에전, 가슴은 寒冽那 寒冽那에 漸漸더 그 키를
높히도다.
저기, 저 무서운 曠靄속에서는, 감적이 감적이 었던
던 모르는 힘이나와,
한길에, 한길에 우리 山女를 삼키어 갈 듯하도다—우
리 적은 小女를.
—倏忽한 나 같이는 소리가 어디선지 희미하게 들
니도다!

어느때, 모진 光風이 넘어와,
압축, 늪은 소나무를 두어대 꺾다.
맺번에가 弱한 피리를 불어올다,
節차자 아름다운 꽃도 피어—향기도 내이다.
그러나 亦是 山 가운되었다.

있다가 돌되끼(野豕)가 튀어, 우리 山女의 뒤편 가슴에
새 反響을 내일 뿐이었다.
—남은 如前히 안이오다!

모교 음대 연주단 시카고 공연을 관람하고

姜永國(수의대 67년입)

動物醫學을 전공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음악회 감상문을 부탁받으니, 멍멍머멍/야옹야옹야옹야옹/찌찌찌찌찌찌... 이런 소리만이 귀에 쫓겨나. 낭만적이던 젊은 시절에 음악감상이다 뭐다하며 제법 음악 분야의 常識 정도는 갖추고 있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록 삶의 현장에서 매일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감히 음악회 감상문을 쓰겠는가?

8월 16일, 금요일 저녁, 팔자가 사나워 공연이 시작되는 30분전까지도 업무가 쌓여 있으니, 별 궁리끝에 가까스로 腹部에 물이 가득 차인 末期肝癌患者를 安樂死로 마감하여 한 시간쯤 일찍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보슬비가 내리는 금요일 퇴근 길을 더구나 시내 한복판을 거쳐서 가야하는 韓人村으로 가는 교통은 만만치 않았다. 시내까지 기어 오르며 가다가 거기서부터 北으로 내이는 急行車線을 만나자 얼씨구나 좋다! 여기서 비행기 속도로 시간을 좀 벌여 보자고 들어서자마자 엑스레이터를 짝 짝 앞차를 추월하려는 순간 아 빨사! 바로 그놈의 앞차가 私服 경찰차일 줄이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진정시키고 어쩔 수 없이 목맨 송아지 신세가 되어 급행차선이 끝날 때까지 기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東으로 빠져야 할 Foster 길은 또 西쪽으로만 나갈 수 있어 돌고 돌아 東으로 향해서 주차를 하고 공연장에 들어서니 결국 30분 지각생이 되고 말았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앉은 300여명의 청중들을 보니 모두가 나보다 편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 같아 심사가 절로 났다.

부슬비가 오는 저녁이라 김휘곤 학생의 대금 연주 <정성곡>은 부슬비의 정성으로 때웠다 치고 느끼고 암전하다가 빠르고 격렬하게 연주되는 조환희 학생의 <수만>의 오보에 曲 일랑 급행차선에서 느릿보 경찰차를 따라가며 늘어진 박자에서 Foster 길로 빠진 후 공연장에 들어설 때까지 숨이 차도록 서둘렀던 시간의 실습으로 또 때우고, 주위의 눈총을 의식하며 죄인처럼 겨우 자고 있었다. 곡에 맞춰 한관 울어나 버릴까보다 하고 좌우로 둘러보니 그 짓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어서 송윤신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된다. 불란서 글이라 나는 제목도 읽을 수 없지만, <생상>의 피아노 곡이 이자이(Ysaye) 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위해 편곡한 작품이란. 연주자의 실력만 믿고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으니 슬픈 곡인 듯 하면서도 왈츠풍이 들어있어 이전 슬며시 일어나 긴 舞蹈服 늘어뜨린

파트너와 춤이라도 한판 추고픈 아름다운 선율이다. 격동이 가라앉아 조용히 음악의 분위기에 빨려든다. 아직도 수련중인 학생들의 발표회 정도라니 했던 처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는 판에 노련한 김윤경 학생의 피아노 연주는 나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았다. 다행히 실내가 어두워 아무도 붉어진 나의 얼굴을 훑지진 못했지만... 노련한 손놀림으로 고음과 저음을 멋진 화음으로 엮으며 물방울이 똑똑똑 돌아다 두룩두룩 비가 쏟아지는 듯한 가운 여름날의 단비를 두 손 벌려 맞이하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힐 듯한 곡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19세기 수도사였던 리스트(Franz Liszt)가 요한복음의 일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 4:14)

무대에는 두개의 방석만 동그라니 놓여지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떤 개구쟁이 두 애들이 나타나 팔자를 한판 하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북(장구?)을 들고, 열두줄 가야금을 안은 앉은 듯 늙은 두 청년이 나타난다. 김형섭 학생의 <최옥산류 가야금 산조> 弄絃에 김휘곤 학생의 북장단이다. 가야금 열두줄로 뿜겨내는 곡이사 황진이를 위시한 특수 여성들의 專有物인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굽직한 남자의 손가락으로 짓눌러 내는 소리는 금방이라도 줄이 툭 끊어질 듯한 불안감을 주었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무뎠뎠하게 흘러나오는 곡은 점점 情感을 더하여 마치 하얀 손수건을 양손에 펼쳐두고 춤이라도 너울너울 추고 싶은 욕구를 일으켰다. 내가 떠나 살아온 사반세기 동안 민속 전통 음악의 경향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감회에 젖어본다.

소프라노 손지혜 양의 <동심초>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고, 어디선가도 자주 들어 가슴에 와 닿는 베르디의 오페라 La Traviata의 'Ah! fors'è Lui'에 이어 테너 정호윤 군의 부드러운 제스처에 맞춘 대표적 우리가곡 <가고파>가 울려 퍼지며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적신다. 어릴 적의 그 고향이 지금이야 어딘들 있으려만, 그 노래 속에 잠기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 고향 마을과 고향 친구들 속으로 빨려들어 괜히 눈시울이 찡해지며 엔돌핀이 주욱하고 한방울 방출한다. 그래서 정겨운 옛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한층 젊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어 푸치니의 오페라가 열창된 뒤



필자와 춘향 이자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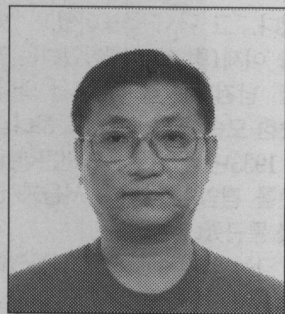
에 잠시 막이 단했다 멋진 연회복을 입은 한두 젊은 남녀 손지혜와 정호윤이 오페라 'La Traviata'에 나오는 <祝杯의 노래>로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나도 모르게 앉은 의자를 들썩거리다 옆에 앉은 아내가 팔꿈치로 쿡 한방을 지어 박는다. 이어 멘델스존의 그 유명한 피아노 3중주곡이 생기있게 (바이올린-송윤신, 첼로-문주원, 피아노-박선영) 청중을 매혹한 뒤에 서양음악은 조용히 가라앉고 傳統國樂, 해학적인 春香傳이 관중을 울고 웃긴다.

한국 판소리의 대표인 '춘향가' 중 에서 <어사또와 춘향의 相逢대목>을 이자람 학생의 판소리가 김형섭의 북반주로 이어진다. 옛적 춘향의 素服차림을 한 이자람은 그 가녀린 몸짓으로 苦境에 몰린 춘향의 生死를 건 李 도령을 향한 一片丹心歌가 손에 든 부채를 잡자기 활짝 피며 호령하는 남원의 어사또로 변신하는 굵은 목소리의 一人劇에 모든 관중이 쥐죽은 듯 넋을 잃었다. 東朝制에서 춘향가 8시간을 完唱 발표를 가질 때에 춘향가 책 한권을 몽땅 외워버렸다는 이자람 학생에게 시간이 있으면 춘향가의 대단원인 '御使出道'편의 스킬을 맛보고 귀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속에서 "金宗美酒는 天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燭淚落時民淚落이요 歌聲高處怨聲高라" 라는 일침의 詩로 시작하여 昨今을 막론하고 모리배들의 원성이 시달리는 힘없는 서민대중들의 시원한 한풀이가 시작되며 事必歸正이라는 우리 선인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대단원이기 때문이다. 이자람 학생은 훗날에 人間 文化財가 되리라 생각해본다.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감상한 후, 학생들의 발표회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내 어리석음을 가리키기도 할 겸 출연진 전원이 마지막 인사차 무대에 등단했을 때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또 쳤다. 마지막으로 나는 번사또도 못이룬 꿈, 춘향이와 둘이서 사진을 찍었다. 머영머어어머영/ 야옹야옹야옹야옹. (2002년 8월 16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청 母校 음악대학 미국순회 연주회를 관람한 후에 씀)

워싱턴 DC의 성공적인 공연을 보면서

곽태조(워싱턴 음대 동창회장, 음대 64년입)



필자는 64년 음대 기악과(F-lute) 입학생으로, 75년 미국에 이주하기 전까지 "여그린 악단" 국립 교향악단(現 KBS 교향악단) 등에서 여러 해 동안 연주생활을 하였고 미국에 온 이후 Washington DC. 주재 The U.S. Army Special Band에서 20년 넘게 연주 생활을 하였다. 최근 은퇴 후 몇 번의 한국방문을 제외하곤 오랫동안 국내의 음악계 활동 상황을 접하지 못하여 이 글의 내용이 다소 현실 상황과 일치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먼저 이번 음대 순회 연주단의 공연을 보고 잔잔한 감동과 적잖은 놀라움이 있었음을 (대부분의 청중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첫째로 모든 출연자들의 기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의 아마추어적인 경지를 완전히 벗어난 최정상급의 수준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레퍼토리"의 다양함이다.

지금까지 근 30여년 동안 고국의 음악가들의 미국내 연주를 가끔씩 접한 적이 있었으나 오늘과 같은 형태의 연주회를 결코 본적이 없다.

80년대 초,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90년대 후반 "솔리스트 앙상블", 뮤지컬 "명성왕후", "팔만대장경" 등 그 때마다 그런대로의 호평을 받았으나 솔직히 미국 사회에서 그들의 연주가 특기할만한 방향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의 모교 연주단은 Orchestra를 제외한 흔히 있는 연주회의 Violin, Piano, 성악 등 판에 박힌 연주가 아니라 이에 더하여 관악(Oboe), 특히 국악(가야금, 북, 판소리)이 어우러져 연주회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말하고 싶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Piano, Violin, Opera분야에서는 대가급의 연주자들을 상당히 볼 수 있고 미국의 우수 Orchestra곳곳에 현악기 연주자들을 볼 수 있지만 관악기 분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우리의 국악은 이곳에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모교 연주단의 어느 한 프로그램도 최상의 연주가 아닌 것이 없었으나 그 중 조환희의 Oboe연주는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관악 연주자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특히 이자람의 춘향전 판소리는 감동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의 충격이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음악 Verdi, Puccini, Beethoven, Pavarotti에 그토록 열광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춘향전 판소리를 들려줄 수 없었는가? 우리 모두 한국의 음악인들,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나는 30년 가까운 미국 생활 중 미국 radio어느 채널에도 우리가 "가고파"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O Sole mio"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마피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빼고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선 어떠한가? 잘은 모르지만 은통 외국음악으로 순수한 우리의 전통음악이 설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양음악도 그들보다도 더욱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고유 음악의 발전과 외국으로 전파함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예술인들에게 부탁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살짜기 읊서예" 같은 한국 뮤지컬이 상연되고 "Metro Politan" Opera House에서 판소리 "춘향전"이 오르게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연주회를 가능케 한 음대 모교와 미주 총동창회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이토록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좀더 많은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주시 못하고 집안 잔치에만 그친 것 같아 아쉬워하며 다음번 연주에는 더 다양한 "프로"를 기대해본다.

호흡 (숨쉬기)

ⓒ 東洋武道大學 氣武道

김호범 (상대 73년졸)

호흡의 중요성의 인식

매일 수 천번, 수 만번을 쉬는 숨이지만,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던 시기가 지나고, 건강을 위해 영양가를 생각하며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의 중요함을 깨달아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숨은 산소를 공급하는 이외에도 몸이 우주의 기운을 접하게 하여 활력과 영양과 기를 몸안에 전달하며 몸이 타고난 자양하는 능력을 보존 증강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여 피로에서 회복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숨은 음식이나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숨만을 쉬고 숨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수 천년 전에 숨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기공이니, 단전 호흡이니, 요가 등으로 숨쉬기를 공부하고 개발하여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20-30년 전부터 이 숨쉬기의 중요함을 알기 시작하여 숨쉬기와 정신상태, 숨쉬기와 자기 치유의 능력 증가등의 연구를 하고 병치료에 보조방법으로 숨쉬기를 실천하여오다 지금에 와서 그 연구 결과와 호흡법이 일반에게 급속한 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 동안 숨쉬기에 관심이 있어 공부했습니다. 그간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여러 동문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론이 독특하며 잘 정립된 무공 최 준표 선생님의 기무도(氣武道)를 배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무도는 건강을 정신, 육체, 마음, 운동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조화시켜 개발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광범한 기무도의 이론 중 그 일부분인 호흡 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 호흡법

우리가 무의식중에 하는 호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용 호흡법입니다. 싸움 할 때는 얇은 호흡을 하게 되며 상대에게 숨쉬는 것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 타격을 받으면 그 영향이 숨을 내 쉴 때 타격을 받은 것 보다 수 배의 큰 부상이 옵니다. 저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포에 싸일 때,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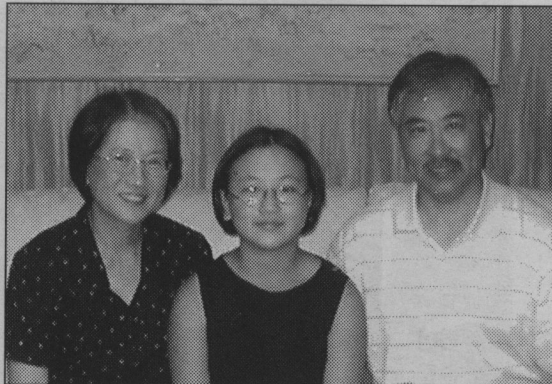
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숨을 죽이게 되어 무의식중에 방어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른 호흡법은 자양 호흡법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위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환숨을 내쉽니다. 한 숨은 큰 숨입니다. 몸이 필요하기에 큰 숨이 쉬어 집니다. 숲이 우거진 공원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을 벌리며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한껏 들여 마시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숨이 고르고 길고 조용하며 깊습니다. 이 숨은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활력소와 영양과 힘을 제공합니다.

사는 데에는 이 두 가지 호흡법이 다 필요하며, 저희는 무의식중에 이 두 가지 호흡법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며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

현대에 와서 생긴 문제는 저희가 무의식중에 전투용 호흡에 치우치게되어 자양 호흡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 몸은 방어 자세에 들어가 얇은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화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공포, 수치스런 마음, 욕심, 욕망 등이 우리의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얇은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몸이 쉬어야 할 저녁이나 밤에도 뉴스나 액션 영화 등을 보며 몸은 무의식중에 얇은 호흡을 하고 자는 동안에도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또한 병이 있어 고통이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숨이 짧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오래 있게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어 지고, 몸이 갖고 있는 자기 치유의 능력이 감소됩니다. 또한 이렇게 얇은 호흡만을 오래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양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 버려 긴장을 풀었는데도 호흡은 얇은 호흡을 하고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린애들은 배를 볼록거리며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숨은 점점 위로 올라가 흉식 호흡을 하고 나중에는 가슴까지도 못 내려가 목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호흡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한 사람, 화난 사람, 감정이 격한 사람을 보면 "심호흡"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Take a deep breath.") 우리는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필자와 부인 박종희(의대 75졸)과 딸의 단란한 가족

안정이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심호흡의 방법을 모르며 심호흡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공이나 단학이나 요가 등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기무도에서 체계화한 여러 호흡법 중 그 기본이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자연스러운 자양 호흡법 - 복식 호흡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자양 호흡법 - 복식 호흡.

호흡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흉식 호흡, 복식 호흡, 단전 호흡, 전체 호흡, 역 호흡, 요가 호흡 등등 많은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호흡법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입니다. 전투용 호흡은 주로 흉식 호흡이며, 자양 호흡은 주로 복식 호흡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기무도에서는 흉식 호흡이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몸이 무의식중에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바꿔가고 하므로 둘 다 몸에 필요한 호흡입니다. 또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역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정하지 않고 몸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식호흡을 오래하지 않은 사람은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서 무의식적으로는 복식호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린 복식호흡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호흡을 따로 훈련을 하면 평상시에 몸이 원할 때 자연적으로 복식 호흡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벼운 복식 호흡과 깊은 복식 호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단전 호흡, 기공 호흡 등으로 기를 증강 축적하고 기의 균형을 조절하는 등의 호흡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단전, 기 호흡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을 충분히 익혀 자유 자재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후에 호흡에 대한 공부부터 하고 싶으시면,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한 호흡법을 연

구하고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간단한 복식 호흡을 연습하여 그 동안 잊어 버렸던 자연스런 호흡법을 되찾아 평상시에 복식 호흡을 계속할 수 있으면, 몸은 타고난 자기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 건강 유지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식 호흡 훈련의 단계

<자기 호흡법의 관찰> 자기 호흡법을 관찰하여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숨을 쉬고 있나를 파악하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몸이 조용할 때 의자에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훌륭한 옷과 느슨한 헐레로 숨쉬는 데 걸림이 없어야 숨을 쉬면서 자기 숨을 관찰합니다.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지, 배로 호흡을 하는지, 또는 가슴과 배를 다 사용하는지, 어깨가 들먹거리는지, 가슴이 앞뒤로 벌어지는지, 가슴이 옆으로 벌어지는지 등을 살핍니다. 또 호흡이 긴가 짧은가, 부드러운가 거칠은가, 고른가 불규칙한가, 얇은가 깊은가, 빠른가 느린가 등등도 살핍니다. 복식 호흡훈련을 하기 전에 항상 자기 호흡법을 관찰하여 시일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기 바랍니다.

복식 호흡연습

<준비> 옷은 꼭 끼지 않아 호흡에 편하게 할렷하게 입고,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편편하게 닿게 하고 등과 가슴을 자연스럽게 펴서 구부리지 않고 머리 꼭대기가 하늘을 향해 목을 펴고 몸 전체에 힘을 빼고 그러나 끈끈하게 앉아서 시작합니다. 가벼운 복식 호흡은 아무 때나 연습할 수 있으나, 깊은 복식 호흡은 심한 운동 직후나 직전을 피해서 몸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연습하며 식사 직전과 직후를 피해서 식사 전 적어도 30분전에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후에 연습을 합니다.

<연습 방법>(1) 숨을 천천히 들이키면서 동시에 아래 배를 앞으로 조용히 내딛습니다.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배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기분으로, 마치 아래 배 안에 고무 풍선이 들어 있어, 숨을 천천히 들이킬 때, 그 숨이 고무 풍선 안에 들어가 고무 풍선이 서서히 팽창

하기 시작하여 배가 따라서 팽창하는 기분으로 숨을 들이킵니다. 일단 팽창하면 힘을 빼어 그 풍선이 오그라 들면서 공기가 자연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으로 배가 꺼지면서 숨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15분 정도 무리가 가지 않게 연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힘 주지 말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호흡을 하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숨을 길게 쉬려고 하거나 너무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것은 몸을 긴장하게 만드므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2) 배를 내미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이번에는 숨을 들이킬 때, 풍선이 앞쪽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팽창한다고 생각하여 배와 등과 옆구리가 같이 동시에 천천히 사방으로 팽창하게 연습합니다. 풍선이 꺼질 때는 중심을 향해서 사방에서 안으로 오그라 드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숨쉬는 방법이 자연적인 가벼운 복식 호흡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쉽게 습할 수 있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기 바랍니다.

(3)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요령

호흡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숨을 들이킬 때 배와 등과 옆구리가 동시에 천천히 사방으로 팽창하며 반대로 중심을 향해 오그라 들며 숨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합니다. 입은 다물고, 혀바닥 끝을 입천장에 (이빨 있는 앞쪽) 가볍게 닿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코로만 숨을 쉽니다. 조금하게 생각 말고 몸의 긴장이 풀고 편하게 힘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계속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이 조용한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모두 풀고 편안한 자세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며,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규칙적으로 고요하게 호흡하며, 입으로 통하여 들어온 호흡이 가슴을 통하여 아랫배 깊은 곳까지 다다르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하며 느낍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이 끝나고 숨의 전환점에 다다라 숨은 잠시 정지한 후 나가기 시작합니다. 숨이 다 나가면 다시 전환점에 다다라 잠시 정지한 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주시하며 느끼고 있으면 정신은 숨에 집중이 되어 다른 생각은 다 없어지고 호흡 안에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숨은 비단결 같이 부드럽고 느리고 길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편안하게 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10면에 계속>

**Korean-American의 새로운 位相 定立에
主導的 役割을 하는 동창회**
移民社會와 母校와 祖國을 위한 人才양성 필요
지역동창회가 재정적으로 뒷받치는 재미 총동창회
姜洙祥 (의대 53년 졸, 재미 총동창회 2대 회장)



동창회는 母校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빼어놓을 수 없지만 역시 일차적인 요건은 이웃하고 있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이며 이것이 건전하게 자라날 때 한 단계 발전된 봉사활동이란 사업도 하게되는 단체로 변신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미 총동창회는 1991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요 도시의 지역 동창회가 70년대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여 80년 초에는 끝이 났으니 출산의 첫 울음이 있기까지 10년이 넘는 잠복기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창립이 된 동창회이지만 자리가 잡혀가는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본인이 1993년에 동창회의 책임을 맡고 나서야 그 당시 발족된 총동창회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첫째가 각 지역 동창회와의 협동 관계이고 둘째는 동창회 재단이라는 기구가 동창회 창립과 함께 탄생한 것이다.

미주 동창회는 국내의 지역 동창회와 총동창회간의 관계와는 여러 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총동창회가 먼저 설립되고 그 산하에 각 지역 동창회가 뒤따르는 한국 내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지역적인 요청에 따라 지역 동창회가 이미 창립이 된 연후에 총동창회가 설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총동창회를 설립할 때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창회가 지역성을 벗어나서 전 미주를 망라한 하나의 통일된 기관 속에서 활동하겠다는

합의와 이 합의를 수행할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동창회의 존립에 절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각자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지역활동을 대폭 지양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창립 총회에 지역 동창회장들이 초청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먼저 서로 상의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미주 총동창회의 발족을 당부하는 당시 母校의 總總장의 뜻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총동창회와 동창회 재단정관이 창립 2년 후인 1993년 10월 30일에 정식 채택되었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총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하는 기관으로 동창회 재단이 동창회 창립과 함께 별도 기구로 발족이 된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동창들이 동창회를 설립한 것은 설립목적에 합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행하는 책임(재정적인 책임도 포함된다)을 수락한 것인데 재원을 확보하는 별도의 기관이 이중적으로 탄생된 것이다. 본국 동창회에 재단법인 관악회가 존재하는 것에 힌트를 얻는지는 모르나 관악회는 그 설립 목적 이전 국가적 문화향상에 뜻을 두고 학생과 교수들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있고 실업계

에 종사하는 동창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이런 사업이 넓은 의미에서 모교발전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본국 동창회가 1969년 2월에 창립되고 장족의 발전을 한 연후인 1979년 12월에 와서야 이와 같은 전국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미주 동창회 재단은 동창간의 친목과 복지 그리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구라지만 관악회의 설립 취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미주 동창회도 언젠가는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은 시초부터 이렇게 막중한 기관을 둔 것은 아직 유년기인 동창회의 결속에 도움을 준 것보다는 상당한 난관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국 관악회의 이사장직을 동창회장이 겸임을 함으로서 동창회의 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야기되는 문제까지 가지게 되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동창회가 응집력을 잃고 양극화되는 사태를 초래할 위기에까지 오게되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 평의원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아 본인의 임기 중에 동창회 재단의 이사장직을 동창회장이 맡게 함으로서 동창회의 二元化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행한 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주년기념 論壇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2002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7시
Court A-C room, Oak Brook Hills HOTEL, Oak Brook, IL.

[편집자주]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해에 맞이한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의 前夜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31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5명이 발제자(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및 김호원 동문)로 초청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2대 회장 강수상 동문과 제 3대 회장 이병준 동문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초기 역사와 미래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다. 그러나 총동창회와 지역 동창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定義, 특히 총 동창회의 재정 문제에 대한 지역 동창회의 의무를 개정한 정관에 명시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애석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 후에 제3대 이병준 회장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원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 많은 진전을 보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는 지역 동창회가 총 동창회의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지역성을 넘어서 전 미주적인 동창회로 자라는데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 동창회와 총 동창회가 하나의 실체로 운영되고 체계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총동창회가 상징적 기구로 표류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미주 동창회의 사업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창간의 친목과 복지 그리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은 한국 안의 동창회와는 다른 사명을 가진 특수성이 동창회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한다. 그것은 Korean-

American의 위상 정립에 우리 동창회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남다른 삶에 대한 자신과 긍지로 移民者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여야하며 이 사업을 全 美州적인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사업의 우선적인 과제는 우리 동창이나 동창 가족 그 밖의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서 이 사회가 주목할만한 훌륭한 Korean-American을 길러내는데 그 방법을 연구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펼치는 일이다. 이 사업은 미주 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창이나 한국의 이민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Korean-American을 길러내어 그들이 母校에 가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후배 교육에 종사하게 된다면 모교를 위한 공헌일 뿐 아니라 母國을 위한 가장 보람된 일일 것이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관악회가 펼친 전 국가적인 문화사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주 동창회의 사업이 될 것이라 하는데에 모두가 共感할 것으로 생각한다.

<9면에서 계속>
몸의 긴장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굴에 가볍게 미소를 띄우면 몸은 더욱 쉽게 부드러워 집니다. 이렇게 호흡을 15분 내지 30분 정도 연습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몸은 자양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으므로 외부의 공격에 대해 저항이 없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 전후에는 격한 운동을 삼가며 격한 감정이 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깊은 복식 호흡이 잘되고 있으면 몸 속의 기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격한 감정은 순환하는 기를 막히게 하는 수가 있어 몸에 큰 해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갑자기 끝내야 하는 경우에는 숨을 쉴 때 마다 그 숨을 단전에 모으고 생각하며 9번 정도의 마무리 하는 습

을 쉬고 끝내기 바랍니다.
주의 할 점
처음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경우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져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연습하여 무리 없이 자연적으로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조용할 때는 평상시에 될 수 있으면 복식 호흡을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몸이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경우 등 몸이 흥식 호흡을 필요로 할 때는 무리하게 복식 호흡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깊은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 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굳이

기를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의 움직임을 느끼더라도 기를 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아랫배(단전)에만 조용히 정신을 집중하여 숨을 통해 들어온 기가 단전에 모인다고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단전은 배꼽에서 3센치 정도 아래로 배속으로 3분의 1정도 들어온 부분을 가리킵니다. 단전은 기를 저장하는 곳이므로 기를 느낄 때 조용히 단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탈이 없습니다. 초보자가 기를 잘못 운용(의식적으로 기를 몸의 다른 부위로 보내는 것)하면 기가 뭉쳐 몸에 큰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중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거나 메스꺼거나 등등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복식 호흡을 중단하고

평상시의 가벼운 호흡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병의 증상이 있는 분은 깊은 복식호흡을 실행하기 전에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탈이 납니다. 중용을 지켜, 무리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말
올바른 호흡법을 바탕으로 하며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잘 움직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건강 유지의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준표 선생님의 氣武道에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Toxic Mind (노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수치스러워 하는 마음)를 먼저 없애고, 살아있는 공기-活空, 살아있는 물-活水를 섭취하고 살아있는 움직임-活動과 살아있는 마음

숨-活心이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天氣와 地氣와 人間氣를 잘 받아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을 유지할 때 몸과 마음이 평온해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식 호흡을 많이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올바른 복식호흡을 하여 몸의 자기 치유 능력을 회복하여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무도나 호흡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필자 연락처 847-657-8919
무송 김 호범

총동창회와 재단이사회 통합으로 이룩한 단합된 힘

弱하고 疏外된 동문들을 위로 격려하는 공정한 동창회보

李丙俊(상대 59년졸, 재미총동창회 제 3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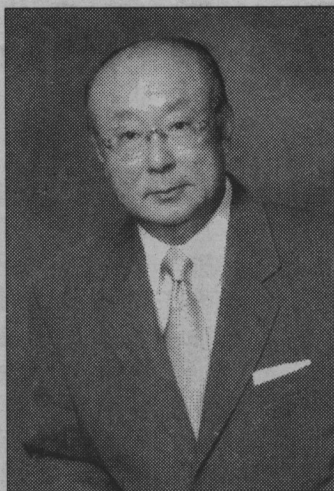
재미 총동창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제 3대 회장을 역임한 저의 발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을 돌아보며 생각나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대 박윤수 회장님(Washington DC.), 그리고 제 2대 강수상 회장님(Chicago)의 헌신적 노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총동창회 제 3대 집행부가 西部인 LA로 옮겨와, 이곳 LA 지부 총동창회에서 본인을 회장 후보로 천거하였습니다. 당시 동창들간에는 총동창회는 東部에 있으나, 재단 이사회는 西部에 있어 김영기 재단 이사장께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신문발행과 총창회관 건립 추진에 열성을 바치고 있으나 총동창회로부터 협조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을 때라 저는 총동창회 회장직 수락 여부를 놓고 주저하였습니다. 그 때 문득 어느 역사학자의 다음의 글이 생각되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위하여 부르는 자, 또 이 부름에 응하는 자들은 위대하다. 그러나 조용히 구석에 앉아 부르지도 않고 부름에 응하지도 않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미 총동창회 선후배 동문들이 부르시는데 이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제 3대 회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21개 각 지역 동창들 간에 친밀한 관계로 결속된 지역 동창회가 운영되며 친목을 다지고 나름대로 뜻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미주, 캐나다 등, 북미주에 10,000여명 정도의 동창들이 있고 이 동창들의 힘이 집적된다면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동창들간에는 많았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들보다 미물(微物)인 개미, 벌, 새 또는 작은 물고기들도 개체(個體)는 미력(微力)하나 군체(群體) 즉, 무리지어 행동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아왔고 또 이들의 개체의 행동을 군체로서 질서있게 행동하게 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페르몬이라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동물학계와 곤충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인 10,000여명의 동창회원이라는 잠재인력을 끌어내어 과파하고 페르몬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인 좋은 신문을 만들어 동창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총동창회를 만들어 그 큰 모아진 힘으로 母校



와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가지씩 전개하여 보자는 것이 제 3대 회장단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동문들께서 각 지역 동창회로 가까이 참여함으로써 활력을 얻은 지역 동창회들이 적극 총동창회를 협조,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시 재단 이사회에서 발행하던 신문을 총동창회가 발행함으로써 지역적인 일부 동창의 신문이 아닌 재미 동창전체의 사랑 받는 신문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당시 재단이사회에서 이를 설명하던 저의 의견에 찬동하시고 제 3대 회장을 맡은 저에게 大乘의 차원에서 재단 이사장직도 겸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신 김영기 초대 재단 이사장과 오형원,

차중환 등 재단이사를 비롯한 많은 재단 이사 동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을 발행하면서 많은 애로 중에는, 신문이 아직도 동창들 간에 검증 단계였는지 원고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구독료가 잘 거치지 않았었는데 달을 거듭할수록 개선되었고 이때 부족한 신문을 위해 도와주신 동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문을 통하여 제 2대 강수상 회장시 계획하셨던 회원 주소록 발간사업을 당시 사무총장이신 김길중(의대 59) 동문으로부터 그간 헌신적으로 모은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인계받고 다른 동문들의 직업과 전공까지 추가된 자료수집을 신문을 통하여 홍보하여 1년여 수집 끝에 재미 6천여 동문을 수록한 990面的 "1997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원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우리 동창회가 구상하는 "母國을 위한 知的 奉仕團" 등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 일을 당시 추진한 김성희 사무총장, 성주경 재무국장, 권상희 편집인, Jenny Lee 등의 헌신과 희생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에게는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3대 회장단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미안한 것은 후에 말으실 회장단을 위하여 후원 이사제를 설립하였으나 재정 자립체제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채 제 4, 5대 오인석 회장께 물려드린 것입니다. 또 오인석 회장 후임 제 6대 회장

에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열심에 차있는 시카고 지역의 이용락 회장께서 맡으셔서 신문과 함께 총동창회 사업이 날로 수준있게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볼 때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 9장 마지막에 공수신퇴 천지도(功遂身退 天之道), 공을 이루고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하였는데 심포지움의 성격상 제 3대 집행부의 경험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두서없이 적다보니 자기 공을 은연중 내세우려는 인상을 받았을까봐 두렵습니다. 이에 바라옵기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모든 동창들이 사랑받는 신문이 되어 弱하고 疏外된 동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과 직업을 초월하여 모든 동문들의 공평한 눈, 귀, 그리고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신문을 통하여 몇 사람의 영웅적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극적인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미 동문들의 주머니 사정을 참작하여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을 한가지씩 찾아내어 성취함으로써 자존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문들과 그 가정이 내내 행복

2002년 8월 28일 李丙俊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조직활동과 민주주의 원칙 재미과학 기술자협회(KSEA) 제 1회 전미주 수학경시대회 개최 를 읽고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2002년 5월 28일자, 11면)

조진태 (문리대 61년 졸)

저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초창기 때부터 회원으로 지금은 North Texas (Dallas) Chapter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서 한 독자로서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이 서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대학 출신이 다방면에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KSEA도 이에서 예외가 아닌 상태로 많은 동창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중에는 어느 단체 또는 기관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전혀 밖으로 알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모르게 일하시는 분들이 알려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동문의 한 사람으로 즐거움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동문에 속하는 사람으로 국가적인 또는 한 단체

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단체를 분열 조장하는 활동을 하고도 마치 큰 공헌을 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광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기 건도 바로 이점에 속한다는 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은 채 이 평을 쓰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1회 KSEA 전국수학경시대회의 경과를 간단히 보면, 2001년 여름 Boston에서 있었던 지부장 회의에 KSEA North Texas (Dallas) Chapter 부회장, 박용인 씨를 비롯한 몇몇대표가 이 안전을 제안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후에 여러 지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그 이후 이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2002년 초에 들어와 KSEA 본부로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3월에 통보를 받았음 (4월 20

일에 실시한다고 통보). Dallas 지부에서는 이미 제15회에 걸친 수학경시대회를 실시해 왔고 또 금년에는 그 당시 5월18일에 예정 계획된 수학경시를 변경 실시할 수 없으므로 4월20일에 실시하는 KSEA 전미주 경시대회에 참여 불가함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고찰해보면, (1) KSEA 명의로 한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각지부에 충분한 의논의 시간을 주지않고 실천해 버렸고, (2)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이에 대한 실시방법 및 날짜, 감독인, 출제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고찰이 없이 실천했고, (3) 여러 지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존하는 수학경시대회를 일부만 고려, 그 전체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4) 이를 반대하는 지부들은 이에 참가하지 않게 되므로 앞으로 KSEA의 활동 참여를 분열시키는 것을 장려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당시 KSEA 회장단(당시회장은 서울대 동문)의 지나친 명예욕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

았나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 난 것 처럼 New England 지역을 비롯하여 9개의 분회(또는 12개 지역)만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KSEA 분회 50여 개중 참석을 반대하거나 못하는 지부가 대부분이 라고 간주되며, 따라서 全美州 라는 단어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석을 원했던 경우에도 (달라스 지부가 그 좋은 예) 너무나 짧은 시간이 주어져 이를 수락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국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한국적 사고방식과 왕권/관료주의적 실천방법을 고수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공공단체에 있어서 민주적 실천이라는 것은 곧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가 절대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흔히 무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대학 출신이건 아니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長)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미국의 민주적이라는 말만을 만끽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미국의 공공단체의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이와 같은 전체의사 반영을 우리들 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들은 아직도 많은 실천의 실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韓民族의 단점 중에 하나인 분열을 잘하는 점 의 근본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의 의사를 종합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전체의사가 자기개인의 의사를 반대할 경우 이를 받아 드려야 하는 용기도 그 대표자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문들은 이점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단체를 대표하든 지도자의 입장에 섰을 경우 차질 없는 실천자가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7월 15일)

연락처:

E-mail: jtzo@hotmail.com

個性·熱情·理性, 의 균형된 人格으로 奉仕하는 서울대人

第11次在美 동창회 評議員會議 晚餐辭 (全文)

林光洙(공대 52년졸,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尊敬하는 在美總同窓會 朴允洙, 姜洙祥 顧問님, 吳仁錫 名譽會長님, 그리고 李龍洛 會長님과 吳興祖 首席副會長을 비롯한 美洲 各支部를 代表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評議員 여러분!

또 韓在殷 會長님과 張基南 首席副會長을 비롯한 이곳 시카고支部 同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總同窓會 定期總會에서 저는 在美同門들의 以心傳心은 勿論, 國內 各界各層 同門들의 聲援에 힘입어 서울大 總同窓會 第19代 會長에 就任했습니다. 不足한 點들은 國內外 高名하신 여러 同門들이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고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Catch Phrase 아래 總同窓會 會長에게 주어진 責務를 다할 생각입니다.

平素 先後輩 여러분의 母校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바가 있어 바쁜 日程에도 不拘하고 이처럼 滿場의 盛況을 이룬데 對하여 서울大 總同窓會 會長으로서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그동안 在美總同窓會에서는 「冠岳後援會」를 結成하여 同窓會

의 財政自立 및 同窓會報의 持續的인 發刊·配布에 커다란 精誠과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再昨年부터는 「母校와 後進을 爲한 1百萬불 基金」募金 運動을 펼치면서 母校와 本國 同窓會를 後援하는 等 獻身的이고 積極的인 活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支部 同窓會는 그동안 「獎學基金 管理委員會」와 「獎學生 選拔委員會」를 結成하여 이곳에서 學業에 熱中하고 있는 學生들에게 獎學金을 授與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每年 봄·가을에 골프大會를 開催하고 여름에는 野遊會를, 年末에는 送年파티를 펼치는 等 同門 親睦과 和合을 위한 자리를 활발하게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在美 서울대人의 壯한 偉業이라 믿어 기쁘고 가슴 뿌듯하기 이루 말할데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在美總同窓會와 시카고支部 同門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 計劃하신 모든 일들이 圓滿하게 推進될 수 있도록 20萬 서울대人과 함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在美同窓會 活性化를 爲해 盡力하고 계신 李龍洛 會長님과 시카고支部 發展

을 위해 不撤晝夜 애쓰고 계시는 韓在殷 會長님께 큰 感謝와 激勵의 拍手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拍手) 感謝합니다.

敬愛하는 在美 同門여러분! 서울大總同窓會 會長인 저와 一行을 이렇게 貴한 자리에 招請해 주신데 對한 答辭에 가름하는 演說은 이미 配布해 드린 平議員會議 Keynote Speech로 代身하면서, 先後輩 同門 여러분께 한 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生覺은 말과 글, 그리고 行動으로 表出된다고 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이러한 사람의 生覺이 담긴 말과 글, 그리고 行動의 세 가지 要素를 指摘한바 있습니다. 즉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그리고 로고스(Logos)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토스는 特性, 氣品, 人格을 包括하는 말로써 道德의 基準에 따른 믿을 직함과 멋, 그리고 나름대로의 體臭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파토스는 感動과 修辭로서 主觀的·感情的 要素입니다. 로고스는 理性을 뜻하는데 秩序와 調和의 根本이며 合理的이고 論理的인 것으로 偏見없이 說得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人이, 또 우리 서울大同窓會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울대人의 人格이, 우리 母校인 서울大學校의 校格이, 우리의 祖國인 大韓民國의 國格이 바로 堂堂함에 있어 責任있는 姿勢와 不斷한 自己 鍊磨를 다 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生覺과 行

動이 에토스와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의 調和와 均衡으로 감싸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地域社會와 市民社會에 模範이 되고, 奉仕함으로써 責任있는 서울대人으로서의 正體性을 確立하고 自己 本分에 充實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點에서 在美 서울大同門들이 이의 鑑鑑이 되는 분이 아닌가 감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祖國은 월드컵 祝祭로 全世界의 視線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現在 월드컵 開催國으로서 우리 國民과 同胞의 마음은 한껏 鼓舞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政治·社會의 不正腐敗 및 非理, 葛藤과 對決의 分裂狀에 우리 國民과 同胞의 마음은 錯雜하기만 한 것이 現實입니다.

월드컵이라는 國運隆盛의 契機와 함께 非理政局 및 地方選舉라는 危機管理의 契機를 맞아 우리 서울대人들은 이러한 國民의 鼓舞된 마음을 더욱 가다듬는 한편, 錯雜한 마음은 率先하여 추슬러야 할 責務가 있지 않나 生覺하면서 서울대人의 生覺을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親愛하는 美洲地域 同門 여러분!

學緣을 가진 사람의 모임과 關係에 對해서도 저는 이렇게 生覺해 보곤 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사람의 心性에 관련된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나 關係에서 是非曲直과 優劣이나 겨루려 한다면 和合은 물 건너가고 償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는 原則없는 權威

義와 官僚主義만 덩그러니 남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임이나 關係에서 給付와 反對給付만이 交換되거나 強制的인 負擔만 一方的으로 強要된다면 自發性은 사라지고 사람은 醜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는 道德없는 商業主義와 拜金主義만 橫行할 것입니다.

우리 同窓會는 同門간의 親睦과 友誼를 다지는 한편, 母校가 世界속의 有數한 研究中心綜合大學으로 跳躍하는데 뜻과 힘을 함께 모아 나라를 바로 잡고, 나라의 힘을 키우자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부디 사람의 모임, 또 사람의 關係에서 違和感과 自擔感을 덜어내어 누구나 즐겁고 欣快히 參與하는 同窓會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이러한 點에서도 在美 서울대人은 恒常 模範을 보이고 있음을 저는 目睹합니다. 저와 우리 巡訪團 一行 모두가 共感하고 있습니다. 우리 一行 모두가 在美 서울대人에게 深深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第11次 平議員會議을 爲하여 手筈을 아끼지 않으신 在美總同窓會 任員 여러분과 시카고支部 同門 여러분에게 뜨거운 感謝와 敬意를 表하면서 오늘의 人事 말씀으로 代身합니다. 感謝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오후 6시
◆ Prince of Wales Room, Oak Brook Hills Hotel, Oak Brook,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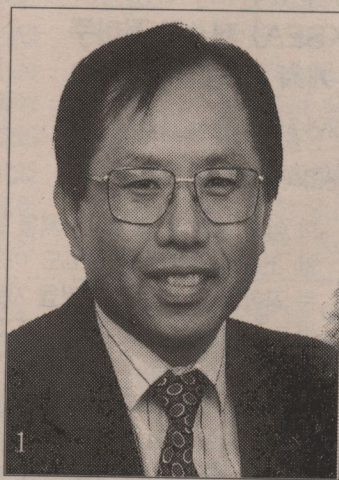
<畫報>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편집국 방문 재미동창회보의 편집진용을 격려하고 중앙일보에 감사

2002년 6월 13일 목요일 3시 30분



사진왼쪽으로부터 회보 편집인 김정수 동문(문리대 69년입),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회장, 사무국 직원 오세현씨

1. 재미 동창회보 논설위원장 이윤모 동문(농대 61년졸)
2. 구경회 재미총동창회 사무총장 (의대 65년졸) 3. 재미동창회보 편집실의 박미경씨 4. 중앙일보 편집국의 박명진씨
사진 촬영 이재국 동문(자연대 94년졸)



나의 친구

- 자랑스러운 한국 미술사연구가 姜健榮 박사 -

김일훈 (의대 57 졸)

일본 오사카에서 개업하고 있는 장한 한국인 강건영 박사를 여러 동문에게 꼭 소개해야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 알리는 바와 같은 그의 화려한 경력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일본 속의 훌륭한 한국문화를 발견하고, 조상의 업적을 일본과 세계에 선전하고싶다는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귀한 시간과 재산을 바쳐가면서 일을 성취한 애국자라는 점이다.

姜 박사의 고향은 제주도 조천리(朝天里)이며 그곳은 이조 때 선비들의 귀향지로 잘 알려져 있고, 그는 항상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조천리에는 지금도 연북정(戀北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귀향간 명사들(송시열 등 역사상 유명인사가 많다)이 조석으로 북녘 땅 육지를 그리워하며, 임금님 은총에 감사하고 빌던 곳이다. 강 박사 선조는 옛적 섬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육지사람들로부터 푸대접받던 제주도인이다. 고국에서 쫓겨난 거나 다를 바 없는 海外제주도인들은 옛날 연북정의 선비처럼 고국을 추호도 원망하지 않고, 고국을 그리며 성공한 해외 교포가 됨으로써 고국에 보답하고 있다.

불교 미술사연구가인 강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로부터 돌려받은 종교다. 그는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지극하다. 의사가 된 후 강 박사는 자기의 길에 동분서주하다보니 자기 조모와 함께 지날 시간이 없었고 또 호강시킬 기회가 없는 가운데 조모는 90세 천수를 다하고 세상 떠났다고, 그는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 그의 수필집 속에 할머니와 고향과 은사를 생각하며 엮은 두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 고향에서 소년시대의 나는 할머니를 따라 새벽부터 밭에 나가 보리밭기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때부터이다. 나의 고향은 제주도 북쪽 중앙에 위치한 朝天으로 겨울 아침은 매우 추웠다. 싸락눈이 날리고 소년들의 손발이나 얼굴은 얼어붙어 통증을 느낄 정도였다. 돌맹이 투성이인 밭 한 구석에 서서 5cm 정도 자란, 파란 싹을 밟아 나갔다. 잔설(殘雪)이 얼어붙어 바사바사 소리를 내었지만 푸른 보리 싹은 아주 신선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다."

" 졸업하는 날 아침에 채 선생은 교실에서 '십 년 후에 모두 만나자. 그 때는 너희들도 순경이 된 사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같이 학교선생이 된 사람 등 갖가지 직장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 있겠지...' 라고 말씀하였다. 이 마지막 말은 지금도 나의 귀가를 울리는 것 같다. 그로부터 이미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서로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었고 우리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삼삼오오 살아왔다—"

강 박사와 필자와의 친분은 7년 전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주 교신하는 동안 외국(일본 땅)에서 문화활동 하는 그의 열성에 감명 받게 되었다.

의사와 의학자,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의 60평생은, 그의 약력이 보여주듯 화려한 화원처럼 지성의 꽃이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의 愛國행위 즉 '일본 속의 한국불교예술문화 발굴'이라는 문화활동을 소개하는데 그친다. 이 일이야말로 돌도 없는 조국사랑과 통하는 애국행위이기 때문이다.



불교미술사 연구가이며 크리스천인 강건영 박사와 '일본 속의 조선미술사연구' 인연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납치되었던 유학자 강항(姜沆) 동상건립에 연유하니 1984년의 일이다. 강항은 그의 간양록(看羊錄)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다. 한국학자들의 강항 연구에 협조하고, 강항이 체류했던 곳에 그의 현창비(顯彰碑) 건립에도 강 박사는 사무국장이라는 책임을 맡아 직접 관여했고, 1990년 3월 11일 제막식을 갖게되었다. 현창비가 세워진 근처에 강항이



강건영 박사

자주 다녔다는 절 출석사(出石寺)가 있어,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찾았던 강 박사는 거기서 청록색 동종(銅鐘)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됐다. 사진을 여러 장 찍고서, 종에 조각된 3개의 천인상(天人像)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한때 꿈같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한다. 그리고 해설판에 적힌 해설문에서 "이 종은 임진왜란 때 왜장 아무개가 조선에서 갖고 와서 절에 기증했다"는 사실을 읽고 다시 놀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이자 문필가인 강 박사에게 '미술사 연구가'라는 직종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당시 몇 안되는 종(鐘)전문가들은 고인이 되고,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종도 있지만 조선종의 숫자나 보존상황 등 전체상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였다. 강 박사의 '불화와 범종연구'는 한반도 유래의 불교미술품이 지금까지 매몰된 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못마땅히 여기면서 출발했다고 그는 쓴바 있다. 이러한 예술적 향기 높은 조선민족의 문화유산의 존재를 일본인과 제일교포에게 더욱 잘 인식시키려고, '만난(萬難)을 배제하고서 연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 박사는 조선종의 전문서적을 모조리 찾아 독파하고, 휴가나 주말 등 여가만 나면 일본중의 고려종(조선종)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달렸다. 일본 동북부로부터 남쪽 대마도와 오키나와를 모두 찾아다녔다. 그래서 그의 수필 '범종과 불화의 만남'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로맨틱한 경험을 적기도 했다.

" 고려종을 찾아다니는 일로 생각지도 않게 일본 각지의 벽지나 먼 곳의 시골 도시 그리고 심산유곡에까지 행각하게 되었다. 짐뭇하고 말하지 않는 이들 범종에게도 각각 간직된 역사와 고뇌가 있다는 것을 일련의 여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섬에 있는 조안지(長安寺)에 배와 소형 비행기를 타고 옛 절을 찾아

갔지만, 산문(山門)을 비롯하여 본당(本堂)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드디어 있는 곳을 찾아냈지만, 높은 주지는 난청인데다가 반신불수여서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종이 있는 收藏庫의 열쇠를 나에게 건네면서 조용히 경내의 한쪽을 가리켰다. 드디어 혼자서 종의 사진을 다 찍고 소등하고 수장고를 나서자, 어둠 속에서 "나는 400년 이상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라는 조그마한 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환청임에 틀림없다. 1592년(임진왜란)에 한반도를 침략한 풍신수길(豊臣秀吉) 군에 의해 몰래 해협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 일본에 운래종(渡來鐘)의 외침인 것처럼 얼핏 나에게 들려왔다. 얼굴에 식은땀이 났다. 다만 무의식 중에 두손을 모아 합장(合掌)하고 수장고의 열쇠를 잠그고 조안지를 뒤로 하였다."

범종 탐색에 물론 고역도 많았다고 말한다. 절 스님가운데는 약탈해온 전리품이라는 소문이 퍼질까봐 만나기 싫어하는 자도 있었고, 또 먼길 찾아가도 종이 이미 없어져 허탕치는 일도 있었다. 강 박사의 집요한 추적결과, 문헌상 70여 개 있는 조선유래의 종 가운데 45개의 현존한 종을 확인했다. 일본 땅 답사만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강 박사는 한국에 범종이 있는 사원과 시설 23개소도 방문했다. 그 결과 처음 출판된 책자가 '범종(梵鐘)을 찾아서- 신라 고려 이조의 종'이라는 귀한 문화서적이다(출판일 1999년 3월 1일). 천인상이 실린 아름다운 표지와 칼라사진 6쪽, 흑백사진 19쪽에 이어 117쪽의 설명문이 담긴 보기 드문 아담한 책이다.



강박사의 은사인 전(前) 동북대학총장 니시자와(西澤)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 임진왜란 때 건너온 조선포로에는 우수한 문화인과 기술자가 많아 그들은 집단적 문화전달자로서 근세일본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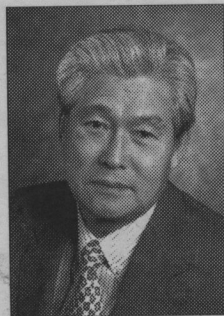
고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다. 여담이지만 일찍이 일본의 문호 도쿠미(徳富)는 그의 '일본 국민역사책'에서 임진왜란을 문화교육을 위한 귀중한 '외국유학'에 비유했던 글을 상기시킨다. 허다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조선의 인쇄기술을 약탈해가서 그네들 '문명개화'에 크게 공헌했던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기로 한국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왜란 때 신라 종의 약탈을 막기 위해 종들이 피난가면서, 땅속에 파묻어 보호했다고 전한다. 그러다가 6.25 동란 때 파괴되었으니, 일본에 약탈된 것 보다 못한 결과가 돼버렸다. 강 박사 말은 일본에 건너온 고려종(조선종과 신라종도 포함)은 잘 가꾸어졌으나, 한국것은 보관상태가 나쁘고 그기에 파괴 분실된 종이 많다고 한다. 필자는 강 박사에게 "일본은 왜란과 식민지시대 너무나 많은 우리 보물을 훔쳐갔다"고 말하니 그의 답인즉 "일본은 약탈한 죄가 있지만, 동시에 잘 보존한 공도 있다"는 답을 했다.

옛 조선은 유교의 배불숭유(排佛崇儒)사상과 주자학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자기들것만 옳고 남의 것은 모두 파괴하는)사상으로, 보배로운 불교문화재가 많이 파괴되었음을 크리스천인 강 박사는 원통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는 외국(일본)땅에 보존된 우리 조상의 불교문화를 아끼며, 직접 찾아가서 기록하고 세계만방에 자랑하려고 온 정성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조선불교문화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 일본의 국보 제1호는 신라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6세기 신라인 하도(秦)씨가 건립한 교도의 광릉사(廣隆寺)에 안치된 '부처님'이다. 평화스런 웃음을 띤 이 부처님얼굴은 조용하고 사색에 잠긴 듯 한 인자한 모습이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 부처를 보고 "인류의 자랑"이라고 평한바 있다. 인쇄술 발명으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천재성은 불교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 박사가 들으면 비웃을 일이지만, 필자는 1991년 교도 교외에 위치한 광릉사를 찾는데도 꼭 애먹었다.

2001년 2월 20일 발행한 '李朝の美 - 불화와 범종'은 첫 번째 '범종을 찾아서'의 속편이다. 전번 책에서 6개 밖에 안되는 이조시대의 종(鐘)만을 별도로 추려서 여기에 佛畫를 첨가했다. 그리고 더 추가보충을 위하여, 이조시대의 범종을 찾아서 한국의 방방곡곡 심산유곡의 사찰을 찾아 다녔다. 한국사찰은 주로 산정(山頂)에 있으며, 그 곳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그야말로 속세를 <14면에 계속>

World Cup 과 개고기 文化

김봉현 (법대 55년졸, 변호사)



한국말에 "伏날 개잡듯 하다"는 말이 있다. 이 귀절의 자세한 연원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보신탕 문화의 만연성과 잔인성을 함축한 듯하다.

지난 6월 18일 시카고 썬타임스 뉴스 평론란에 게재되었던 월드컵과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마크 브라운의 논평을 읽고 우리 재미 교포들의 거의 전부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항의 편지를 보내고 그 기사를 규탄하였다. 본인은 브라운이 한국의 고유한 개고기 문화를 이해 못하고 한국의 전통을 비하한다고 비난하는 각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좀더 광범위한 객관적인 견지에서 냉정히 논평하고 싶다.

월드컵 경기는 세계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국제 체육 대회이다. 이것은 백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분포가 되어 시행하는 국제 경기 행사인데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이나 각 민족의 친선과 우호를 위해서 4년마다 만나는 축제이다. 이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또는 민족에서는 각자들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이념적인 차별과 차이점과 대립을 초월해서 이 경기에 올 때는 오직 친선 시합을 위해서 모든 정열, 최선의 노력, 승리의 집념, 신선한 투쟁심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기를 하면서도 항상 화기에애한 분위기

에서 서로의 존경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공평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전통적인 신성한 경기 기간에는 타국에 대한 비난이나 비하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는 절대 금물이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 때 올림픽 경기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그 해에 미국 카타 대통령이 그당시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했는데 소련 정부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 한 미국 선수단의 불참을 고려하겠다고 담화를 했던 일이 있다. 그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 올림픽 경기를 절대로 정치 문제라고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와 항의가 들어와서 카타 대통령은 두말없이 그 발언을 철회한 일이 있다.

각국의 흠을 따지면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미국의 흠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복합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도 복잡하고, 사회 문제도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브라운이 개고기 문화가 하나의 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월드컵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현재 경기가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점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은 완전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세계대회에서 대한 전통을 무시하고 월드컵 경기 자체를 멸시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분 말은 원래 자기는 축구

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개고기를 먹는 한국에서 하게 되서 정이 더 떨어졌다는 부정적인 비평을 하였는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주최국인 한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것이며, 용서할 수 없는 폭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제 친선 회의에 왔으면서 주최국의 사생활에 관한 흠을 잡고 인신 공격을 하는 격이다. 세계 전통에 대한 상식 없는 언론의 횡포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발언을 이 시기에 했다는 것은 한국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월드컵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잔인하게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는 브라운 기사를 맹렬히 반박하는 것이며, The Sun Times에 강력히 항의를 하며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고기 먹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이며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개고기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은 개를 인간의 가장 좋은 벗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愛犬 사회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불붙는 집에 뛰어 들어가서 횡사 당한 일

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애견 분위기와 풍토가 이처럼 높아지고 전파된 이 시기에 세계적 분위기를 보더라도 또 세계화 사회 풍토를 보더라도 이 주장은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객관적인 대국적 견지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대처해야만 된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투우경기(bull fight)가 그야말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데 이 경기의 원산지인 스페인에서 올림픽 게임이나,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브라운이 투우경기를 비난하는 기사를 경기 도중에 하면서 스페인을 비하했다면 과연 사회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그렇게 노력해서 마침내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중국에서 몇 년후에 한참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브라운이 중국 민족의 허물을 꼬집어서,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니 나는 정이 툭 떨어졌다."는 말을 했으면 과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도 생각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도 해외 교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해외 교포의 건의 같은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국 실정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우리 개고기 문화는 이제 통할 수 없는 시대의 역행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개고기 문화를 과감히 또 철저히 철폐하는 정부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88올림픽 때 한번 그런 금지 조치를 했으면 그것을 계속 수행하고 추진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어떤 사회 여론이나 압력에

부딪쳤는지 흐지부지하게 물러섰으니까 이 개고기 문화와 산업이 번창되었던 것은 극히 우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 경기 유치는 두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인데 개고기 문화를 경기 방문자들에게 대폭적으로 홍보 선전하려고 하는 행위가 우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와 있다. 우리가 솔직히 자랑의 2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임했을 때는 한인 사회를 명실공히 대표하고 또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대변하는 시카고 한인회에서는 당당하게 신문사를 방문하여 서면상의 항의를 전달하면서 구두로서도 우리들의 불만과 분개 의사를 전달하며 다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도 이것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이미지와 월드컵 이미지를 먹칠하고 비하하는 기사인 만큼 우리의 국위손상의 회복을 위한 시점에서 즉 국제성을 충분히 내포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계에서는 우리 한인 사회를 항상 알리고 우습게 볼 것이며, 잘못된 민족사회로 취급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인 사회가 살아있고 약동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폭언을 배려없이 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13면에서 계속>

떠난 유현(幽玄)의 땅이다. 그리하여 한국사찰에 소장되어있는 범종 78개를 추가하고 여기에 조선 불화(佛畵) 칼라사진 25장을 보충하고, 본문 158쪽에 걸쳐 역사적 배경과 내용설명한 책이 바로 '李朝의 美'.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조시대 불교미술사의 집대성이자 압권이다.

한국미술탐구에 대한 그의 의욕과 백절불굴의 노력은 금년(2002년 2월)들어 세 번째 책 '고려불화'를 선보였다. 여기엔 현존하는 고려불화작품 168개 중 강 박사가 직접 확인한 42점을 소개했다. 당시 일본신문 '오사카 마이니찌' 뉴스에 책에 대한 호평이 나와있다. 강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려시대 국가보호를 받아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다. — 그리고 많은 고려예술품이 몽고침략으로 파괴되었다. — 일본이 조선에서 약탈해온 것은 사실이나, 일본

의 우수한 수복과 보관기술 덕분에 고려예술작품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것도 사실이다——" 李朝의 美에 이어서 다시 高麗佛畵를 발간하기에 이른 이유의 하나는 긴 역사를 새겨온 고려불화가 일본서 매몰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조선불화 이외에도 중국 대륙의 불화라고 말해져온 것 중에서 일찍이 한반도에 비장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들 중국 유래의 불화는 대규모이고, 양질인 조선불화와 함께 풍신수길시대에 혹은 일본 식민지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반출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그에게 들은 바로는 순수 출판비용만도 미화로 4만 달러에 가깝다. 얼마 전 세 번째 책 출판기념회를 녹화한 비디오를 강 박사한테서 받았다. 얼마 안되는 문과 애호인들이 모여서

베훈 조출한 파티이다. 오사카의 이름난 대동클리닉 원장 강건영 박사는 약사출신인 부인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사위까지 합해 모두 의사다. 가정적으로 복 많은 강 박사는 제 발로 고생길을 찾아 문화답사를 한다. 우리한국은 월드컵과 우수 골퍼들의 활약에서 보여주었던 이 이제 모든 면에서 세계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여기에 외국에서의 강 박사의 문화활동은 바로 국제적 외교활동을 말한다. 그의 글에서도 "이들 범종과 불화가 태어난 고향을 멀리 떠나서,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사절로서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해도 좋다. 아름다운 미술품은 다만 거기(외국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에 대한 친구를 만든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라고 적었다. 한국정부와 한국문화계가 무관심한 일을, 외국에서 고구분투 조국 문화를 자랑하는데 앞장선 우리의

애국자이자 시대의 선구자인 강건영 박사는 한국의 숨은 국제문화 친선대사(國際文化親善大使)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심있는 동문들을 위하여 그의 약력과 의학자, 문학가의 측면도 짚어 놓을 수 없어, 走馬看山으로나마 적어본다.

<강건영 약력>

▶본적은 제주도 朝天里이며 1938년 일본 오사카 태생. 어릴 때 부친을 잃고, 그후 모친의 재혼으로 제주도에 일시 귀국하여 할머니 밑에서 자람. 15세 때 다시 오사카에 감.

▶학력은 일본의 명문인 동북대학 의학부 졸업(65년), 동 대학원 수료(70년). 내과학 전공. 의학박사; 제1회 미일(美日)암협력사업연구자로 선발되어 미국에 파견연구(74. 9—75. 12); 미국 쥘리대학 내과교수 역임. 미국 알라바마주 헨츠빌 명예시민.

▶경력: KMA간사이지부회장;

오사카부 개호인정심사회 위원; 일본서 유학자 姜沆의 顯彰碑건립공로로 전남(강항의 고향)에서 감사패 받았으며 현재 오사카 大同Clinic 원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표는 한국어 판이며 그 외는 모두 日語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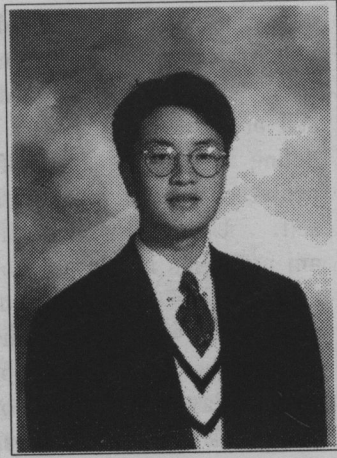
<문학저서>: 수필집 5편, 시집 5편; 의학저서: 의학논문집, 新내과학체계(분담집필), 新내과학(분담 집필), 일본의 개호보험과 재일 사회(2001년), 의료, 개호보험, NPO연구 (KMA 간사이지부, 2001년), *일본의 介護保險(의학신문사, 서울, 2001년), *개호보험, 복지제도, NPO 연구(의학신문사, 서울 2002년).

<미술사 저서>: 梵鐘을 찾아서 (1999년), 李朝의 美—佛畵와 梵鐘 (2001년), 高麗佛畵 (2002년); <논문 및 에세이>: 의학논문 (일어 30편, 영문 23편)과 문화논문 및 에세이 다수가 있다.

安定 · 民族 · 人種的 紐帶

Anjong, Minjok, and Ethnic Solidarity: Korean-American in a Historical and Modern perspective

Frank Byong Yoon (Columbia University, NY)



(편집자주) 필자는 Columbia University, NY의 senior이며, New England 지역의 尹相來(수의대 66년졸) 동문의 자제이다. 이 글은 Biochemistry, Classics와 Applied Mathematics를 전공한 필자가 sophome 때에 History W4855 과목인 Twentieth Century Korea 를 수강하며 (1999년 12월 20일 제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 문제 전문가인 Charles Armstrong 교수의 지도하에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二世의 눈에 비친 美州 韓人社會에 관한 하나의 自畫像을 읽을 수 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자는 原文에 한글 및 한자 단어를 괄호안에 삽입하였으며 전체 내용의 개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소제목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 I) A reflection on Korean history
- II) an analysis of Korean-American community
- III) A new immigrant ideology-Anjong, Minjok, and Ethnic Solidarity
- IV) Toward a new Korean-American community

< I >

Since the Tang invasions in the 6th century,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 through 1597, the Manchu invasions from 1627 to 1638, and Western interven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had never been out of touch with the outside world, nor forgotten by her neighbors. We have seen Korea as a product of makings greater than itself; this notion is manifest in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or perhaps Chinese suzerainty defined by the term sochunghwa(小中華). Nevertheless, as Kim Illsoo describes, These are only some major examples of many humiliating and devastating invasions by neighboring powers. Whenever Korea was subjugated by a foreign power, it underwent deep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hanges [Kim Illsoo,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83]. Historians theorize

that Korea really had no internal self-influences, but that geopolitical determinism was the process by which Korea developed her own character of her nation and of her people. [Kim I., 283]. Through the process of oppression and protest,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on the strength of blood, kinship, a single language, and great culture through their long history. [Lee Cheong-soo, Legitimac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in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ed. Suh Kuk-sung et al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ROK, 1983), 12].

How, therefore, can we translate this notion of national solidarity in modern times? Given the dramatic globalization of world cultures, one cannot solely depend on the term political nation or kukka(國家) to define a national peoples. What we have therefore, is the alternate term minjok

which refers to ethnic identity, a condition that far surpasses the political boundaries of state [Charles Armstrong's lecture, 12/1/99]. The conflict or complementing of both terms can be most clearly seen through the process of emigration from the kukka into another land, from which a new minjok is derived. Through emigration, immigrants remove themselves from their own kukka, the political state, and claim a new citizenship to a minjok in a new nation. Korean immigrants of the late 20th century typify such a process of relocation and re-identification by which we are able to see the translation of a national character in modern times.

The dramatic expansion and intensity of Western/American influence in the 20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cannot be neglected in the discussion of immigration. As the United States became a dominant power in world politics, its cultural influences fed the appetites of peoples who thought themselves as inferior compared to the cultural superiority of the white man. Park Kyeyoung describes this cultural colonialism in Korea as "American fever" [Park Kyeyoung,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29]. He says, The strong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 what I call American fever -- has influenced Koreans since the nation came under United States military rule after the

defeat of Japan in 1945. [Park K., 12]. Of course this cultural superiority would appear very relative if you were to ask a Wall Street broker and a Korean countryside farmer their opinions on the subject matter. However, as Bruce Cumings explicitly describes:

The vast disparity in wealth between America and Korea, visible at the American military PX exchanges in Korea, in the American television programs always available on AFKN (American Forces Korea Network), or in the Sears, Roebuck catalogs (called moose manuals) that generations of GIs used to entice their girlfriends, led many Koreans to think that the American streets were paved with gold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443].

< II >

Life in America had seemed like a dream to many Koreans in the impoverished, post-war nation: walking on golden streets in famous New York, watching television in a house, or shopping on the weekends in large department stores that sent out moose manuals if one was too tired to leave the home. The idea of the good life consumed the minds of war-stricken people in Korea, and it was this idea of something better that had sent the Korean immigrants across the Pacific in search of their dream.

No matter how subjectively one can describe the conditions of post-war Korea in comparison to America, there also existed objective realities which wer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influx of Korean immigrants after 1965.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which have heavily influenced Korean immigration. First,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called pundan(分斷), an outcome of the Korean War, instilled consistent fears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war, thereby influencing

oreans decisions about migration [Park K., 10]. Also, as a result of pundan, United States intervention has been continual in South Korea, in the maintenance of the demilitarized zone at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f the Yng-san army base. We can relate this continual intervention to the above subjective realities of American influence, and how, even in present day, the American presence cannot be neglected.

Second, rapid industrialization under Park Chung Hee's regime led to the creation of a the Korean professional, who was virtually non-existent in the 1950s, but who represented 7 percent of the labor force in the 1960s, and finally 20 percent of the working population in 1988 [Park K., 13]. Professionals accounted for 71 percent of the Korean immigrant group from 1961 to 1965 and 75 percent from 1966 to 1968 [Hurh Won Moo and Kim Kwang Chung,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53].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fessionals also demonstrates the amount of education the average Korean immigrant carried under his belt. Korean immigrants were the most highly educated group among all [immigrant] groups: 71 percent of them completed high school, and 36 percent bore college degrees, whereas only 11 percent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were college graduates in 1970. Hurh and Kim, 55. The high level of education that Korean immigrants carried with them, in turn, has reflected upon the huge successes they have enjoyed upon settling in America. As Kim Illsoo says, No other immigrant group that has entered the United States since 1965 has achieved such rapid economic mobility as have Koreans [Kim I., 281]. <16면에 계속>

安定 · 民族 · 人種的 紐帶

<15면에서 계속>

The third, most important factor for Korean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was the actual opening of American gates to foreign peoples. After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of 1965, the Asian share of all foreig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creased from 7.6 percent of the immigrant group from 1961 to 1965 to 27.4 percent from 1969 to 1973, multiplying fourfold and equaling the percentage of European immigrants — 27.3 percent in the same period [Hurh and Kim, 53]. Asian immigration after the passing of the Immigration Act of 1965 (which became fully effective in 1968) was like a balloon just about to burst; the new immigration laws had been the pin. Korean immigration alone doubled one year after 1968, and nearly tripled two years thereafter: in 1968, Korean immigrants numbered at 3, 811 people; in 1969, the number was 6,045; in 1970, 9,314 Korean immigrants we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Hurh and Kim, 26]. It is this new immigration that so enlarge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thirty years, but it also deeply shaped the population of Koreans able to emigrate [Cumings, 442].

< Ⅲ >

Where did they all go, then? Of course we could simply answer that many immigrants settled into cohesive ethnic communities, mainly in the New York area and Los Angeles; however, what were the beginnings and origins of these communities? If one were to walk around Northern Boulevard in Flushing, NY, along 32nd Street and Broadway in Manhattan, or along Olympic and Western in Los Angeles, he would see a proliferation of small businesses: bakeries, grocery stores, Morning Glory stationery s-

tores, little restaurants, and perhaps a few soju bang(燒廚房) or hofs(호프집) (affectionately called hop in Korea). These details are my observations from personal travel. You would not, however, find many first generation immigrants working at the upper levels of Wall Street brokerage firms due to glass ceilings that prevent promotion and mobility in the office hierarchy [Cumings, 444]. The small business practice has been adopted as a way of life for many, if not most, Korean-Americans, despite high levels of education. As Park Kyeyoung puts it, Small business activities today are a symbol, perhaps the key symbol, of Korean American identity and success [Park K., 206].

The mindset of Korean-Americans in respect to their new lives in America is described by the Korean word anjng which means establishment, security, and stability; at the core of this immigrant ideology lies the prospect of chagigage katki or the establishment of ones own business [Park K., 201]. We see at a deeper level that to run a small business is not necessarily a choice, but a reality for most Korean-Americans. As mentioned above, glass ceilings prevent Korean immigrants from climbing the corporate ladder, as [m]any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do not learn English and live cloistered in small Korea towns [Cumings, 436].

To fulfill one's anjong(安定), Korean-Americans must modify their attitudinal and behavioral patterns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life condition in a manner that is compatible with the new environment; such is the process of adaptation for Korean immigrants [Hurh and Kim, 73].

The definition of this new immigrant ideology, especially for Korean-Ameri-

cans, implies a very individualistic, perhaps autocentric, progression towards self-preservation. Here I define autocentric as self-centered or concerned with self. Ultimately, in itself, anjng seems highly antagonistic to the very ideals of community which are manifest in the cohesiveness of present-day Koreatowns of New York and Los Angeles. What therefore, upholds the unity that is expressed in terms of the new Korean minjok?

It is possible that we can closely correlate what history had presented to us and what modernity demonstrates. In 1919, under the leadership of Song Chin-u(송진우), Kim Sng-su(김성수), and other nationalists, the Korean people, under the oppression of Japanese colonization, issued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he March First Movement, through which the Korean people revealed the basic foundations of nationhood in the concept of modern nationalism [Carter Eckert, Korea Old and New: A History (Seoul: Ilchokak Publishers, 1990), 278]. The interpretation of this modern nationalism perhaps is the key to unraveling the answer to the new minjok[民族]: under oppression, Korean people have been known to assemble and persevere, in order to make things right. Even as Kim Ilsoo states, The continual foreign threats, invasions, and interventions have helped Korea achieve a special kind of national unity and solidarity [Kim I., 284]. We see through our understanding of the classical and pre-modern interpretation of community that individuals will join in order to preserve their interests a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elf-preservation, that is, the betterment of their life conditions. Thomas Hobbes would see the March First Movement as a modern approach to establishing a community: by assembling as a whole to protect their individual yet

communal interests, the Korean people in 1919 identified themselves with each other, by the common bond of minjok.

Minjok(民族) in itself is an entirely idealistic communal bond which can probably be understood only through the personal experience of being a Korean-American. However, minjok does make itself manifest in three ways or stages in the present-day Korean community. First, the influence of the homeland represents this new minjok which is derived from the kukka. In New York and perhaps the entire eastern seaboard, for example, the Korean Consulate fosters and promotes Korean culture, the Korean language, and nationalism... [which] are, of course, the cultural backbones necessary for creating one kind of community solidarity in the new land [Kim I., 232]. This influence from the homeland was the first stage in the creation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al themes implied in the actions of the Consulate are not negligible; the Consulate has been a proponent of the major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f Korean-Americans in the New York area, even financing many of the community's pursuits [Kim I., 232]. Because the actions of the Consulate offic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homeland, or kukka[國家], the first stage of the creation of a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was not dependent on the minjok expressed by the immigrants themselves, but rather, on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ond stage arises as a result of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to the new society, in which community politics have begun to turn toward American issues [Kim I., 227]. The growing independency of Korean-Americans from the control of the homeland represents

an increasing assertion of an ethnic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is second stage of the creation of a Korean community, we cannot attribute a communal goal to this stage; Park Kyeyoung states that Korean-Americans political activities can only be analyzed by relating them to the centrality of small business in their lives... Immigrants often begin to undertake political activity to protect small business interests [Park K., 155]. Such political activity is a result of individual interests, not necessarily out of minjok but more so of chagigage katki. The second stage of development arises from individual interests that have become communal, which might not necessarily create community in itself, but set the groundwork for more progressive stages of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third and present-day stage of community development, set-up by the former stage of communal individualism, we see that new, occup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other social groups, are created to defend and advance the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of Korean-Americans [Park K., 156].

Finally, the new understanding of minjok has seemingly culminated into community action; this is manifest in the current events that surround the Korean community today. In this decade, the Los Angeles riots that targeted so many Korean immigrants and their businesses have shown what is at stak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a need for assimilation to the American social culture, rather than self-exclusion and isolation from other non-Koreans. Even more recently, incidents in the New York area, namely Palisades Park, New Jersey, have shown the strengths and perhaps weaknesses of Korean communal self-preservation. <17면에 계속>

安定 · 民族 · 人種的 紐帶

<16면에서 계속>

We see particular weaknesses in the formation of, not one, but many associations which gear their interests towards the needs of their members. Secondary associations such as churches, alumni organizations, business chambers of commerce, womens clubs, are diverse and have not yet united toward establishing an ethnic solidarity [Kim I., 304]. The problem that is more inherent, however, as Kim Illsoo states, is that an affinity with concrete personal relations could, of course, limit the effectiveness of attempts to organize an abstract, ideological community [Kim I., 304]. What exists, therefore, is a community comprised of many communities, each with its own interests, but not necessarily uniting towards a common goal.

<Ⅳ>

However, Kim Illsoo was writing in 1981, when the cre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was in its early, perhaps secondary stages. Nearly twenty years later, in the incidents at Palisades Park, we see the foundations of a communal voice, of unity and singularity, which most likely was not as manifest in earlier days. On November 24, 1999, over 1,000 Korean-Americans, from the elder generation, middle-aged merchants, and college students assembled to protest the flagrant acts of racism that had proceeded in the course of town events. Given the diversity of the crowd that had assembled,

the unified voice represents the new minjok, much like the March First Movement had been the peak of anti-colonization protest in the earlier part of this century. In an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reporter Robert Hanley writes, Waving American flags and chanting We want change, and End racism now, about 1,000 Korean-Americans rallied outside Town Hall today in support of Korean-American merchants who complained of unfair treatment by local officials [1,000 Rally for Korean-American Merchants Who Fear Backlash of Bias in Palisades Park, New York Times, 24 November 1999, late edition, B6]. The description of events is hardly indicative of the common goal that encouraged the organization of the people. In the rally, octogenarian Korean-Americans could be seen chanting the cries in phonetic English alongside second-generation college students, while the pumulnori players accompanied the unified voice; and one elementary schoolgirl read a letter to the mayor at the end of the rally; pastors, community leaders, college student organizers, and the president of the Palisades Park Chamber of Commerce all gave their common views in regard to the incidents that led to the rally. The thoughts and opinions presented here are derived from the my observations of the events at the rally.

Almost ten years ago, one probably would not experience this kind of assembly.

In 1988, Kim Sung Soo, president of the Korean Small Business Service Center of New York, states:

There is an increasing degree of violence aimed against Asians... [The] problem is conflict developing between Korean shopkeepers and their neighbors. These are intensified by poor understanding of other ethnic cultures, orientation of business which emphasizes the maximizing of benefit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business as goal, and different legal cultures that the Koreans experience in the states. The third problem is low access to political power and government. Koreans are much more silent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and grievances [Kim Sung Soo cited in Park K., 155].

We might like to say that Kim is indeed incorrect in terms of the present-state of the Korean community. The new minjok has cut the silence, and, as evidenced in the Palisades Park rally, Korean-Americans are now more aggressive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and grievances. With the development of such an ethnic solidarity, we have witnessed the inherent start of community.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has become a single unit, rather than a unit comprised of different interest groups.

Korean-Americans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results, that the new minjok has been defined, and that they are finally part of a singular whole. However, even ten years ago as Kim Sung Soo stated, it is not necessarily repression that should be the call for community. The demonstrators at the March First Movement are perhaps legitimized in their goal: that

s, to express discontent and to encourage the progression of their independence. Song Chin-u and Kim Sung-su utilized a valid sense of the term minjok. Yet, i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entitled to such a degree of protest? As in most conflicts, there is more than one group involved, there are always two sides to a debate. We cannot call the incidents of Palisades Park protest, necessarily. Kim Sung Soo notes differences which arise out of culture and society. He may appear to imply that this is not the Korean-American kukka[國家] but the American kukka called mikuk[美國], not hanguk[韓國]. When we see the proliferation of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Palisades Park, in Flushing, in Los Angeles, there seems to be a Korean claim to the land in which they live; they seemingly wish to establish their own kukka in a land which is not their own, but belonging to everyone else. Therefore, there exists another communal responsibility, not of the minjok of the Korean people, but of the minjok of the American people. To be a Korean-American does not mean one is a Korean living in America, but an American who is Korean. As the old saying goes,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Thus, the fine line between being a Korean nationalist and an American citizen is made for every Korean-American to decipher. And to decipher we must all attempt in order to define the minjok that is inherent in our own cultural identity.

<Bibliography>

1) 1,000 Rally for Korean-American Merchants Who

Fear Backlash of Bias in Palisades Park, New York Times, 24 November 1999, p. B6.

2) Armstrong, Charles. lecture, 1 December 1999.

3) Cumings, Bruce. Korea 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4) Eckert, Carter J.,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Seoul: Ilchokak, Publishers, 1990.

5) Hurh Won Moo and Kwang Chung Kim.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aptive Adaptation.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4.

6) Kim Illsoo.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7) Park Kyeyoung.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8) Suh Kuk-sung et al, eds.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A History of Legitimacy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ROK, 1983.

9) my e-mail correspondence with Julie Young Oh, 29 November 1999.

10) Bell, David A.. 'An American Success Story: The Triumph of Asian Americans', The New Republic (1985): 232-239.

11) Palisades Park Chamber of Commerce website, <http://www.ppchamber.com>, visited on 18 December 1999.

12) Kang Younghill. East Goes West. New York: Kaya Production, 1997.

독자 투고 요청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우리동문들의 글을 모아 지성인으로서의 우정을 나누는 지면입니다. 또한 전체 동문들이 취재자가 되어서 자신과 동문 선배들과 그 가족들의 소식을 나누는 지면입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소신과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SNUA OPINION LEADER

단백질 p43의 항암효과 발견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종 암 가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위암이며, 사망 1위는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05년 암 사망자수는 2000년에 비해 12% 정도 증가해 2001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 30만9천8백여 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나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지만 최근 국내 한 교수가 4년간의 연구 끝에 p43이라는 단백질이 항암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를 발견한 金成勳교수로부터 p43이라는 단백질에 대해 들어보았다.

모교 약학대학 창의적 연구진흥사업단인 단백질 합성효소 네트워크 연구단에서는 지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ARS(단백질합성효소)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 p43가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ARS는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정보를 단백질로 해독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생명체의 필수 효소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단은 인간과 같은 고등세포생물의 경우 이들 효소가 본연의 효소 기능 외에도 세포사멸 및 성장 등을 조절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 주요한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간의 20가지 서로 다른 ARS들의 세포 조절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43이란 ARS에 결합해서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지난 20여 년간 그 기능에 대해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단에서는 p43이 세포 내에서 ARS들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논문을 발표했다(J. Biological Chemistry 274, 16673-16676, 1999).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단백질이 특수한 조건이나 조직에서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신호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 p43이 조절하는 신호 전달 과정에 연계를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비된 p43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의 형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p43의 이러한 기능은 암의 성장을 조절하는 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체내의 면역 시스템들은 인체에 유입되거나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병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암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체내의 면역 세포 활성화는 암의 제거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면역 요법은 현재 암 치료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암은 발생하는 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특히 고형암의 경우 암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혈관 형성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암세포에 의한 혈관 형성 과정

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진행을 조절하는 방법은 최근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제약회사와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p43은 암의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위암·결장암 억제효과 커

新기능 항암제 개발 가능

두 가지 생리적 과정에 작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의 투여 방법과 적용 대상을 찾을 경우, 새로운 항암물질로 개발될 수 있다고 기대돼 본격적으로 그 임상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들에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p43의 기초 및 약리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본 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분리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의 p43 발현 유전자를 대장균에 이입,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분리 정제 방법을 구축했다. 정제된 p43의 구조 분석은 향후

그림 1) 위암모델에서 p43 투여에 의한 생존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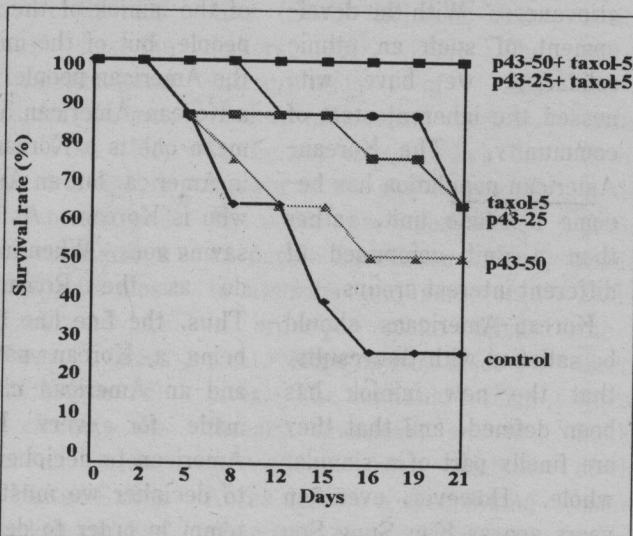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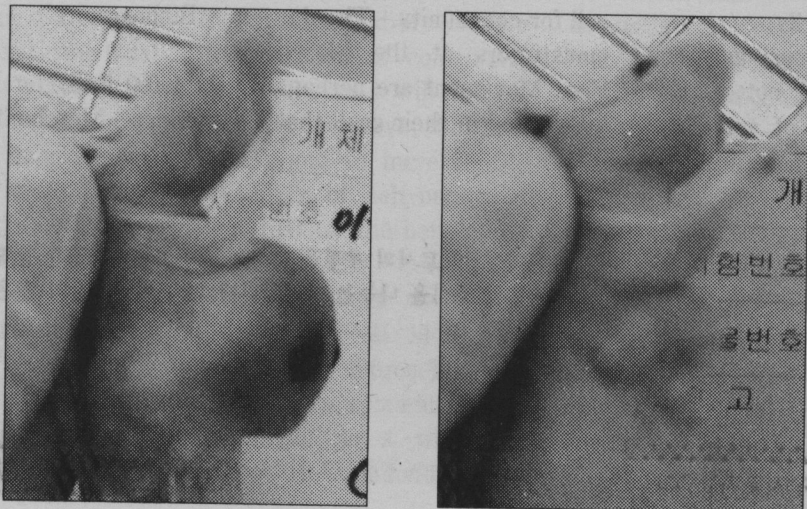


그림 2) 위암모델에서 p43 투여에 의한 암 성장 억제 효과



p43을 투여하지 않은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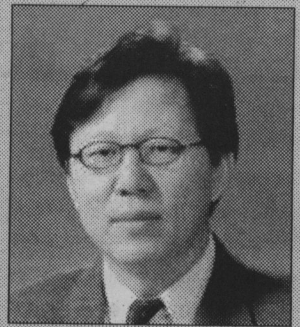
p43을 투여한 쥐

p43의 약효 개선이나 대체약물 개발 등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3차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또 p43의 체내 약리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규명했고, 혈관내피 세포를 사멸시키는 과정에서 p43이 결합하는 수용체를 발견했다. 동시에 p43의 생리적 환경에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p43이 결여된 마우스(mouse)를 제조함으로써 p43의 기능 및 효용성 분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p43을 이용한 새로운 항암물질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과 연구 개발을 위한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동물 모델을 이용한 항암 효과 검증 실험을 개시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인간의 섬유육종을 이식한 실험용 마우스에 직접 p43을 투여했다. 그 결과 암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실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폐, 위, 간 및 결장암 등에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한 실험에 착수했다. 정맥을 통한 투여 방법을 실시한 결과 위암과 결장암에 대해 특히 유의성이 있는 암 억제 효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3차에서는 국내의 전문 시험기관을 이용, 인간의 위와 폐암 모델에 대해 p43 단독 및 소량의 택솔과의 병용 투여를 실시했다. 3차 시도에서는 복강 내 투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위암에 대해서는 p43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이 약 25%인데 비해 p43 단독 투여 시는 50~70%, 소량 택솔의 병용 투여 시는 생존율을 100%까지 유지했다. 또 암의 성장도 비교군에



金成勳

- 1981년 모교 약대 졸업
- 1983년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 1991년 美브라운대 대학원 박사학위
- 1991~1994년 美MIT 박사후 연구원
- 1994~2001년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부교수
- 현재 모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단백질 합성효소 네트워크 연구단장

비해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그림 1, 2 참조).

암은 현재 선진국 기준으로, 심장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사망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과학 및 제약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 방법은 수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도 생존율과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나 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노바티스사의 글리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는 암 사망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좋은 치료제나 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다. 최근에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국내에서도 과거부 프리엔터 사업단의 하나인 인간유전체사업단에서 한국인의 호발성 암인 위암과 폐암에 대한 연구에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혈관 형성 과정을 작용점으로 하는 항암제의 개발은 미국의 포크만 박사가 그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현재 혈관 형성 과정 중 각 단계를 작용점으로 하는 신규 화합물이나 인간 유래의 새로운 혈관 형성 조절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p43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현재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물질은 angiostatin과 endostatin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국내와 미국, 일본 등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5편의 국제 논문 외에도 수 편의 논문이 심사중이거나 준비중이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돼 연구내용의 일부를 발표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된 생명과학의 기초 연구 결과가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효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新기능 항암제의 개발에 주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가주 소식

모교 音大 연주단 LA 공연 성황리에 개최 200여 청중 기립 박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남가주 동창회와 남가주 음대 동창회가 주관한 모교 음악대학 순회 연주회가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국 종합교육관 (680 Wilshire Pl., L.A., CA 90005) 에서 열렸다. 서양 고전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한 10명의 동문 음악도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으로 동서양의 화음을 노동절 연휴주말임에도 불구하고 200석의 공연장을 꽉 채운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참석한 음악애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주가 매우 훌륭하였다며 전원 기립박수로 모국에서 온 동문 음악도들에 답례하였다.



회장, 김창무 이사(53), 이우근 이사(50), 박인옥 회계(65), 이성웅 감사(58), 조은희 총무, 최명룡 및 윤길숙 부회장)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님들 (가정대 윤순재, 간호대 김수향, 공대 정황, 농대 지종근, 문리대 김건진, 미술대 김옥경, 법과대 이태로, 사범대 주영세, 상대 심상은, 수의대 문홍식, 약대 김정선, 음대 임선영, 의과대 강명식, 치대 신구회장인 이수

남 및 이장길 동문과 대학원의 최추봉)께서 성공적인 음악회의 주체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셨다. 또한 남가주

동창회의 임낙균 회장 (약대 68졸)은 순회 연주단을 위하여 환영 만찬과 Universal Studio 관광으로 환대하였으며 김동석(음대 64) 동문은 송별연을 주최하여 후배동문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 연주회의 지원을 위하여 광고협찬 (임선영 미용실, 아주관광, Kim's 電氣, 용수산, 장기열 치과, 이청정 치과 및 송촌화원)을 해주신 동문 및 교민들과 화환을 보내주신 남가주 음악가 협회 (회장 노혜숙)에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대 동창회 신임회장 이수남 동문 (69년졸)

남가주 서울치대 동창회 신임 제 5대 회장에 이수남(치대 69년졸) 동문이, 제 4대 회장의 이장길(치대 70년졸) 동문의 후임으로 취임

하였다. 신임 이수남 회장의 연락처는 626-350-0969 이며, 전임 이장길 회장의 연락처는 323-581-0100 이다.



치대 2대회장 이장길동문(사진 왼쪽) 이고 신구회장이 이취임식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순회 연주회

연사말

비즈니스 중에 이렇게 서울대학 음악대학과 마주 순회 공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여 남가주 서울대학 동문들의 이틀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우리 미주 교포들과 동문들에게 고국의 높은 예술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순회단원과 지도 교수님들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문들께서 모시고 오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 오늘 제복은 우리 서울대 음악대학의 재원들이 여러분들을 환상적인 음악의 세계로 모실 것입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정신적 수양과 내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을 보고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랑스런 음악대학 재원들이 이곳에 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물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가 두고두고 고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문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임낙균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순회 연주회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한국종합교육관 (한미로449번)
680 Wilshire Pl., L.A., CA 90005
(323) 581-0100

주최: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주관: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주최: 한국일보, 중앙일보



모교 연주단을 환영하는 만찬후 기념촬영한 연주단과 남가주 동문들

Hollywood Bowl 동창가족의 밤 성황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남가주 동창 가족의 밤이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Hollywood Bowl (Highland Camrose Picnic Area #15) 에서 열려 Tchaikovsky Spectacular의 연주를 들으며 오희조, 방석훈, 광철, 이종도 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모여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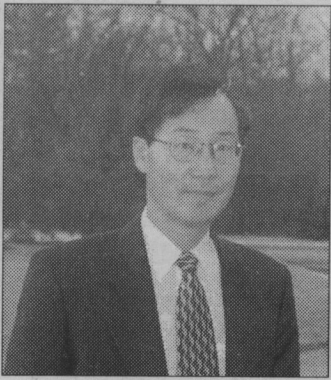


뉴잉글랜드소식

자랑스러운 同門

Nanotechnology 선구자

최홍균 박사 (공대 69입)



Kopin Corporaiton (Taunton, MA 소재)의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일하고 있는 최홍균 박사 (공대 69입)는 Nanotechnology를 이용한 청색 Light-emitting diode (LED)의 결과를 Applied Physics Letters (2002년 7월 29일)에 발



최 박사의 새 제품 개발을 축하하는 동문들 사진제공 윤희경(문리대 62입) 동문

표하였다. 청색 LED는 Gallium Nitride라는 반도체를 결정 상수 (Lattice constant)가 다른 Sapphire 위에 기르기 때문에 결

함이 많아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데, 최 박사와 Kopin 연구진은 빛의 발생을 결합의 간격보다 작은 NanoPocket 에 국한시킴으로써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LED의 작동 전압을 기존의 3.3 Volt 이상으로부터 2.9 Volt 미만으로 줄임으로써 전력 소비를 한층 줄일 수 있었다. NanoPocket는 Galtium Nitride와 Indium Gallium Nitride를 기르는 과정에서 Indium Gallium Nitride의 두께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킴으로써 형성되는데, 두께가 큰 지역은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전자와 양성자가 이곳에 모이게 된다. 청색 LED는 자동차, 산업용, 배터리로 동작되는 휴대전화기, PDA, 캠코

더,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자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규모가 10억불 이상이며 앞으로도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청색 LED는 또한 황색 Phosphor와 합하여 백색광을 만들 수 있는데, 백색 LED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효율이 더욱 증가되면

기존의 전구를 대체하는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母校 복싱팀 LA서 韓美 친선대회

모교 복싱부(지도교수 全泰源) 소속 재학생 8명이 재미대한권투 협회(회장 정왕기)의 초청을 받아 남가주를 방문하여 8월 15일(목요일) LA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친선 권투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한미 학생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자 LA 한인협회와 미국 아마추어 복싱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포츠 제전이였다. 이번 대회에는 모교6 체육교육과 全泰源 교수를 비롯해 김용호 감독, 장광일 코치 등 6명의 임원과 양정인(농경제 사회학부 4년·女·플라이급), 박찬명(농경제 사회학부 4년·라이트웰터급), 김동범(조소과 4년·라이트미들급), 최종희(조소과 4년·미들급), 이태원(재료공학부 3년·밴텀급), 이

신성(농산업교육과 2년·페더급), 오용화(지구환경 과학계열 2년·라이트급), 조희준(건축학과 2년·웰터급)군 등 재학생 8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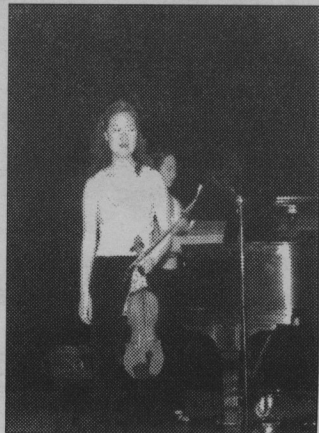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2세대

딸부잣집의 경사와 막내딸 Lisa 연주회

뉴잉글랜드지부 동창회 동문 중에 딸부잣집을 꾸리게되면 박영철 동문(농대 64입)이 제일먼저 꼽히는데 "어떻게 딸만 넷을..." 하기 전에 그 따님들을 이해하여야 된다. 딸 넷은 모두 Lexington High school 에서 class president를 지냈던가, valedictorian의 영예를 차지한 수재들이며, 모두가 뛰어난 음악 연주인들로서 그야말로 모두가 뛰어난 才媛들이다.

지난 6월 2일에는 막내딸인



Lisa의 음악연주회

Lisa의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하

은 LED를 일반 조명에 널리 쓰게 되면 조명을 위한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미국에서만도 2020년까지 276 Metric Ton의 탄산가스 방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윤상래 특과원>



는 Violin 연주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Boston소재 New England Conservatory (Music College)에서 있었다. Solo와 Quartet를 겸한 1부와 2부의 연주였는데, 제 1부에서는 「Sonata No.1 in D major, Op. 12」를 연주하여,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매우 운치가 있는 표현을 하여주었고, 「Quartet in G minor, Op. 10」에서는 Lead Violinist로 동료들의 Violin, Viola, Cello 등의 연주를 시종일관 이끌어가면서도, 마치 싸늘한 가을밤의 달빛이 窓를 통해서 비쳐오듯 그 고요하고도 적막한 기분을 주는 듯, 아니면 그 고독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는 듯한 熱情的인 표현을 하여주었다. 이어서 제 2부의 연주에서는 「Quartet in C major, Op. 59, No. 3, "Rasumovsky"」를 경쾌하면서도 흥겨운 게 마치 구속에서 풀려난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는 듯한 연주를 보여주었으며, 「Concerto in D major, Op. 35 Allegro Moderatos」의 Solo Finale

의 연주에서는 가벼우면서도 감미로운 音律로 청중을 매혹시켜서, New England Conservatory 졸업연주회에서 수십번을 참석하였다는 NEC Hall의 단골(?)인 김문소(수의대 61입)동문은, "NEC 대학 졸업생 이상의 연주실력!!"이라고 극찬하였다.

더욱이 막내인 Lisa는 금년에 Harvard 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첫째딸인 Sue는 MIT에서 Chemical Engineering을 마친 후 Merck 제약회사와 Shell Oil Co.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 가을에는 Pennsylvania에 있는 Wharton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공부할 예정이며, 둘째인 Jean은 Harvard를 졸업 후, 여름을 이용하여 Washington Post에서 Internship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3일에는 동일간지의 전면에 "무료의료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 특히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고충"을 적나라하게 취재보도 하여서 유명한 기자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투고자 윤상래 특과원>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사업보고

서울대학교 재미동창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재신 공57입)는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과 이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보고와 사업보고를 하는 한편 2002-2003년도의 사업계획을 알려 주었다. 창립 5년째를 맞이하는 뉴잉글랜드 서울대학 동창회는 뉴잉글랜드의 한인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여, 지난 회계연도에도 정기총회, 신년파티, 골프대회, 주소록발간, 뉴잉글랜드 동문들을 위한 Website 시작 등의 서울대학교 동창회원들을 위한 연례행사와 함께, 한인학교, 노인회, 노인학교, 한인회, 재미과학자협회등 뉴잉글랜드의 한인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외에 Silk Road로 알려진 밤아시아 가정 반쪽력 자선단체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사회 봉사 에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이번 에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회장단과 임원들은 올 회계연도에도 같은 사업계획으로 서울대학교 동창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며 동창회원들과 이사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다고 전했다. 지난해 임원들이 금년에도 계속 수고하게 되나 그중 1년동안 재정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셨던 윤용훈 동문(공67입)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홍지복 동문(간 70입)이 수고하게 되었다. 참고로 뉴잉글랜드 서울대학 동문 동창회비는 일반회원은 60불 학생회원은 30불이며, 임원들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회장 이재신 (공57입) 508-923-0031
- 부회장정정숙 (의60입) 508-366-5580
- 총무변종원 (공70입) 508-366-2743
- 재정홍지복 (간70입) 401-789-5127
- 기획윤상래 (수62입)978-386-5510
- 권이덕 (공68입)781-861-8477
- 장학한병의 (문60입)978-371-7220
- 친교김동희 (간62입)781-862-7740
- 회원윤희경 (문62입)508-238-0960
- 편집조한준 978-441-0420
- 학생강명구 (공89입) 617-577-5900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 Website: www.snua.org

<투고자 변종원 총무>

뉴욕지구 소식

서울음대 순회연주단 뉴욕 공연

"만민을 즐겁게 한 수준 높은 음악회"

"약 400명의 청중을 매료시킨 수준 높은 음악회였다"고 한창섭 뉴욕지구 동창회장은 8월 19일 (월)에 뉴저지 잉글우드 에 있는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가진 서울대 음악회를 평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미국의 한국동포 100년 이민사상 한국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미국의 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음악회를 갖는 이번이 처음이며 또한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과 양악

하였다고 한희장은 말하고 이번 음악회가 광복 57주년과 9.11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뉴욕, 뉴저지, 컨네티컷 일원에 거주하는 동문들과 동포들에게 무료로 서울대 동창회가 선사하는 열린 음악회였다. 이번 음악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한 동문은 뉴욕지구동창회 이사장인 추재욱 동문(의대 63년졸), 차기회장인 김종을 동문(사대 55년졸), 이상복 동문(의대 62년졸), 이재광 동문(상대 65년졸) 그리고 엄만식 동문(대학원 67년입)이었다. 이들은 모두 연주단 학생들과 수행원의 민박을 맡았으며 3일간



그들의 뉴욕관광을 비롯한 모든 뒷바라지를 한 장본인들이었다. 이강홍 동문(상대 64년졸)은 20일 저녁에 연주단 단원들과 민박을 맡은 호스트들을 위하여 뉴저지에서 유명한 중국음식점인 중국성에서 웅숭한 만찬을 베풀고 연주단원들을 치하하였다. 이밖에 이들이 도착하는 18일에 김기태 동문(법대 74년졸)이 공항에서 연주단원들의 수송을 도와주었다. 청중들에게 무료로 선사한 이번 음악회에 든 경비는 약 5000여불이 소요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추재욱 이사장과 한희장이 부담하였다. 음악회가 끝난 후 뉴욕동창회는 연주단원들과 400명의 손님들에게 떡과 과일로 대접하여 이날의 음악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날 연주단원의 일원인 판소리의 주인공 이지람양이 마침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파티까지 겸하는 리셉션이었다 (아래 두번째 사진). 이날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영만 동문(상대, 64년 졸)은 "뉴욕에 20여 년간 살면서 많은 음악회를 보았지만 오늘 음악회처럼 좋은 음악회는 처음 보았다"고 극찬하였다.

열린 음악회에 대한 소감

鄭澤洙(문리대 50년졸업)



수 년전 尹炳玉 동문이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동창회장을 맡게됨을 계기로 뜻있는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동문간의 단합과 동포사회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와 염원으로 뉴욕에서 서울대학 음악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주로 기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음악회는 매년 계속되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뉴욕에서 있었던 서울대학 열린 음악회는 모교 서울대학의 후원아래 현재 모교 음대에 재학중인 10명의 후배들로 구성되어서 미국공연을 위하여 온 팀이었지만 매우 참신하고 훌륭한 음악회였다. 순서에 따라서 '오브에'의 우아한 음율이 장래의 정막을 깬 후 약 두시간 계속된 연주와 독창, 그리고 판소리 등은 미(美)의 극치였고 또한 우리 서울대학의 자

랑이었다. 나는 그 날의 후배 음악도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을 뿐더러 그와 같은 후배들이 있음이 자랑스럽기 짝이 없다. 부디 이와 같은 뜻있는 행사가 매년 있기를 바란다. 금년은 2002 World Cup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우수성이 전세계에 알려진 영광된 한해였다. 아무쪼록 가까운 장래에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하여 우리 서울대학의 명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이번 음악회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와 치하를 보낸다.



8월 19일 생일을 맞은 춘향 이사람과 그의 친구들



한창섭 뉴욕동창회장 (사진 좌)와 음대 연주단

신선한 和音의 충격

박상원 (음대 73년졸 뉴욕 음대 회장)

공자님 말씀에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니 군자의 즐거움이라 했다. 이번 서울대 음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이 음악의 선물을 가지고 7개 도시를 순회한 것은 젊은 우리 동문을 만나는 즐거움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자리를 함께 하고 예술허적인 만남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10명의 음악도들과 지도교수로 이루어진 이번 일행은 국악과 성악과 기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저명한 콩쿨 입상이나 연주를 통해서 실력이 높은 학생들이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연주회는 있었지만 재학생으로 구성된 순회연주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대 본부와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의 결단으로 결실을 본 이번 여행은 재정적으로 서울대와 본국의 총동창회가 경비를 후원하고 각지역 미주 동창회가 체제 및 연주장을 제공함으로써 선후배와 대학측의 협조로서 이루어졌으므로 Harmony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 여러 동문의 화음으로 이루어진 행사라 더욱 값지다 하겠다. 그들이 내가 사는 뉴욕에 오기 전에 이미 Chicago와 Kansas city에서 연주를 하였고 뉴욕다음에 필라, 워싱턴 DC., 애틀랜타, 미네아폴리스, LA의 도시를 짧은 기간 바쁜 여정으로 연주하게 되어있었다. 뉴욕에서는 김창섭 회장의 주선으로 뉴저지 연합교회의 협조로 연주회장이 마련되었다. 짧은 기간에 준비된 행

사이고 또한 한 여름 'off-season' 이라서 연주장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뉴저지 연합 교회가 음악회장을 제공함으로써 음악회장 마련에 필요한 경비가 절감되었고, 음악회는 입장료 없이 열리게 되었다. 많은 동문들이 음악도들의 체제에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동문애를 한껏 발휘해 주고 고맙기 그지없다. 아직까지 동문회가 재정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뉴욕 동창회에서는 매년 동문들의 「서울대 음악회」가 Lincoln Center나 Merkin Concert Hall에서 이루어져 왔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재학생 음악도들은 김휘곤의 대금독주를 시작으로 조환희 오보에, 문주원 첼로, 김윤경, 박선영 피아노, 송운신 바이올린, 정호윤과 손지혜의 성악, 김형섭 가야금, 이지람 판소리로 구성되어 그동안 연마한 실력으로 국악과 서양음악을 잘 조화시킨 프로그램으로 절찬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많은 콩쿨에 참가하여 입상경력이 있고 또한 많은 무대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연주뿐 아니라 무대 매너도 높은 수준이었다. 곧 사회에 나와 좋은 음악가로 활동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들이 이번의 짧고 바쁜 순회연주로 피로한 여정이 아니었나 걱정이 된다. 우리가 그들을 맞아 선후배의 정을 느끼고 음악을 즐기는 기회와 후학들의 정진하는 모습에 가슴 뚫듯했듯이 후배들도 이번 연주 여행을 통해 음악적 표



현력을 기르고 견문을 넓히는 산경험의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안스러움이 생긴다. 우리의 재학시절엔 꿈도 못꾸던 일이지만 이들의 신선하고 젊은 에너지의 음악을 대할 때 그들의 음악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월등히 향상된 것을 실감하면서 마음 든든함을 느낀다. 음악회가 끝나고 마련된 리셉션에서 많은 동문들이 좋은 음악회였다고 감탄하면서 이런 연주여행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계속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것이 계속되기에는 역시 본국의 동창회와 미주동창회의 이렇다한 화음이 계속되어야 하며 후학들의 음악성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듯이 그 후학들도 이번 연주 여행을 통해서 더 튼 음악가로 성장하는 작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모두가 감동을 주고 보람을 주는 화음의 결실을 맺게되리라 생각된다. 그래야만 이 연주여행을 위해서 수고한 재학생들과 총동창회, 미주동창회, 각 지역 동창회 그리고 행사에 봉사한 아끼지 않으신 동문들 그리고 음악회에 자리를 함께한 동문들의 화음이 아름답게 울려나올 것이라.

시카고 소식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02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본 동창회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아래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 5~7명
- 장학금 지정액 일인당 \$1,000
- 응모자격 시카고 및 인접지역에 거주(permanent address) 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자(유학생 포함)에 한함
- 응모마감
2002년 10월 23일
- 구비서류
 1. 원서 1통(지원서 용지는 www.snuaachicago.org에서 download할 수 있음)
 2. 추천서 2통(한 통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

회의 2000년도 회비를 납부한 동창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함)

- 3. 성적증명서
- 4. Essay

• 지원서제출처

Han E. Han
6 Eagle Pointe Dr.
Brrington, IL 60010
(Tel) 847-428-4929
(Fax) 847-428-4929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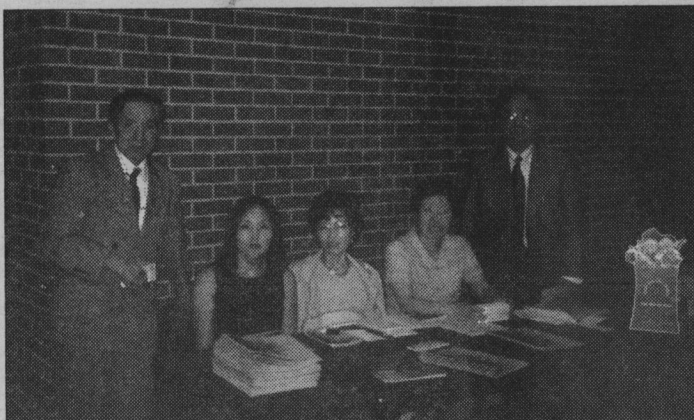
hankim@concentric.net
<비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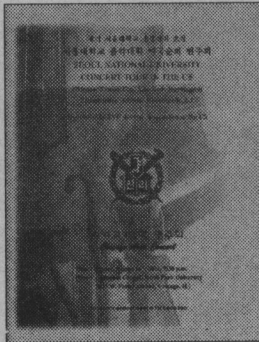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계획

- ◇ 1월 12일(토) 제 1차 임원회 한재은 회장대
- ◇ 3월 23일(토) 제 1차 이사회 Raddison Hotel, Lincolnwood
- ◇ 5월 11일(토) 제 2차 임원회 김동휘 부회장대
- ◇ 6월 14일 -16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 6월 16일(일) 춘계 Golf Outing
- ◇ 6월 22일(토) Picnic Busse Grove #12
- ◆ 9월 7일(토) 학생 동문 환영회
- ◆ 9월 7일(토) 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 ◆ 9월 일자미정 지역사회 봉사활동
- ◆ 9월 21일(토) 추계 Golf Outing
- ◇ 10월 5일(토) 제 2차 이사회
- ◇ 11월 2일(토) 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대
- ◇ 11월 30일(토) 총회 및 연말 Party



음대 연주단 시카고 공연 성황 300여 동문 冠岳의 和音에 매료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총동창회(회장 한재은)는 모교 서울음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미주 순회 연주단의 첫 공연을 주최하여, 지난 8월 16일(금요일) 7시 30분 시카고의 North Park University내의 Anderson Chapel에서 성대한 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방미한 연주자들은 10명의 탁월하게 유망한 모교 음대 학생들이며 김형배 교수님을 포함 모두 12명의 일행으로 시카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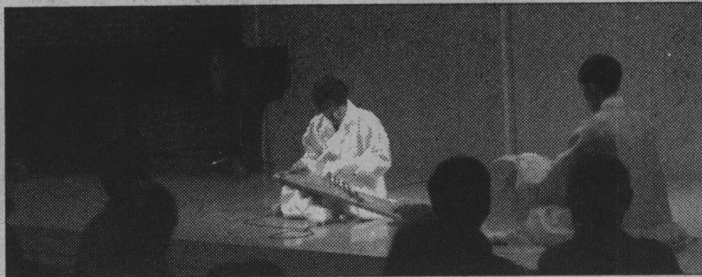
시작하여 계속 8개의 미주 중요도시들을 순방하면서 고국의 열이 담백 실린 아름답고 감회로운 음악으로 재미동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시카고에서의 공연에는 약 300여명의 청중들로 Anderson Hall의 좌석을 완전히 채웠으며 한재은 시카고 지역 동창 회장의 소개 말씀에 이어 이용라 미주 총동창회 회장의 인사와 취지사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김휘곤의 대금, 김형섭 학생의 가야금, 이자람의 판소리등의 국악 연주와 조환희의 오브에, 박선영의 피아노, 첼로의 문주원씨, 송윤신양의 바이올린, 소프라노 손지혜, 또 정호윤씨의 테너독창 및 듀엣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미로웠다. 이들의 다양하고 능란한 각종 음악의 연주는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시카고의 서울대 동문들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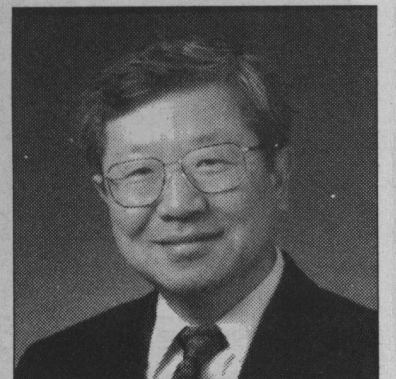
반 교민들에게 흐뭇한 음악의 잔치를 열어주었다. 9시 40분에 이자람씨의 판소리 출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후 곧 사진 촬영에 이어 환영, 축하 다과를 즐기면서 공연단과 아쉬운 짧은 시간을 함께 하였으며, 계속 이같은 연주회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음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짧은 준비기간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여러 시카고 지역 동창회 임원 동문들의 수고의 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한재은 회장을 비롯하여, 장기남 수석 부회장, 김동휘 부회장, 김영재 부는 물론 특히 이소정(음대졸) 동문은 프로그램 준비 등 홍보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장기남, 김동휘 부회장은 6명씩의 공연자들의 민박숙소도 손수 제공하였으며, 시카고 다운타운 관광, John Hancock Building의 95층 Signature Restaurant에서 Brunch 식사를 대접하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연주단은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8시 40분 비행기로 다시 또 만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연주를 위하여 Kansas City로 향하여 시카고를 떠났다 <투고자 시카고 지역동창회 이송자 총무>.



모교 음대연주단의 시카고공연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지면관계로 기명하지 못함).



정호 동문(재미총동창회 순회연주단 주관자)



이소정 동문(시카고 공연 주관자)

모교소식

제23대 총장에

경제학부 鄭雲燦교수 임명

지난 7월 20일 모교 제23대 총장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鄭雲燦교수가 임명됐다. (인터뷰 6~7면)

모교는 지난 6월 20일 전체 교수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한 鄭雲燦교수와 2위를 차지한 법학부 宋相現(63년 法大卒)교수를 제23대 총장 후보로 선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鄭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鄭교수는 전체 교수 1천3백 91명 가운데 1천2백10명이 참가한 연기명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6백67표를 얻어 최다득표자가 됐다.

신임 鄭총장은 1970년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72년 미국 마이애미대 대학원 석사학위, 76년 프린스턴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 금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우재단 이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장, 모교 사회과학대학장을 맡아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崔先珠(73년 美大卒)동문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에 成相哲개원준비단장 선임

모교 병원(원장 朴容喆)은 지난 7월 11일 오전 8시 연건캠퍼스 시계탑건물 제2회의실에서 간담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成相哲개원준비단장(사진)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장에 선임했다.



정이다.

成원장은 현재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수인력의 확보, 의료진 연구여건 조성, 부족한 재원의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成원장은 73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81년 의대 정형외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의대 부학장, 진료부원장, 대한스포츠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올해 11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 3월 모의환자 진료를 시작으로 외래환자 부분진료를 거쳐 6월 개원과 동시에 진료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병상 수는 4백 병상으로 개원한 후 2005년까지 8백 병상으로 확대할 예

모교 소식 직접 보세요

대학신문은 이곳으로

<http://www.snu.ac.kr>

<http://www.snupi.com>

부총장에 鄭明熙교수 취임

교무처장에 金宇哲교수

지난 7월 23일 모교 부총장에 의대 약리학교실 鄭明熙교수가 취임했다. 또 교무처장에 자연대 통계학과 金宇哲교수가 선임됐다.

鄭부총장은 71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대 교무부처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대한의학회가 수여하는 분수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金교무처장은 71년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장, 교무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鄭明熙 부총장



金宇哲 교무처장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金仁竣교수



지난 7월 16일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金仁竣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김학장은 71년 모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연구부처장, 경제학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雙)

부교수 이하 정년

연구실적 미달시 인정 못받아

모교는 지난 7월 10일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개정 규정」을 확정, 올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정교수와 함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는 앞으로 세계 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 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 단체의 학술상 수상경력자 등을 제외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교수, 조교수 등 전

임교수가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경우 승진 소요연한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사때 저서와 번역물,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공동연구물의 경우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가려 연구실적물 인정점수를 차등화한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공동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전 규정에서는 공동연구물을 자신의 실적으로 제출하면 제1저자와 책임저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수를 부여했다.

재직교수들도 재계약과 승진 심사때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일 경우에만 공동연구물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랑스런 서울대인」 열두 번째 후보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모교 기획담당관실(전화: 880-5081, 5082)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13회 「金壽根문화상」 수상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설계

黃一仁(공대 63년졸, 건축가)



제 13회 「金壽根문화상」 수상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설계 黃一仁(공대 63년졸, 건축가) 건축가 黃一仁(63년 工大卒, 일건건축 대표) 동문이 지난 6월 14일 2002년 「金壽根문화상」을 수상했다. 「金壽根문화상」은 국내 유수한 건축 관련상으로 1989년 金壽根 문화 재단이 故 金壽根 동문을 기리는 의미로 제정, 올해로 13회를 맞게 됐다. 故 金壽根 동문은 1950년 母校 工大에 입학한 후 2년간 수학했으며, 1957년 일본 도쿄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월간 「공간」 대표, 건국대·국민대 교수, 건축

가 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마포에 있는 동창회관을 설계한 바 있다.

黃동문의 수상작인 「제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은 건축 전문위원회와 심사위원단에서 추천한 9개의 작품 중에서 심사, 선정됐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대부분의 관중석을 도로면 아래에 설치하고 지붕은 관중석의 한쪽만을 덮어 지상부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변 자연 질서와 경관을 보존하는 등 대형 건축물로는 드물게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과 제주의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한 黃동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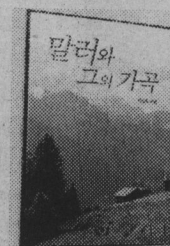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5월 11일 「미국건축가협회(AIA)」가 외국의 저명한 건축단체장에게 수여하는 AIA Presidential Medal을 받았으며, AIA의 명예회원(HAIA)으로 추대됐다(서울동창회보 292호 25면, 안응섭 기자 보도 전재).

新刊

말러와 그의 가곡

—李慶淑 著



모교 음대 성악과 李慶淑(55년 音大卒)명예교수가 오스트리아 작곡가 말러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 관련자료를 함께 제시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

세계적인 성악가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을 키워낸 원로 소프라노인 저자가 말러가 자신의 생애를 비쳐 작곡한 가곡들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써내려간 책이다. (삼과삼출판·값9,000원)

동정

수상

▲**朴泰源**(49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지난 7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7회 성곡학술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오는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미술부문)을 수상한다.

▲**蘇光熙**(5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명예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수상한다.

▲**盧賢模**(61년 師大卒·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李在淑**(63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오는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부문)을 수상한다.

▲**金武鉉**(65년 工大卒·진아건축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지난 7월 22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盧承卓**(66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오는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7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다.

▲**鄭翼株**(72년 工大卒·일산 부사장)=지난 7월 5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여하는 제26회 한국 경영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철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用熙**(77년 自然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

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朴京淳**(81년 美大卒·국민대 교수)=지난 7월 4일 미술전문지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13회 한국미술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됨.

▲**崔惠實**(84년 師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7월 10일 문학사상사가 주관한 제13회 김환태 평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朱 鍵**(97년 醫大卒·모교 신경과학교실 전공의)=지난 7월 5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년 슈바이처상 시상식에서 전공의 학술상을 받음.

이동·선임

▲**黃秉泰**(58년 商大卒·前주중대사)=지난 6월 25일 경산대 제4대 총장에 선임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 총장)=지난 7월 8일 프라자호텔에서 한양로타리 제47회 회장에 취임함.

▲**金基容**(60년 醫大卒·인제대학장)=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2002년 AO학회(골절내과정연구학회) 이사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명예학술이사에 선임됨.

▲**康容植**(63년 法大卒·前국회의원)=지난 7월 11일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됨.

▲**鄭鎮龍**(65년 法大卒·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7월 12일 국회사무처 임법처장에 임명됨.

▲**權旭鉉**(66년 工大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7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자동제어 연맹(IFAC)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선출됨.

▲**黃鎮浩**(66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5일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錫友**(67년 法大卒·前통일부 차관)=지난 7월 11일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됨.

▲**禹義濟**(67년 商大卒·前의환은행 부행장)=지난 7월 2일 하이닉스반도체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됨.

▲**李聲九**(67년 商大卒·서울시의회 의원)=지난 7월 9일 제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갈 의장에 선출됨.

▲**朴性洙**(68년 師大卒·前전주대 총장)=지난 8월 1일자로 명지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金永哲**(69년 農大卒·前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지난 7월 22일 한국전력 중부발전(주) 사장에 내정됨.

▲**金一燮**(69년 商大卒·이화여대 교수·冠岳會 理事)=지난 7월 23일 이화여대 경영부총장에 임명됨.

▲**成光元**(70년 師大卒·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지난 7월 2일 법제처 차장에 임명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행자부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장)=지난 7월 8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됨.

▲**許雲那**(71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7월 2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IT의원연맹(IPAIT)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경영대학장)=지난 7월 1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인 펠로(Fellow)로 추대됨.

▲**朴鍾萬**(73년 文理大卒·동양시멘트 상무)=지난 7월 22일 동양제철 대표이사 전무에 선임됨.

▲**金相喜**(73년 法大卒·서울고검 차장검사)=지난 7월 9일 제주시검장에 임명됨.

▲**朴純一**(73년 商大卒·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7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5대 원장에 취임함.

▲**具滋鎬**(73년 新大院卒·前서울예술단 이사장)=지난 7월 23일 세종문화회관 2기 이사장에 선임됨.

▲**張錫孝**(74년 農大卒·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 임명됨.

▲**金炳基**(74년 文理大卒·재정경제부 국고국장)=지난 7월 23일 대통령 정책비서관에 임명됨.

▲**元世勳**(74년 法大卒·서울시

편집주간석

서울대 人名錄 발간에 부쳐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동창회 제19대 집행부가 지난 3월 출범했습니다.

「자신에는 엄격하고 타인에는 관용을」이라는 도덕적 원칙과 「정상화와 자율」이라는 모교의 개혁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제23대 서울대 총장으로 鄭雲燦박사가 얼마 전 취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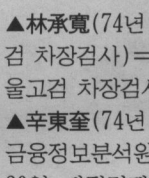
즈음하여 RAW DATA기준으로 28만6천명의 서울대인을 한데로 묶은 「서울대 人名錄」이 마침내 발간되어 우편배송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인은 이제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의 인적자원을 명실상부하게 HUMAN NETWORK化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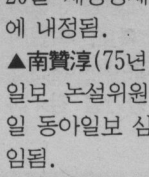
도덕적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가사회에 무한봉사를 실천하는 서울대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일어서는 서울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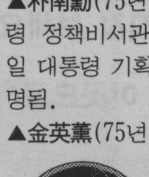
상수도사업본부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에 임명됨.



▲**林承寬**(74년 法大卒·부산고검 차장검사)=지난 7월 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됨.



▲**辛東奎**(74년 商大卒·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지난 7월 20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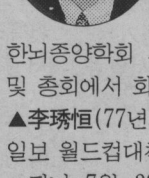
▲**南贊淳**(75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심의연구실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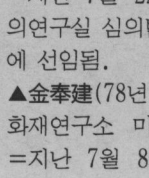
▲**朴南勳**(75년 文理大卒·대통령 정책비서관)=지난 7월 23일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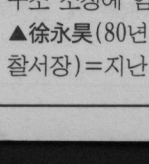
▲**金英薰**(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지난 7월 10일 창업투자회사인 바이넥스트 하이테크 대표이사 회장직을 겸임함.



▲**丁憲源**(75년 醫大卒·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29일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뇌종양학회 제12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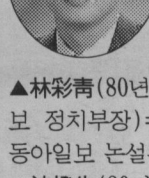
▲**李琇恒**(77년 人文大卒·동아일보 월드컵대책본부 사무국장)=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심의연구실 심의팀장 겸 연구팀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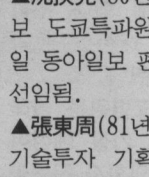
▲**金奉建**(78년 工大卒·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지난 7월 8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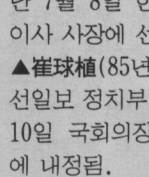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라당 부대변인)=지난 7월 1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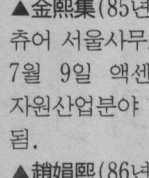
▲**林彩靑**(80년 法大卒·동아일보 정치부장)=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沈揆先**(80년 師大卒·동아일보 도쿄특파원)=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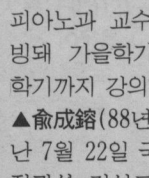
▲**張東周**(81년 大學院卒·한국기술투자 기획관리본부장)=지난 7월 8일 한국기술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球植**(85년 社會大卒·前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지난 7월 10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에 내정됨.



▲**金熙集**(85년 經營大卒·액센츄어 서울사무소 부사장)=지난 7월 9일 액센츄어 동북아시아 자원산업분야 총괄대표에 선임됨.



▲**趙娟熙**(86년 音大卒·前경희대 강사·피아니스트)=최근 미국 University of Nevada at Reno (UNR) 음대 피아노과 교수(Lecturer)로 초빙돼 가을학기부터 2004년 봄학기까지 강의한다.



▲**俞成鎔**(88년 社會大卒)=지난 7월 22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건설교통정책과장에 임명됨.



▲**李丞蕙**(96년 音大卒·피아니스트·위스콘신대 박사과정)=최근 일리노이주 소재 밀리컨 유니버시티 부교수로 부임함.

▲元東赫(16기 AMP·오일코퍼레이션 대표)=지난 7월 1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에 취임함.

▲李鈞範(16기 AMP·前전남도지사)=지난 7월 10일 전남 나주 동신대 제4대 총장에 선임됨.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장)=최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USC(남가주대) 한국총동창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嚴宗鎰(22기 AMP·前건영사장)=지난 7월 15일 새천년실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振瑩(43기 AMP·비비안전무)=지난 6월 28일 (주)비비안 대표이사에 선임됨.

▲趙富英(12기 ACAD·국회의원)=지난 7월 8일 제16대 국회 부의장에 선출됨.

▲朴寬用(18기 ACAD·국회의원)=지난 7월 8일 제16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선출됨.

▲金承珪(7기 SGS·서울시 환경

관리실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임명됨.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백병원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7월 20일 롯데호텔에서 「백병원 70년과 한국 현대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백병원 창립 70주년 학술대회를 가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협 회장·本會 會長)=지난 7월 13일 세종호텔에서 충북협회 정기총회와 충북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축하모임을 가짐.

▲梁巨煥(57년 工大卒·사단법인 ITS Korea 부회장)=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COEX에서 제5차 아시아·태평양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서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

▲金鎮炫(58년 文理大卒·동해연구회장·本會 副會長)=지난 7월 24~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 과학원 극동 태평양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제8회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지난 7월 12일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권력형 비리와 윤리문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韓昇洙(62년 醫大卒·한일병원 이사)=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KEDO병원 개원식에 참석했으며, 직원 격려차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방문함.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롯데호텔과 흥천대명콘도에서 제3회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개최함.

▲金亨圭(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한국피아노학회 회장)=지난 6월 20~21일 충남 천안시 이원문화원에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명예교수인 한스 레이그라프 교수를 초청, 제12회 피아노 심포지엄을 개최함.

▲崔圭鶴(65년 行大院卒·한국소비자보호위원장)=지난 7월 24일 테오도르 발렌틴 퍼케리어 루마니아 경쟁위원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양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함.

▲崔仁基(66년 法大卒·前행정자치부 장관·법무법인 세종고문)=지난 7월 23일 용인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민선3기 신입시장, 군수 대상 지방자치연찬회에서 「한국지방자치의 과제와 방향, 그리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함.

▲李炳勳(66년 醫大卒·소아과 의원장·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자문위원)=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 협회 제85차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함.

▲李但悅(67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지난 8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음대 강당에서 독창회를 열고 이에림(01년 音大卒)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등의 가곡과 한국가곡을 선보임.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지난 7월 11~12일 강원도 속초 농협수련원 설악관에서 「세계화시대 한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에 동문 6명 선출

대한민국 학술원(회장 李鎬汪·54년 醫大卒)은 지난 7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車河淳(56년 文理大卒·서강대 명예교수), 金容稷(58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金瓊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權肅一(58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金容九(61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학과 교수), 朴相大(60년 文理大卒·모교 생명

과학부 교수)동문을 신임 회원으로 선출했다.

또 李희장과 金泰吉(4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명예교수)부회장을 제29대 회장단으로 재선임했다.

한편 인문사회과학부 회장에 金雲泰(48년 文理大卒·모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자연과학부 회장에 朱鈔淳(47년 醫大專門部卒·고려대 명예교수)동문이 연임됐다.

(變)

국농업의 진로」라는 주제로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權五得(68년 文理大卒·景山복지재단 회장)=지난 7월 10일 저소득가정 초·중학생 1백 21명에게 제2차 愛田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함.

▲李鎮學(72년 醫大卒·모교 안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연구소장)=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산업제품에 대한 안정성·기능성 평가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7월 14일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열린

2002년 세계언론학회(ICA) PR 프리컨퍼런스 워크숍에서 「한국PR산업의 현황과 전망」의 주제발표를 함.

▲宋翹鎬(82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최근 세계적인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Verlag)에서 「ADVANCED THEORY OF SIGNAL DETECTION」이라는 책을 펴냄.

▲李忠範(82년 法大卒·변호사·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7월 6일 서초동 늘부지에서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재한 베트남 유학생을 초청, 한국외대·청운대 베트남어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한 베트남 유학생 모임을 가졌다.

▲金旻輝(84년 音大卒·보석디자인사)=지난 6월 11일 이태리 비첸차에서 열린 Gold Virtuosi 2002에 Finalist로 선정돼 세계 주요도시에서 1년간 작

품을 전시할 예정임.

▲徐教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7월 23일 순천향대 향설기념중앙도서관에서 고교생 2백여 명이 참가한 「이충무공 전승지 해상·국토순례 행사」의 발대식을 가짐.

▲李恩淑(85년 美大卒·건국대 강사)=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초대로 「사계」를 주제로한 작품전을 가졌으며, 과천 재미미술관의 「우리들의 얼굴전」에 작품을 출품함.

▲朴昭映(96년 美大卒·대구예대 강사)=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관계와 소통 - 도심의 은빛물결」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전을 가짐.

▲李 沁(32기 ACAD·한국주택신문 사장)=지난 7월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8회 「2002 주택문화상」 시상식을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솔바람이 타는 악보없는 가락/소리없는 시, 색없는 그림 -李炳漢 著



모교 중어중문학과 李炳漢(56년 文理大卒)명예교수가 일간신문에 1일 1제로 연재되었던 내용을 두권의 책으로 엮었다.

「솔바람이 타는 악보없는 가락」은 중국 고대 한시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내어 현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나 상황에 대해 현대인들에게 유익한 지적을 제시하고 있다. 「소리없는 시, 색없는 그

림」은 현대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면의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을 옛 선현들의 한시에 담겨 있는 그들의 정신사에서 찾고 있다. (도서출판 역락·값10,000원/값9,000원)

公演

■金祐廷 첼로 독주회 -8월 26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金祐廷(93년 音大卒)동문이 독주회를 갖는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수석, 한국페스티벌앙상블과 첼리스트 디아모르 단원으로 활동 중인 金동문은 이날 단치,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新刊

■젊은 날의 이승만 -柳永益 著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인 柳永益(60년 文理大卒)동문이 梨花莊에 秘藏되었던 「우남 이승만 문서」를 바탕으로 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청년기 초상화이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 박사가 독립협회 멤버로서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한성감옥에 투옥돼 5년 7개월간 囹圄생활을 할 때의 사상과 활동을 구명했다. (연세대출판부·값15,000원)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7월 1일 이후 납부자 9명 추가)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기주	399 <p>민대홍(상대 62입) 이해영(공대 56입) 성민경(공대 65입) 손수웅(수의대 62) 이상웅(올대 58입)이호진(\$100 약대 47입) 김 영(수의대 63입) 노재량(문리대 56입) 림원규(문리대 57입) 김희창(공대 57입) 정한규 나승욱(문리대 59입) 이 승(공대 59입) 이광재(공대 59입) 김근진(문리대 62입) 조종훈(의대 56입) 박홍섭(문리대 ?) 박재덕(상대 52입) 김철환(상대 59입) 박성욱(상대 58입) 김정태(법대 ?) 오동석(의대 72입) 노재민(문리대 49입) 민영기(\$100 차대 61입) 김철환(공대 57입) 김동훈(수의대 55입) 김혁환(공대 64입) 전호선(수의대 67입) 이용선(상대 45입) 백옥자(올대 71입) 장상엽(상대 53입) 윤방현(사범대 53입) 홍상에(의대 60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손학식(공대 61입) 강영모(공대 84입) 김홍서(의대 63입) 박한영(차대 56입) 정민영(의대 51입) 강일성(상대 55입) 김성복(공대 59입) 김현진(농대 58입) 배효식(문리대 52입) 홍사일(농대 49입) 김근빈(법대 63입) 이영일(문리대 53입) 김학천(차대 71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조만연(상대 58입) 이승규(차대 66입) 신정현(미술대 59) 박진국(의대 67입) 김성욱(차대) 정인환(법대 60입) 조영서(미술대) 성정경(문리대 62입) 김정자(사범대 52입) 권영달(문리대 50입) 유의영(문리대 56입) 한원민(의대 59입) 문병권(상대 55입) 양윤집(사범대 49입) 김병자(\$ 100. 차대 57입) 현승일(문리대 58입) 최재윤(문리대 54입) 진선준(사범대 53입) 권이덕(올대 69입) 이창신(법대 57입) 김병욱(의대 49입) 김광자(의대 62입) 신우천(차대 64입) 한홍택(공대 60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규희(의대 72입) 강일선(의대 44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올대56입) 김원경(의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서규(공대 66입) 양은석(올대 70입) 이순희(올대) 김용선(의대 55입) 고재천(공대 57입) 김달준(의대 50입) 임희식(차대 59입) 권기홍(의대 60입) 최경윤(사범대 51입) 양준호(차대 68입) 최범식(차대 56입) 신두수(차대 63입) 고석규(차대 65입) 지인수(상대 59입) 백남하(의대 59입) 육중훈(상대 67입) 김구자(미술대 61입) 이종희(공대 53입) 방윤자(문리대 59입) 한해순(간호대 70입) 노병일(경성법학 41입) 홍훈정(올대 70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순재(사범대 60입) 김재우(상대 58입) 임동호(의대 55입) 호기원(차대 70입)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강경수(법대 58입) 채규봉(법대) 권영덕(공대 54입) 정진화(의대 54입) 문철수(농대 50입) 김창덕(의대 53입) 임윤택(의대 63입) 이우근(올대 50입) 나도평(차대 63입) 최무식(의대 70입) 방연희(간호대 59입) 이병희(수의대 75입) 김상익(공대 46입) 김현주(올대 88입) 이상욱(차대 66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강정훈(미술대 56입) 김선기(법대 59입) 김두휘(문리대 58입) 임창희(공대 73입) 김양배(미술대 61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종원(문리대 69입) 김상용(사범대 50입)송경자(미술대 61입) 김현진(의대 58입) 황봉찬(문리대 48입) 정준성(공대 65입) 이주영(행정대학원 60입) 권순찬(공대 60입) 김대윤(법대 53입) 조진성(의대 59입) 황석우(의대 53입) 이명상(문리대 59입) 오재인(차대 33입) 박지호(차대) 안정희(미술대 62입) 김병수(차대) 강천호(사범대 58입) 조경시(공대 60입) 원광웅(공대 60입) 장인숙(간호대 74입) 채수안(사범대 73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이진영(공대 68입) 이태준(올대 62입) 장기선(간호대 54입) 나정자(간호대 70입) 최희봉(상대 56입) 김희창(공대 64입) 조동현(공대 66입) 윤석철(상대 60입) 이수남(차대 65입) 김창호(상대 57입) 김성호(법대 64입) 백만일(공대 64입) 박해욱(간호대 69입) 이창대(공대 60입) 김중헌(공대 59입) 탁해숙(올대 67입) 서치원(공대 69입) 박상호(의대 65입) 김대우(차대 62입) 이상숙(차대 31입) 조성윤(법대 46입) 김원호(의대 63입) 서재섭(상대 53입) 김창신(사회대 79입) 추준득(공대 69입) 한 일(의대 75입) 권혁창(법대 57입) 유진형(상대 48입) 유동희(공대 77입) 장동호(공대 59입)최혜영(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의대 60입) 김중자(사범대 61입) 김수백(차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윤범(차대 66입) 이범식(\$100. 공대 61입) 이승희(간호대 47입) 김배영(상대 54입) 최병룡(올대) 신우식(차대) 박진득(농대 67입) 김경애(간호대 69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정희(미술대 63입) 이양구(상대 57입) 윤용갑(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의대 63입) 김동석(올대 64입) 전나관(사범대 60입)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강명식(의대 61입) 이동희(공대 63입) 탁의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계인(의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구(공대 57입) 이재선(농대 58입) 이범도(차대 74입) 이동일(의대 68입) 이완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의대 59입) 서정빈(법대) 이정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올대 60입) 양은혁(상대 5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하영희(간호대 54입) 문일영(올대 66입) 김숙봉(문리대 53입) 임용오(의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익(법대 57입) 김성혜(올대 71입) 이홍표(의대 60입) 윤한돈(차대 69입) 김진호(의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김영기(의대 54입) 추기훈(농대 63입) 강신호(사범대 49입) 심진숙(간호대 58입) 주훈(의대) 김익창(의대 56입) 정정걸(의대 49입) 김신영(공대 75입) 조용명(차대 54입) 최준호(차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6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재(문리대 61입) 남정우(차대 48입)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입)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성(의대 44입) 김순덕 (법대) 김지익(의대 44입) 고용규(의대 67입) 박재란(올대 73입) 이기훈(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영순(올대 44입) 김경철(차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심영준(수의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종표 (법대 58입) 이효경(차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한경(의대 56입) 심상은(상대 54입) 정동구(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자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김경진(문리대 60입) 구월희(의대 78입) 박태호(차대 66입) 김상환(의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택(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훈(의대 42입) 박영근(상대 63입) 우원섭(차대 65입) 이근섭(차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차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상호(의대 72입)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묘(간호대 73입) 정기경(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병호(공대 61입) 김옥자(올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영선(미대 57입) 이영숙(차대 63입) 전병희(의대 55입) 장진성(의대 66입) 권준건(차대 65입) 김철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중권(문리대 59입) 김기은(올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차대 56입) 최승훈(상대 53입) 장대욱(올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혜인(가정대 69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욱(차대 56입) 김동호(차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권철(법대 64입) 김원택(공대 65입) 이재재(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규(의대 64입) 윤홍기(의대 64입) 문완철(사범대 59입) 이영주(차대 62입) 박일하(차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차대 50입)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의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윤(법대 53입) 박일진(차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태순(간호대 59입) 권순철(차대) 신동규(수의대 76입) 임선영(올대 57입) 임문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철재(법대 53입) 김상웅(농대 70입) 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의대 55입) 이수복(의대70입) 홍주안(공대66입) 김홍기(사범대58입) 문덕수(공대73입) 이근철(상대56입) 정광진(농대76입) 최예섭(차대45입) 김재신(올대60입) 박취서(의대60입) 강영빈(문리대58입) 임택선(공대52입) 김광근(차대59입) 오길평(차대61입) 김진호(의대64입) 강광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59입) 신정자(사범대63입) 권길상(올대 46입) 김용삼(올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서(문리대66입)</p>
02		1 김향자(의대 61입)
03	새프리스키	8 박세록(\$100, 의대 57입) 김양주(공대 48입) 김이호(상대 55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유석(의대 58입) 정지선(상대 58입) 정조웅(공대 60입) 김은중(상대 59입)
04	뉴욕 (NY, NJ, PA일부CT)	330 <p>오정환(의대 55입) 박보경(미대 87입) 나찬국(의대 64입) 김경애(간호대 53입) 권운연(의대 65입) 이라태(농대 62입) 한우진(\$100-2년분, 경영학 82입) 손승덕(미술대 77입) 오정환(보건대학원 64입) 박수성(\$150 문리대 60입) 김재민(의대 57입) 박성일(상대 58입) 김일평(문리대 50입) 이규용(경성제대 38입) 육순재(의대 69입) 강우정(올대 62입) 한영우(공대 63입) 라준국(공대 47입) 김성건(공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김은섭(의대 59입) 정기연(문리대 71입) 박용준(의대 63입) 이배용(상대 61입) 김창남(의대 65입) 김병승(\$100 상대 65입) 홍인준(문리대 58입) 권정덕(\$100 의대 60입) 최병우(공대 67입) 이문수(자연대 73입) 임대목(의대 60입) 김문태(의대 52입) 김용학(법대 70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이수일(\$100 사범대 78입) 주선후(올대 54입) 권영대(공대 69입) 신영수(차대 64입) 이승호(상대 63입) 이준행(공대 47입) 홍병희(간호대 61입) 방준재(의대 63입) 정영숙(올대 73입) 한창선(문리대 57입) 장미숙(차대 85입) 김미봉(문리대 69입) 이지현(문리대 73입) 김호경(법대 61입) 이우성(사범대 57입) 허용웅(상대 63입) 김기택(수의대 81입) 최정현(상대 77입) 박상원(올대 69입) 고영수(미술대 57입) 황용규(의대 66입) 전영성(의대 67입) 우상영(상대 55입) 한영우(\$56.86 공대 63입) 윤영자(미술대 60입) 이종대(의대 65입) 민병각(상대 57입) 배윤숙(미술대 65입) 김동필(올대 59입) 김선정(간호대 54입) 황진환(의대 62입) 조환환(차대 65입) 윤희정(문리대 59입) 김연석(상대 54입) 오영식(법대 72입) 고예자(올대 57입) 이택인(미술대 60입) 문미애(미술대 56입) 한용진(미술대 56입) 손광호(의대 59입) 윤성수(공대 71입) 박경숙(간호대 72입) 이현호(공대 58입) 김기훈 (상대 52입) 추재욱(의대 63입) 고순정(간호대 69입) 김훈(의대 65입) 배상규(의대 61입) 이미경(미술대 83입) 조숙자(간호대 59입) 이선호(의대 75입) 용하식(법대 58입) 박고자(올대 61입) 이강홍(상대 60입) 우한호(문리대 61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최구진(의대 54입) 김현중(공대 63입) 이명영(사범대 54입) 김주은(공대 71입) 김형태(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최용열(문리대 72입) 김기웅(차대 49입) 유정자(간호대 68입) 전민국(간호대 66입) 김익성(상대 52입) 최철웅(농대 61입) 허재순(사범대 54입) 배명애(간호대 45입) 김기훈(상대 52입) 최한선(공대 56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정순자(올대 63입) 성백문(공대 61입) 정기봉(사회과학대 79입) 전원일(의대 83입) 고학진(의대 66입) 장동민(문리대 61입)신종철(의대 57입) 김세중(공대 50입) 이종성(의대 64입) 이대연(의대 65입) 선우지민(의대 54입) 조문해(의대 59입) 양문석(\$100, 상대 54입) 김용영(문리대 63입) 최수봉(간호대 66입) 진봉일(공대 50입) 이능석(의대 63입) 김태호(의대 63입) 민현(의대 55입) 송영순(사범대 60입) 동형근(의대 51입) 이영일(의대 60입) 김학수(상대 65입) 송웅길(신문대학원 69입) 신남철(인문대 81입) 진웅상(공대 46입) 연봉일(문리대 61입) 윤병남(\$100, 사범대 62입) 손갑수(의대 59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한중(의대 56입) 김문경(의대 65입) 이상훈(법대 64입) 이강욱(공대 70입) 방정화(의대 61입) 김인형(미술대 59입) 김학자(간호대 59입) 최정애(간호대 66입) 이찬서(자연대82입) 파선섭(공대61입) 최수용(상대 56입) 김용재(의대 60입) 김영희(사범대 62입) 송재한(의대 61입) 전재우(공대 75입) 조창현(문리대 66입) 이봉상(의대 59입) 임종열(미술대 65입) 김영만(상대 59입) 박대규(사범대 55입) 유재은(미대 71입) 차국만(상대 56입) 이영재(상대 58입) 윤영섭(의대 63입) 정택수(문리대 45입) 양순우(법대 71입) 김정빈(의대 54입) 장태환(의대 61입)정연희(미대 64입) 무우영(\$100, 공대 66입) 서병선(올대 65입) 장기선(의대 61입) 홍선경(의대 58입) 임서태(법대 46입) 김정준(의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정용(의대 67입) 송관호(의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의대 71입) 이진수(의대 63입) 김호연(의대 46입) 김영선(공대 50입) 이유찬(의대 58입) 임공세(의대 63입) 조규용(의대 66입) 김중원(사범대 62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찬명(의대 57입) 최병철(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중진(의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호(올대 63입) 박소휘(의대 49입) 고석일(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석(공대 69입) 문길용(올대 45입) 이정은(의대 58입) 최희화(문리대 56입) 이상근(의대 60입) 김영철(의대 55입) 임건식(올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의대 59입) 양영자(사범대 63입) 원도수(차대 63입) 김해임(의대 58입) 한홍호(법대 52입) 장병호(의대 56입) 이기덕(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올대 65입) 전병삼(의대 54입)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중용(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섭(공대 69입) 박상원(올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희국(의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의대 72입) 노용빈(의대 55입) 이호호(의대 63입) 김재현(상대 70입) 이연찬(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의대 56입) 황민하(수의대 76입) 김중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형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입) 윤정욱(의대 50입) 김자익(의대 71입) 이정에(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소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의대 52입) 이재덕(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변영철(의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시열(법대 55입) 이상길(차대 66입) 허선행(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의대 63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규화(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익(농대 64입) 백윤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분(의대 55입) 홍준호(의대 67입) 조종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중웅(의대 70입,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만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호(의대 57입) 신규호(의대 68입) 이종우(의대 58입) 변영석(의대 65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의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옥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입) 최병철(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석(의대 65입) 김일하(차대 58입) 민범식(의대 66입) 최희웅(문리대 64입) 신정택(의대 52입) 이준무(올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박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올대 58입) 박승규(의대 55입) 김광수(의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64입) 박장생(의대54입) 이상빈(문리대62입) 홍정표(올대67입) 주성문(의대58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208 성정진(사회대 84인) 이춘우(치대 58쪽) 유희영(의대 58인) 박창훈(공대 66인) 최승경(공대 60인) 김현주(문리대 61인) 원종수(의대 69인) 이연우(문리대 65쪽) 김사직(상대 65쪽) 김병윤(문리대 65인) 김윤경(치대 55인) 최희수(문리대 67인) 이순자(간호대 66인) 이종민(의대 63쪽) 배규태(상대 61인) 최인갑(\$110 공대 61쪽) 박종수(수의대 58인) 이영모(의대 59쪽) 최순분(간호대 56인) 최호승(사법대 58인) 김광재(문리대 69쪽) 김길중(의대 59인) 이순희(음대 57인) 최홍기(법대 57인) 최재근(의대 59인) 서승환(치대 61쪽) 고성서(경성사범 38쪽) 김용주(공대 77쪽) 박한영(의대 64쪽) 주선우(공대) 김희주(의대 68쪽) 장황순(의대 56인) 김중수(의대 65쪽) 노영일(의대 64인) 문준호(의대 62인) 최길용(문리대 57인) 이지훈(의대 63인) 김갑진(간호대 51인) 장홍(문리대 61인) 구자철(법대 55인) 이소희(의대 61인) 노재욱(의대 64쪽) 진관보(의대 72인) 허용수(의대 61인) 임춘수(의대 57인) 배건재(공대 53인) 김연두(상대 50인) 이화영(공대 62인) 이승자(사법대 60인) 임아섭(\$100, 미술대 54인) 손기상(의대 68인) 윤덕상(치대 68쪽) 김윤하(공대 70쪽) 최여옥(간호대 47인) 이소정(음대 84인) 정호(공대 62인) 장철(의대 71쪽) 김유식(의대 64인) 허상태(의대 50인) 박준환(의대 57인) 송용덕(의대 57인) 유익홍(상대 61인) 이재종(의대 58인) 구형서(공대 69인) 김기태(의대 52인) 정태(\$100, 의대 57인) 임정혁(사법대 54인) 김우영(의대 70쪽) 이범구(공대 59인) 이수인(\$200, 의대 56인) 김영호(의대 77쪽) 조현원(문리대 66인) 송원희(미술대 60인) 문광재(의대 62인) 이재현(사대 67쪽) 유준석(의대 53인) 민영기(공대 65인) 김정근(의대 61인) 박일성(의대 60인) 이경자(미술대 65쪽) 신석규(문리대 54인) 김철규(의대 47쪽) 서영일(의대 68쪽) 조희(공대 49인) 장재천(\$100, 의대 50인) 김태수(의대 66인) 문경용(의대 67쪽) 홍해례(사법대 72인) 김정수(문리대 69인) 김정주(문리대 64쪽) 신영규(의대 57인) 주영순(간호대 64인) 남상수(문리대 56쪽) 정우철(의대 55인) 문병훈(사법대 46인) 하정윤(치대 81인) 양홍미(의대 67쪽) 서은석(의대 62인) 김희정(의대 60인) 이한중(의대 61인) 마동일(의대 57인) 김이순(공대 56인) 진승근(간호대 64인) 송용재(의대 63인) 한성수(의대 56인) 박정일(의대 61인) 황규정(의대 65쪽) 박영준(문리대 67인) 이윤모(농대 57인) 박숙(의대 64인) 김현석(문리대 69인) 이철호(의대 59쪽) 윤석환(치대 62쪽) 임영신(의대 57인) 임동숙(간호대) 이기억(문리대 47쪽) 이광선(의대 65쪽) 이종일(의대 71쪽) 임무광(문리대 61인) 지병식(사대 65인) 백준철(공대 66쪽) 최순강(음대 65인) 한의일(공대 62인) 한동하(의대 58인) 이상일(의대 54인) 김윤태(의대 63인) 윤봉수(간호대 73쪽) 황림상(의대 55인) 권순호(간호대 78쪽) 김동수(공대 48인) 계병수(의대 69인) 장홍(문리대 61인) 이백기(의대 58쪽) 김형수(농대 68인) 김태기(의대 68쪽) 안창현(의대 55인) 이진주(문리대 55인) 진보리(의대 56인) 이진경(공대 73쪽) 김용우(공대 58인) 이수인(의대 56인) 장시경(의대 58인) 정영숙(사법대 63쪽) 안은식(문리대 55인) 장세근(의대 57인) 허서룡(의대 60인) 김근(문리대 63인) 한재은(의대 59인) 김병현(법대 51인) 이민우(의대 67쪽) 원종수(의대 69인) 배영삼(의대 54인) 이명자(간호대 60인) 한경희(간호대 67쪽) 이기훈(의대 42인) 정길희(의대 65쪽) 김장구(의대 66인) 이태인(의대 67쪽) 최해숙(의대 53인) 김일호(의대 51인) 이규달(의대 68쪽) 임근식(문리대 56인) 위경희(의대 67인) 한성학(의대 57인) 박봉수(공대 59인) 표양순(간호대 71쪽) 장병호(의대 66인) 조현영(의대 75쪽) 김인수(상대 60쪽) 이인선(의대 72쪽) 최홍순(공대 60인) 임현재(의대 59인) 강영규(수의대 67인) 소진문(치대 58인) 유태일(교육대 67인) 김용성(상대 54인) 고병철(법대 55인) 정승규(공대 60인) 장윤일(공대 60인) 김창만(의대 58인) 구경희(의대 59인) 계훈택(의대 55인) 송재철(의대 48인) 배건재(공대 53인) 이덕수(문리대 62쪽) 이철주(치대 77인) 전영자(치대 58인) 남상용(공대 52인) 고영철(의대 45인) 이영웅(의대 62쪽) 김택수(의대 63쪽) 조항일(의대 54쪽) 박창훈(공대 66인) 정남재(사법대 56인) 이범세(의대 57인) 임재일(농대 64인) 이정일(농대 57인) 장기남(문리대 62인) 김정일(의대 57인) 서상환(\$100, 의대 71쪽) 조종형(의대 63인) 조영재(상대 68인) 김봉주(사대 72인) 차광순(사대 70쪽) 최동규(법대 79인) 이윤락(공대 48인)
06	워싱턴 DC (MD, VA)	118 김진은(사법대 ?) 이영호(사법대 57인) 윤성희(사법대 ?) 한종환(문리대 55인) 박상진(문리대 53인) 강경구(사법대 49인) 박철(공대 57인) 조희우(문리대 61인) 이한승(의대 59인) 김경남(음대 65인) 이태영(법대 60인) 이재필(의대 51쪽) 김기봉(공대 63인) 김부근(의대 54인) 배병권(상대 55인) 윤만중(의대 53인) 유덕영(공대 57인) 김복순(사법대 55인) 박찬효(의대 67인) 김태연(상대 56인) 한일영(농대 53인) 김주희(공대 71인) 최호철(문리대 60인) 한인섭(문리대 55인) 안용구(음대 46인) 박수용(\$100, 의대 69쪽) 김익성(수의대 60인) 강순일(사법대 64인) 서취일(의대 55인) 전희순(간호대 80인) 안승건(문리대 55인) 남광순(음대 64인) 파홍(의대 45인) 김신자(음대 54인) 맹옥일(간호대 68인) 이선구(\$100, 문리대 65인) 이규진(상대 68인) 임나중(의대 55인) 박양희(음대 58인) 최규식(상대 64인) 신영철(의대 53인) 김병오(의대 63인) 박준영(의대) 김정환(문리대 60인) 김재동(인문대 70인) 박홍우(문리대 65인) 박윤수(\$100, 문리대 48인) 백순(법대 58인) 김영기(법대 50인) 한혜경(간호대 43인) 김명자(법대 52인) 유달(의대 61인) 민길우(문리대 61인) 오인환(문리대 63인) 이영복(공대) 박병일(농대 69인) 이재승(의대 56인) 도상철(의대 63인) 오해철(의대 59쪽) 방은호(의대 42인) 조근일(사법대 40인) 조병선(의대 71쪽) 마계일(치대) 한혜경(간호대 43인) 심준보(상대 55인) 문성길(의대 63인) 이정근(미술대 77인) 이항일(법대 57인) 주일(의대 46인) 문세희(법대 57인) 임승용(농대 57인) 오기창(법대 50인) 김석호(공대 78인) 고우환(법대 57인) 김창호(법대 56인) 이정선(의대 48인) 박병영(의대 66인) 조남현(의대 64인) 김홍규(의대 60인) 이신규(\$100, 공대 63쪽) 김창용(법대 60인) 김진홍(의대 68쪽) 장병규(사회과학대 76인) 이나연(사법대 58인) 박형순(의대 60쪽) 김근(농대 75인) 파태조(음대 64인) 박영호(공대 64인)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인) 신상규(의대 52인) 조인욱(간호대 71인) 최동현(문리대 50인) 장효강(공대 66인) 김수용(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인) 강준희(의대 71인) 윤계일(의대 60인) 김재구(의대 56인) 전경철(공대 55인) 소숙영(간호대 64인) 이홍석(공대 49인) 변만식(사법대 49인) 정재성(의대 68쪽) 임필수(의대 54인) 김기철(공대 67인) 박상대(문리대 71인) 신영철(의대 53인) 진금섭(의대 57인) 김효성(공대 51인) 이형우(의대 45인) 유영준(의대 68인) 정두현, 석근업(문리대 61인) 박인영(의대 69인) 정약호(의대 49인) 이경의(의대 59인) 오광동(공대 52인)
07	워싱턴주 (WA)	29 최두환(공대 83인) 민병남(문리대 49인) 김동호(농대 58인) 조준범(행정대 69인) 고희선(법대 64인) 이재수(공대 65인) 권영길(의대 64인) 한민섭(공대 49인) 이철(사법대 48인) 최은환(농대 58인) 허윤행(사법대 57인) 안승희(농대 59인) 최경수(사법대 52인) 전병택(상대 60쪽) 이태원(사법대 58인) 이혜숙(문리대 64인) 김영일(공대 53인) 양용관(수의대 62인) 채태용(법대 55인) 윤재명(의대 65인) 김봉오(법대 74인) 전계상(공대 40인) 김재호(상대 54인) 유성렬(공대 72인) 맹병규(문리대 70인) 이순모(공대 56인) 이동림(의대 52인) 홍수택(의대 65인)
08	휴스턴 (HOUSTON)	36 김동섭(공대 75인) 명인성(공대 50인) 로승국(의대 64인) 조시호(문리대 59인) 이민연(\$100 법대 61인) 김기수(사법대 70인) 김진영(공대 58인) 이재동(공대 83인) 김영일(공대 60인) 최동주(문리대 64인) 문해련(미술대 73인) 박태우(공대 64인) 이길영(일광공대(문리대 64인) 신용선(공대 55인) 김경훈(공대 46인) 박민자(사법대 58인) 김홍열(의대 56인) 노승국(의대 64인) 황호자(음대 62인) 박승국(의대 59인) 김태훈(공대 57인) 유금영(법대 50인) 허천(공대 60인) 김성철(의대 61인) 김학재(공대 60인) 이옥배(문리대 62인) 이찬주(공대 63인) 김영창(공대 64인) 박진수(의대 58인) 이은설(문리대 53인) 현인섭(공대 57인) 최광욱(문리대 73인) 최관일(공대 54인) 이진현(의대 67인) 이규진(의대 60인)
09	달라스 (DOLLAS)	7 서태근(문리대 55인) 권혁초(사법대 52인) 신홍영 강상호(수의대 81인) 전종희(공대 56인) 김인호(공대 47인) 임상남(사법대 56인)
10	미네소타 (MN)	19 강선명(상대 48인) 권학주(치대 59인) 김관식(공대 61인) 주영문(농대 54인) 송창원(문리대 53인) 김영남(사법대 53인) 권승림(공대 52인) 남세현(공대 67인) 변우진(인문대 81인) 왕규현(의대 56인) 주환수(농대 62인) 박상남(공대 71인) 남세현(공대 67인) 김태환(의대 58인) 최정음(공대 58인) 신학철(공대 75인) 김관식(공대 61인) 문일지(공대 61인) 조형준(문리대 62인)
11	조지아 (GA)	24 문종현(사회대 84인) 임수만(공대 62인) 최진(문리대 60인) 김용건(문리대 48인) 김용자(사법대 64인) 김애순(문리대 68인) 김재철(공대 68쪽) 임한웅(공대 60인) 이철남(의대 50쪽) 사정수(\$100, 사법대 70인) 윤민자(음대 65인) 주종광(의대 60인) 유우영(의대 68쪽) 장병건(대학원 64인) 김민복(문리대 72인) 한영수(의대 54인) 이관호(공대 45인) 은철수(상대) 배나영(상대 61인) 조덕성(공대 71인) 박천기(법대 56인) 이준남(의대 59인) 계광민(공대 63인) 오경호(농대 60인)
12	아리조나(AZ)	10 신경호(의대 63쪽) 오덕경(의대 58인) 오성숙(간호대 59인) 유기석(문리대 60인) 서기권(공대 70인) 최종태(공대 69인) 최상호(공대 53인) 박양세(의대 48인) 이은수(경영대학원 73인) 진명기(공대 70인)
13	유타 (UT)	5 김인기(문리대 58인) 이정면(사법대 47인) 한성양(문리대 62인) 김성원(문리대 59인) 손홍용(공대 58인)
14	하와이 (HI)	15 김승태(의대) 신동인(공대 58인) 최치택(법대 59인) 정태우(사법대 44인) 김동림(사법대 55쪽) 김성일(의대 68쪽) 백영기(의대 50인) 유재호(\$100, 문리대 50인) 구해근(문리대 60인) 오갑열(행정대학원 75인) 박상재(상대 49인) 남궁중(공대 52인) 황재민(농대 71인) 김창원(공대 49인) 김용진(공대 50인)
15	오레곤 (OR)	13 최영자(간호대 56쪽) 한영준(사법대) 이철민(공대 50인) 조현원(수의대 55인) 최태인(사법대 59인) 김선호(사법대 59인) 박정성(사법대 72인) 박희진(문리대 57인) 김상순(상대 67인) 김상민(음대 46인) 서성주(사법대 67인) 최동근(문리대 50인) 이태호(문리대 61인)
16	기타 (서부)	9 신경일(공대 58인) 이순환(의대 53인) 박종희(사법대 87쪽) 최원일(상대 56인) 서민길(의대 63인) 이학은(의대 57인) 홍지호(공대 53인) 박용호(의대 59인) 김현철(의대 57인)
17	기타 (중부)	4 오새환(의대 67쪽) 김호근(의대 62쪽) 이희백(의대 55인) 유태준(의대 59쪽)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9 이희운(\$100, 문리대 54인) 정인환(의대 63쪽) 윤영욱(의대 57인) 박태진(의대 62쪽) 김경관(의대 55인) 오석일(의대 70쪽) 김수신(의대 52인) 한경섭(공대 52쪽) 장영규(농대 65쪽) 한광수(의대 57인) 오신중(의대 60쪽) 정양수(의대 60인) 정구영(의대 50인) 박종선(공대 60인) 오인석(법대 59인)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쪽) 조동림(의대 56쪽) 이종진(공대 55인)
19	플라델피아(PA)	55 윤경숙(문리대 59인) 정홍택(상대 61인) 이혜원(\$100 의대 57인) 김순경(공대 41쪽) 한달수 오연각(수의대 53인) 이정필(의대 58인) 이승욱(사법대 64인) 유영길(의대 72) 김영철(의대 52쪽) 양운택(\$100, 의대 58인) 이산삼(농대 63인) 홍종환(문리대 75인) 송영락(의대 66쪽) 김사영(의대 56인) 성경호(의대 59인) 강영배(수의대 59인) 김태영(의대 55인) 이병인(수의대 69인) 윤원길(의대 65쪽) 이재희(상대 88인) 원종민(의대 61쪽) 김준철(사법대 59인) 최종우(상대 63인) 진병학(의대 57인) 이윤성(수의대 81인) 이승환(공대 56인) 이만택(의대 58쪽) 김시경(미술대 62인) 이상봉(\$100, 문리대 65인) 이규호(공대 56인) 임국영(의대 60쪽) 윤정나(음대 57인) 정덕준(상대 63인) 정학량(의대 56인) 사중민(공대 64인) 김현영(수의대 58인) 남신우(공대 61인) 김용국(의대 58인) 임광상(공대 57쪽) 심원섭(의대 73쪽)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인) 주기복(수의대 68인) 안지영(문리대 71쪽) 구정윤(의대 55인) 오진석(치대 56인) 김영우(공대 55인) 신성식(공대 56인) 문상규(의대 62쪽) 서진석(의대 62인) 최현(공대 68인) 양운택(의대 58인, \$100) 이기범(의대 56인) 전병남(상대 73인)
20	뉴잉글랜드 (MA, RI)	45 김은영(사회대 89인) 이은주(음대 73인) 이은희(의대 54쪽) 장용복(공대 58인) 조준호(공대) 박경민(의대 53인) 이의인(공대 68인) 채용석(공대 72인) 정태진(의대 53인) 정해숙(간호대 66인) 윤희경(문리대 61인) 정정욱(의대 60인) 어재홍(공대 67인) 안광원(의대 53인) 김동희(간호대 62인) 이희규(공대 69인) 김인수(사법대 55인) 김중성(경영대 76인) 김영호(치대 45인) 변종원(공대 70인) 김성민(문리대 59인) 김은현(의대 60인) 최인섭(의대 72쪽) 김재호(상대 56인) 김호영(의대 52인) 김교안(의대 59쪽) 박원자(음대 62인) 채도경(의대 59인) 강길영(의대 59인) 강경식(문리대 55인) 윤상대(수의대 60인) 박병준(공대 52인) 김영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인) 김문소(농대 61인) 변희경(음대 66인) 문대욱(의대 73쪽) 문형성(의대 65쪽)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인)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인) 노인규(의대 52인) 김순규(문리대 53인) 김경태(문리대 53인)
21	하트랜드	26 *지역동창회에서 내 구독료 보조금(\$500)은 지역동창회 관외후원금으로 기재하였음 김계윤(의대 57인) 민중식(상대 56인) 이정희(음대 88인) 지일성(의대 61인) 김호원(치대 52인) 박영자(사법대 54인) 차봉희(의대 57쪽) 김백연(의대 52인) 배규영(사법대 68인) 오병순(가정대 69인) 이경배(사법대 61인) 류광현(문리대 58인) 박옥동(상대 56인) 권노환(문리대 52인) 신두식(의대 58인) 오대우(의대 56인) 오계숙(미대 59인) 임하진(의대 79인) 민경환(의대 56인) 유준희(의대 70인) 박세희(의대 76쪽) 이상갑(의대 70인) 김경숙(가정대 70인) 남원홍(의대 60인) 구병수(간호대 66인) 이상무(상대 57인) 권성수(공대 71인) 박영현(의대 72쪽) 장호(문리대 60인) 김태양(?) 박문희(의대 59인) 임옥인(공대 75 인) 홍수용(의대 59 인) 심기련(상대 57인) 심재철(공대 78인)
22	펜실베이니아	9 권성수(공대 71인) 박영현(의대 72쪽) 장호(문리대 60인) 김태양(?) 박문희(의대 59인) 임옥인(공대 75 인) 홍수용(의대 59 인) 심기련(상대 57인) 심재철(공대 78인)
특별기부금		2 (고) 전시환 동문의 미명인 \$ 50, Mrs. 안영원 \$ 82
계		1,391 71,548.86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정유석(200 의대 58입)	1	200
02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엄무광(500 분리대 61입)	3	5,500
06	워싱턴 DC (MD, VA)			
07	워싱턴주			
08	휴스턴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11	조지아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19	필라델피아	정정수(200 의대 56입)	1	200
20	뉴잉글랜드			
21	하트랜드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일반 이사 합계			4	\$2,900
종신 이사 합계			1	\$3,000
총 계			5 명	\$5,9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8월 2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이용락

300달러이상

이용락(\$5,000)

엄무광(\$500)

300달러이하

정유석(\$200)

정정수(\$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6월 30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윤정옥 (뉴욕 · 약 50입)

김영덕 (뉴욕 · 공 53입)

이병준 (납가주 · 상 55입)

김병수 (뉴욕 · 상 55입)

최수용 (뉴욕 · 상 55입)

유창남 (뉴욕 · 의 58입)

오인석 (뉴욕 · 법 58입)

이전구 (뉴욕 · 농 60입)

임낙균 (납가주 · 약 64입)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 이상

정정수 (의대 56입) \$500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 이하

이소정 (음대 84입) \$200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장병건 (보건대학원64졸)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납가주(CA)	한홍택(\$1,000) 황석우(100) 정인환(200) 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 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형(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익(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 김연석(200) 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9	91,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훈(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7	5,900
06	워싱턴 DC(MD, VA)	변만식(100) 지역동창회(\$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지역동창회(3,990) 조수미 CD 2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건(50) 이서명(50)	11	16,20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5	1,2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운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 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35	508,644.33

약정하신 동문들

*2002년 7월1일부터 2002년 8월 28일까지 납입하신 분 5명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민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납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납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42 명	727,643.33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약제사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열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용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365-9669 F:213-365-1686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패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중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득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바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욱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황택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강관

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인)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 60인)
(212)564-2255
New York, NY

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인)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법선 (상 48인)
이경림 (상 64인)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인)
(212)695-0206
New York, NY

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인)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인)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섭 (상 68인)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국악사업

IBECONS INT L
김제철 (공대 58인)
(212)460-2815
New York, NY

교회

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인)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인)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인)
(410)962-8409
Baltimore, MD

금고

Alco Lock & Safe
정민식 (상 58인)
(212)867-3377
New York, NY

금상/송지

무역

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인)
(212)683-6462
New York, NY

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인)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인)
(503)620-1001
Lake Oswego, OR

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인)
(310)216-7929
Los Angeles, CA

법회사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인)
(718)463-3500
Flushing, NY

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 (문 60인) 창업
(773)463 7756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인)
(212)619-1770
New York, NY

병상사업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인)
(718)768-1264
Brooklyn, NY

경관 수납(무동업)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인)
(330)534-8383
Hubbard, OH

병상사업인원

Rim and Sul, MDPC
임춘수 (의 57인)
(313)882-2922
Grosse Pointe,

병상사업자사

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인)
(212)423-4817
New York, NY

병상 위생관리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인)
(718)461-6212
Flushing, NY

병상 지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인)
(201)871-0007
Tenafly, NJ

보석

Gold Plus
서재숙 (음 65인)
(212)354-8988
New York, NY

보급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인)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인)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인)
(718)463-9100
Flushing, NY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인)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인)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인)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인)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인)
(703)750-0000
Annandale, VA

로얄 부동산
엄우광 (문 65인)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인)
(206)972-3675
Everett, WA

설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인)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인)
(718)392-0111
L.I.C. NY

연세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인)
(562)602-6567
South Gate, CA

운송사업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인)
(592)467-5455
Artesia, CA

송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인)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인)
(213)368-9000
Los Angeles, CA

의문기구

MASH
심상은 (상 54인)
(213)487-5695
Los Angeles, CA

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인)
(201)863-5160
Secacus, NJ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인)
(201)440-8500
Moonachie, NJ

인터넷 사업

KS E biz
장세완 (농 69인)
(201)722-4796
River Vale, NJ

선물점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인터넷 사업

Aladdin USA
이영림 (문 79인)
(323)692-9888
LA, CA

지방지 부품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인)
(310)327-1006
Gardena, CA

진지

Amkor Anam
정홍택 (상 61인)
(214)580-1879
Philadelphia, PA

부동산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인)
(613)265-1121
Smithtown, NY

학원

Kumon Educational Inistitue
김형덕 (상 57인)
(718)358-0538
Flushing, NY

민익점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인)
(718)353-6207
Flushing, NY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인)
(718)733-1399
Bronx, NY

화장품

Revi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인·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학원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인)
(800)2525-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인)
(626)287-6161
San Gabriel, CA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셔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1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

〈전면광고〉

은퇴자들의 樂園 Citrus H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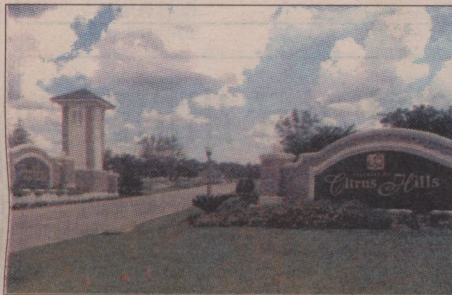
어째서 우리同門들이 Citrus Hills로 隱退하는가?

"Citrus Hills is Next to Heaven"
"This is Golfer's Paradise"

이것은 Citrus Hills 로 은퇴하신 동문들의 표현이다. 요즈음 중부 후로리다에 있는 씨트러스 힐스로 은퇴하는 동문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이민 1세인 동문들이 이제는 은퇴의 나이에 이르러서 자연 은퇴하는 동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씨트러스 힐스로 은퇴한 동문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1. 위치

Citrus Hills 는 중부 후로리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간 비교적 고지대의 마을이다. 탬파나 올란드 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Citrus County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가까운 도시로는 동분쪽으로



약 30마일 지점에 오칼라(Ocala)라는 중소 도시가 있다.

2. 자연환경

Citrus County는 동쪽으로는 23mile 길이의 호수군(Chain of Lakes)이 있고 북쪽으로는 강이 있으며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3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다. 남쪽으로는 45만 에이커에 달하는 주 삼림이 있다. 바다 쪽으로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자리잡고 있고 많은 섬들이 있다. 그래서 이 county 이고 Citrus Hills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주변으로 하여 그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 county는 후로리다 nature coast(자연환경이 좋은 해안지대)의 중심을 이룬다.

3. 여름에도 살기 좋은 곳

Citrus Hills 는 후로리다에서 두번째로 높은 지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지대가 높은 관계로 주변에 고여있는 물이 없으므로 여름에 습기가 낮고(년 평균



65%) 따라서 모기도 매우 드물며 또한 늘 산들바람도 불어와 한 여름에도 그늘밑에서는 시원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후로리다 중에서 여름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한가지는 내륙에 위치하며 지대가 높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4. 생활조건

인건비가 저렴하여 생활비가 저렴하며 필요한 쇼핑과 의료시설은 주변에 많이 있다. 동네에서 약 10분 이내에 병원과 지역 의료

시설들이 많이 있고 쇼핑 센터들이 여럿 있어서 매일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식품으로는 지역에서 나는 육류, 생선류, 과일과 채소들이 늘 싱싱하게 공급되고 있고 탬파나 올란드 그리고 후로리다 주립대학이 있는 Gainesville 한국식품점들이 있다. 그곳에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주로 탬파 한국 식품점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약 1시간 10분 거리에 여러 한국 식품점들이 있고 비디오 테이프는 Citrus



Hills 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식품점에 들른 후 주변의 한국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선은 늘

싱싱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한국인의 입에 맞는 생선들을 사철 즐길 수 있다. 식수는 천연지하수가 풍부하여 지하수가 흘러 넘쳐 강이 될 정도다. 이 식수는 99.97% 순수한 물이라고 하며 후로리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훌륭한 식수를 풍부하게 공급받고 있다. 생활비 지수는 후로리다 내에서도 낮은 편이고 한국인들은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5. Golf 와 오락

그곳 주변에 일급 골프장과 기타 많은 오락 시설들이 물론 있다. 그리고 Citrus Hills 개발 회사 내에만도 이미 90홀의 골프장, 여러 개의 테니스 코트, 2개의 승마장, 5개의 클럽하우스, 대규모의 수영장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수영장, 헬스 클럽, 극장 등 각종 오



락 시설은 물론 클럽에 속한 소셜 액티비 센터에서 주관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많고 또 다양하여 (예를 들면 각종 Cruise 는 물론 다



양한 클럽이 있다.) 은퇴자들이 즐기며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회사가 특별한 담당자들 두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인근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출중한 곳이다. 이 클럽에 참가하면 친절한 이웃들과 어울려 여러 가지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 수 있고 또 그곳 한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말한다. 동네 안에 제일 높은 곳에 특별히 마련한 Gated Community 안에는 17000sqft 규모의 Activity Center(각종 오락시설, 미술 작품실, 당구장, 컴퓨터실, 공연장, 운동기구와 스파, 대형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골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지



역은 작은 언덕들이 많아서 골프장들이 hilly한 것이 특징이고 최고급의 public 골프장도 주변에 여럿이 있다. Public Golf Course 들의 green fee는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며 일년동안 골프를 즐겨도 연간 가정 당 4,200불(Citrus Hills-Cart 포함하여)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동네 안에 있는 골프장중 하나인 Skyview Golf Course 는 이를 그대로 후로리다에서 가장 높은 골프장으로서 그곳에 은퇴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이다.

6. 동네특징

Citrus Hills 는 크고 작은 20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마을들은 개발연대와 장소와 크기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택 가격도 다르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그중 최근에 개발하는 Terra Vista는 동네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

으며 Gated Community이고 동네에서 가장 좋은 Golf Course도 있다. 개인집과 Villa의 두가지 Series의 주택이 있는데 Villa란 개인 주택이지만 association에서 공동으로 외부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condo concept의 개인주택이라고 부른다. Gated Community 안에 있는 이 Villa 가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격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5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다양하다. 크기는 1300sqft에서 2200sqft사이 이다.

Citrus Hills 개발 총 면적은 1만 acre나 되고 주택도 약 4000호 가량 들어서서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이다. 한인들도 약 30가구가 들어섰으며 앞으로 5년 이내 100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7. 결론

Citrus Hills 는 기후와 환경과 위치, 자연조건과 생활조건 그리고 오락시설 등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후로리다 내에서 동문들이 은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공황이 멀다는 평도 있지만 그 대신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 은퇴한 한인들은 이곳을 near paradise, next to heaven, golfer's paradise 혹은 almost paradise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곳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과 기후로 보아 살기에 아주 comfortable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평들을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가보고 살아보지 않고는 그 평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분은 전화 847-676-0200 로 연락하시거나 우편으로는 업무광(문리대 61년 졸)동문: Moo K Uhm 5020W, Crain St. Skokie, IL 60077, E-mail moouhm@yahoo.co.kr